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불성이 여래장
성불에는 남녀 차별 없어
8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1일) · 주간

제1032호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마땅히 배워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 2030세대 종교인구 감소 불교도 '발등의 불' 떨어져

## 한국갤럽, 1984~2014 종교 지형 보고서 발간

불교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2030세대에서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회 참석 · 기도 · 본인 신앙심 척도 역시 한국 사회 3대 종교(불교 · 가톨릭 · 개신교) 중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월 12일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종교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14년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인구는 2004년 이후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는 1984년 44%, 1989년 49%, 1997년 47%, 2004년 54%로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50%로 떨어졌다. 반면, 비종교인 비율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20~30대의 종교 이탈이 심각하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이 45%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1%로 14% 감소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 전 49%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11% 줄었다.

종교별로는 불교 22%, 개신교인 21%, 가톨릭인 7%, 비종교인 50%로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 인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0년 간 불교 인구는 2% 감소했고, 개신교인과 가톨릭인은 변화가 없었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으나 가톨릭은 3040세대의 비율이 전체 신자의 20~30%에 달해 안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생활 측면에서도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낮은 신앙심과 참여도를 보여줬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 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30년 종교 지형 살펴보니**
**불교 2004년 이후 감소**
**젊은층 이탈 · 고령화 원인**
**가톨릭 20 · 30대 신도 집중**

**불교 의미 두는 佛子 줄어**
**"종교인구 축소" 장기 전망**

하지만 가톨릭을 제외한 불교와 개신교는 지난 30년간 '신앙심이 깊다' 고 말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한 번 기도를 하는가' 를 묻는 질문에 불교는 8%만이 '그렇다' 고 말했으며, 개신교는 52%가 가톨릭은 30%가 1일 1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경전을 읽는 신도 역시 불교가 가장 낮았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경전을 읽는가' 라는 질문에 불교는 11%만이 긍정했으나 개신교는 56%가 경전을 읽고 있었다.

'개인 생활 중 종교의 중요도' 에서도 불교는 지난 30년 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불교가 개인 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불교인은 1984년 88%였던 것에 반해 1989년 78% 1997년 77%, 2004년 68%, 2014년 59%로 30년간 30% 가까이 감소했다.

1989년부터 조사 보고서 분석에 참여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2030세대의 탈(脫) 종교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조사에서는 불교의 약진, 개신교의 정체, 천주교의 감소로 요약됐지만 2014년 현재 종교 인구 지형은 불교의 감소,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 며 "종교 인구 측면에서는 현재 불교인의 증감이 중요한 변수" 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2.5%, 신뢰 수준은 95%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해설 3면〉

**연령별 종교인 분포 1984-2014**

| | 19~29세 | | | | 30대 | | | | 40대 | | | | 50대 | | | | 60세 이상 | | | |
|---|---|---|---|---|---|---|---|---|---|---|---|---|---|---|---|---|---|---|---|---|
| | '84 | '97 | '04 | '14 | '84 | '97 | '04 | '14 | '84 | '97 | '04 | '14 | '84 | '97 | '04 | '14 | '84 | '97 | '04 | '14 |
| 불교인 | 10 | 10 | 15 | 10 | 17 | 15 | 21 | 11 | 28 | 21 | 27 | 21 | 29 | 30 | 35 | 32 | | | | 35 |
| 개신교인 | 20 | 19 | 23 | 18 | 19 | 22 | 23 | 20 | 14 | 22 | 21 | 20 | 13 | 18 | 19 | 23 | | | | 24 |
| 천주교인 | 5 | 6 | 6 | 3 | 7 | 8 | 6 | 7 | 5 | 8 | 9 | 9 | 6 | 7 | 6 | 5 | | | | 8 |
| 비종교인 | 64 | 64 | 55 | 69 | 55 | 53 | 51 | 62 | 51 | 47 | 43 | 49 | 47 | 44 | 38 | 40 | | | | 32 |

*109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60세 이상 별도 구분



**"나라 지키며 전법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1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육사71기 졸업 및 임관축하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양종수 육군사관학교장, 최용림 前국군불교총신도회장, 군승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생도 76명은 졸업에 앞서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로 정법을 수호하며 신심을 굳게 세워 항마의 보살이 될 것"이라며 "국토 어느 곳을 가거나 전법과 정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 最古금속활자 '증도가자' 연구결과 공개

## '직지' 활자보다 138년 앞서… 경북대 산학협력단 조사

〈직지〉에 쓰인 금속활자보다 138년 앞선 〈증도가자〉의 진위를 밝히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남권희)는 최근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증도가자〉 109개 활자에서 추출한 먹의 방사성연대 측정 결과 15개 활자가 1033년에서 1155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용역을 받아 〈증도가자〉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해 왔다.

〈증도가자〉는 고려가 1101년부터 국자감에서 간행한 서적에 사용된 금속활자로 알려져있다. 〈증도가자〉는 발표 당시부터 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0년 9월 2일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서울 다보성미술관이 소장한 고활자 12점이 번각

**11세기 먹, 활자서 추출해 검증**
**문화재청 보물지정 절차 돌입**



다보성박물관 소장 〈증도가자〉

본인 〈증도가〉 속의 글자와 비슷하다" 며 그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다보성미술관(관장 김종춘)의 소장활자 100여 점을 추가로 공개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으나, 출처 및 소장경로, 진위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일며 지정이 연기 됐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전문가 32명이 참여해 1년간 연구 끝에 증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가 〈증도가자〉의 최초 공개자와 동일인이어서 조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보물지정 절차를 밟기로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 대형불화 정밀조사 시행된다

## 문화재청, 성보문화재硏과 10년간 진행

그동안 의식용 불화라는 특수성으로 연구가 제한되고,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불화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조사가 시작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과 함께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중요 대형불화(괘불탱, 掛佛幀) 54점과 관련 유물 207건 431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대형불화는 사찰의 중요전각에 봉안되거나 야외의식을 위해 조성된 3m 이상의 불화를 말한다.

조사는 인문학적 조사,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 보존과학적 조사로 구성된다. △인문학적 조사는 해당 문화재의 크기와 특징 등 문헌 연구자료를 수집 · 분석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 △ 디지털 정보구축 조사는 2D(2차원) · 3D(3차원) 스캔을 통해 문화재의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보존과학적 조사는 재질과 안료분석, 손상조사, 비파괴 안전진단을 위해 적외선 · 현미경 ·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 모니터링 등으로 실시된다.

2015년 조사는 보물 제1350호 양산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등 경남 · 경북의 중요 괘불탱 4점과 괘불탱 관련 유물 112건 336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32호 INDEX


시방세계 5
동산반야회
제1회 염불스테이



화엄만다라 16 · 17
최용춘
前 교불련 회장




독자여러분, 따뜻하고 화목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Since 1991 KASAN INSTITUTE OF BUDDHIST CULTURE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불교대사림』 제15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모든 功德을 伽山智冠大宗師 大覺靈前에 그리고 大衆에게 回向합니다."



"'항심[恒心]'으로 고군분투하라! '항심'이 중생을 이익케 하는[饒益衆生] 원력[願力]과 함께할 때, 세간[世間]은 불멸[不滅]의 공덕을 얻는다" 하신 가산지관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변함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후 1145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대중 분향후 올림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

# 태고종 집행부 하루만에 청사서 퇴거

## 도산 스님 "해결 위해 대화" VS 비대위 "폭력집단과 대화 안해"

폭력 진입 논란을 일으키며 2월 11일 새벽 총무원 청사를 재탈환한 태고종 도산 총무원장 집행부가 다음날 퇴거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폭력 집단을 대화상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해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태고종 집행부는 2월 12일 태고종 총무원사서 퇴거하며 도산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비대위가 불법 점거한 총무원사를 원상회복했다"며 "종단 안정을 위해 퇴거하고 공실로 두며, 비대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집행부는 총무원사 인근 임시사무실서 종무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대위 측도 총무원사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법적대응과 소모적 논쟁없이 평화적인 대화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 비대위측은 12일 오후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집행부가 폭력적인 청사진입을 한 자정쯤 용역깡패 8명이 청사를 나오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장에서 도산 원장이 청년회원들이었다는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도산스님은 폭력 점거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자 위장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도산스님은 즉각 총무원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 동국대 총장선거 내분 격화

## 보광 스님 징계 예고에 11일 이사회 무산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이사회에 징계안이 상정예고되자 2월 11일 일부 이사들의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동국대는 이날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건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사 13명 중 9명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은 "연구윤리진실성위가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고 비밀엄수 조항도 위배하는 등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사장 해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장인 정련 스님은 이날 "지난해 12월 있었던 일은 명백히 총장 선출에 대한 종단의 외압이고 위협이었다. 상식을 뛰어넘는 부당한 권력행사"라며 "종단이 학교 구성원들과 대중 앞에서 분명히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이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쓴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교내 · 외 일부세력의 언론플레이며 악의적 논문검증"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해 총장후보자로 끝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학생들은 같은날 동국대 팔정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 자주성이 훼손된 데 이어 여러 이권의 개입으로 사건의 본질마저 흐려지고 있다"며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조계종의 총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 정묵 스님

## 7일 임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덕숭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후보에 前 중앙종회 부의장 정묵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2월 7일 31차 임회를 열고 지운 스님 후임 주지 후보에 정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는 정묵 스님의 주지 임명을 품신하게 되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주지 임기는 오는 3월 18일에 시작된다.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수덕사에서 우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혜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2, 13, 14, 15대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호압사 회주이다. **신성민 기자**

# 한국불교 · 종교사회 현안 논한다

## 불교 · 종교 현실 진단하는 논단 · 포럼 잇달아 개최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시대, 한국불교와 종교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논단과 포럼이 잇달아 개최된다.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60회 기념해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속기획을 개최한다.

2~4월까지 3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연속 논단은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2월 26일 열리는 논단에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수행, 정말 잘 하고 있는가'를, 3월 19일 논단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4월 16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불교평론은 "2월 논단 주제인 '수행, 정말 잘하고 있는가'에서는 한국불교의 특색이자 자랑인 '수행'이 과연 불교의 목적인 탐진치의 지멸과 열반의 성취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의 기초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평론 열린 논단**
**60회 맞아 3회 연속 토론**
**'한국불교, 괜찮은가' 주제**
**수행 · 포교 · 실천 분야 점검**

종교 · 인문공동체인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한국종교 전반에 대한 성찰을 모색하는 '종교포럼'을 개최한다.

'종교를 걱정하는 불교도와 그리스도인의 대화 : 경계너머, 지금여기'를 주제로 열리는 종교포럼은 2월 28일 조성택 교수의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 발제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9회 진행된다.

**화쟁문화아카데미**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현실**
**비교 · 진단하는 포럼 개최**
**2월~11월까지 9회 진행**

이어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이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타자의 악마화'(3월 28일)를,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이 '가톨릭의 권위주의(4월 25일)'를 발표한다. 이후에도 매월 조성택, 김진호, 김근수가 돌아가며 각각의 종교 현실과 이 때문에 빚어지는 시민사회 내 부작용을 발제하고 관련 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쟁문화아카데미를 이끄는 조성택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평화와 힐링을 마케팅 상품으로 내세우는 한국 주류종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종교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사간동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리는 포럼은 2월에는 오후 1~5시에 열리며 3월부터는 오전 10시 시작해 3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방청객에게도 토론 참여 기회를 주며 전체 포럼 내용은 책과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된다. **신성민 기자**

# "무엇을 바꿀까"… '알맹이' 빠진 끝장토론

## 영담 · 도법 스님 나선 대중공사
## 구체적 의제 없어 '중구난방'
## 토론 보다 攻守 일관 청문회



대한불교청년회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과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끝장토론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불교청년회 주최 대중공사가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영담 스님과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도법 스님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각각 한팀을 이뤄 현재 불교계 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대중공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논의되기보다 공격과 수비형태로 진행돼 토론보다는 청문회에 가까웠다.

김영국 소장은 종단 화쟁위원회,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성과의 공과부터 도법 스님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일부 사찰에서 지원하는 문제, 친환경공양미 사업까지 질의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도법 스님과 정웅기 위원장은 이를 일일이 반박하고 해명하는 데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자로 나선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참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며 서로 간의 언성이 높여지는 모습도 왕왕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청중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가한 백령도 몽은사 주지 부명 스님은 "주제가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안 바뀔 것 같다"면서 "영화를 봐도 짧은 시간 내에 유쾌, 슬픔 등을 모두 담아낸다. 기대를 했는데 주최 측이 대중을 기만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내용부터 준비가 안됐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합의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대중공사인데 사회자가 주제를 만들려고 하니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종단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명 스님은 "종단 대부분의 스님들이 종단과 국가, 대중에 관심없이 쓸쓸히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서 "종단 문제에 대해서는 선배 스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그나마 토론 가운데 영담 스님과 도법 스님, 재가 패널들은 종단 내부 문제가 지중하다는 것은 공감했다. 대안으로는 각기 다른 원론적 방안을 내놨다. 영담 스님은 출가 정신 회복을 주장했으며, 도법 스님은 대중공의의 장(場)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삭도를 내보이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종단은 바로 갈 수 없다. 내부가 제대로 해결 안됐는데 외부로 가서는 아무 소용없다.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라면서 '초발심 회복 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조계종이 변화하려면 부처님만 놔두고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개개인이 각자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종단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마음을 모아낼 대중공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변화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지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 종단 미등록사설사암 '대한불교조계종' 불허

## 창원지법, 명칭 사용금지 판결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은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과 삼보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2월 11일 조계종이 지난해 경남 사천 소재 B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종단에서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등을 간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말 것과 기 사용 건에 대한 폐기할 것"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조계종은 미등록사설사암을 약 40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호법부 관계자는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 등록 유도가 최우선"이라면서 "미등록 사설사암이 종단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종법상 징계는 물론 사회법을 통한 대응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이정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표권 등록 이후 종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사설사암의 종단등록을 유도하고 종단 명칭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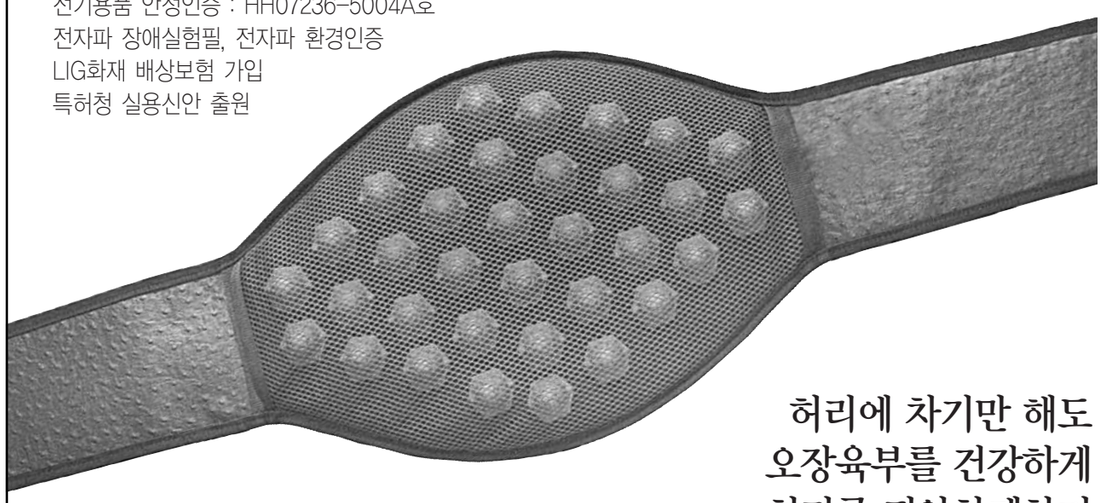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젊은 불자를 만들자”… 한국불교 최대 과제

## 한국갤럽 종교 지형 조사서에 나타난 불교 현안

‘불교인 감소, 개신교 · 가톨릭인 정체 그리고 전체적 종교 인구 감소.’ 이것이 현재 한국 종교의 지형도다.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월 12일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사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는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침체 일로에 있다. 전체 종교 인구는 10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고, 2030세대의 종교 이탈이 두드러진다. 젊을수록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그러다보니 2014년 조사에서는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2~3년 간 불교를 중심으로 한 힐링 문화, 템플스테이 등이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것이 젊은층, 고학력자 포교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리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저하로 인한 폐해가 현재의 불교인 연령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불자들의 신앙 만족도 역시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 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기도 · 경전 읽기 빈도, 생활 속 종교 중요도에서도 불교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조계종 종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지난해 발간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신앙생활에 만족한다’ 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지계와 경전 읽기 빈도에서도 불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승용 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인구의 감소는 불교가 내부단속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 종교계는 주변성원들은 탈락하고 핵심성원이 결속하는 구성원 양극화가 심하다. 불교에서 고학력자와 젊은층 이탈은 주변성원이 탈락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젊은 불자가 줄고 고령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세대간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뒤처지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개종 경험률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종교별 신앙심의 자기 평가 : 신앙심이 ‘매우 깊다+깊은 편’ (%)

| | 1984년 | 1989년 | 1997년 | 2004년 | 2014년 |
|---|---|---|---|---|---|
| 불교인 | 35 | 31 | 28 | 20 | 21 |
| 개신교인 | 46 | 48 | 53 | 51 | 52 |
| 천주교인 | 49 | 39 | 38 | 29 | 35 |

**10~30대 위한 포교 미흡하니**
**젊은 불교인 감소… 대책 시급**
**‘종교 세대 전승’ 비율 높아져**
**가족 간 포교 방안 마련 필요**

**스님 자질 향상 응답도 많아**
**‘교단 신뢰 높이기’에 총력해야**

1989년 20%로 정점으로 올랐던 개종 경험은 2014년 10%로 절반으로 줄었다. 부모-자식간 종교 일치율은 높아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종교 일치율은 불교가 부친 일치 67%, 모친 일치 82%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와 천주교도 종교 일치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 일치율은 부모의 영향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종교의 세대 전승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4년 현재 한국 종교는 가족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불교인의 가족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불교인 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세대 간 전승을 통한 인구 확장성은 전 연령이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쪽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가족의 종교로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족신행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젊은 불자의 이탈을 막는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호 한양대 강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고산문화재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2030년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 제하의 논문에서 “총 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규모의 종교인구가 줄어 미래의 포교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가족 내 세대 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내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시급하다. 한국인의 68%는 현재 종교가 진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고, 63%는 종교가 본래의 뜻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수행자 · 성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1984년 65%에서 2000년 이후 90% 이상을 상회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조사에 임한 불자들 중 불교에 기대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스님의 자질 향상’이었다.

윤승용 이사는 “한국의 종교가 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종교가 사적인 자기 신앙만을 고집한다면 시민의 삶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기부릴레이 등 모금 진력
## 재단 활동 외연 넓힌다

### 동행, 11일 신규 사업 발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올해도 기부릴레이 · 봉축나눔 캠페인 등을 선보이며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재단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월 1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어두운 자리에 있는 힘든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재단은 4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전력질주할 예정이다. 현재 건립에는 24억원이 모금된 상태. 아름다운동행은 이사장 자승 스님이 소유한 선서화 2백여점을 비롯해 총 3백여점의 4월 선서화 전시회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을 생각이다.

6천명에 불과한 후원자 규모도 계속해서 늘려간다. 기존 후원자에게 지인을 추천받는 기부릴레이 캠페인 ‘인연’을 실시, 정기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서포터즈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위시박스’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사업. 얼마 전 재단측에 3천만원을 기부한 독지가의 뜻을 살려 마련됐다. 매월 두 명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배현진 기자

# 불교명상지도자협회 본격 활동 시작

### 2월 6일 발족식 열고
### 회장 용타 스님 선출
### 자격증 발급 등 논의



지난해 11월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명상지도자협회가 2월 6일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명상지도자협회(회장 용타, 이하 협회)가 2월 6일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등 10여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불교명상지도자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용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명상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 어떤 뜻을 일구어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라며 열심히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대회장은 행복마을 대표이사 용타 스님이 맡으며 부회장에 인경 스님, 자문위원에 혜거 스님이 맡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향후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배출과 불교명상 대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뤄졌다. 또한 국가공인의 명상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협회는 추후 열리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추후 열리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정관 개정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 창립 총회를 연다. 협회는 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2015년 주요사업계획 및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 불교통일론의 핵심은 ‘사람’

### 민추본, 2월 9일 불교통일담론 강좌 열어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불교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얼어붙은 남북 상황에도 불교도들은 서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해왔다. 대북 교류에 있어 한국 불교 역할은 막중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사진〉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2월 10일 개최한 월례강좌 ‘불교통일담론의 모색과 실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 · 실천적 지침이 될 불교통일선언을 준비중인 민추본은 관련 연구작업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담론개발에 참여하는 이 교수를 초청,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불교도가 봉축 공동발원문을 채택한 것이나 이후 신계사 · 영통사 복원, 문화재 보존사업을 실시한 것은 대북 교류에 있어 불교 역할이 톡톡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평했다. 또 조계종단에서 공식 통일기구로 민추본을 설립, 조불련과 정기 소통을 하고 남북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덕분에 금강산 관광 실시분위기 역시 마련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불교가 평화적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불교통일운동의 장점은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한 합심의 통일에 있다”며 "현재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마음의 일치를 이뤄낼 수 있는 불교통일론 구축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통일론은 사람의 통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되고 있다. 제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민족통일이다”며 “통일 이후에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미래비전을 담는 통일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 한반도불교기획단
## 새 수장에 법응 스님

### 2월 9일 총회서 선출



지난해 창립된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상임단장 법응 · 사진)이 상임단장을 기존 진관 스님에서 법응 스님으로 추대하고, 불교계 통일역량 증대를 위한 토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상반기 사업계획을 밝혔다.

공동단장이었던 법응 스님이 상임단장이 되면서 세 명이었던 공동단장 한석은 공석으로 남게됐다. 또 기존 조영건 교수 역시 공동단장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행 민족통일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새로 공동단장에 선임됐다.

배현진 기자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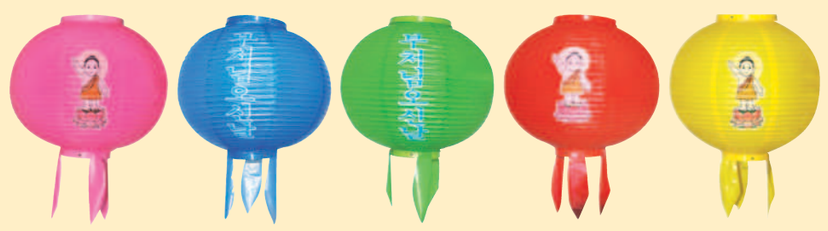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 일 주 문



**조계사 스리랑카 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23~30일 스리랑카 콜롬보, 폴로나루아, 마힌탈레, 아누라다프라 등지로 불자들과 성지순례를 떠난다. (02)768-8570



**송광사 템플스테이 개최**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고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템플스테이' 를 개최한다. (061)755-0107



**선재무료진료소 개소**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2월 15일 향적원 지하1층에서 선재무료진료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실크로드 불교미술 문화 강좌**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실크로드, 빛나는 불교미술' 을 주제로 7기 불교문화강좌를 개강한다.



**수덕사 정초신중기도 입재**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2월 21일 정초신중기도에 입재한다. 회향은 2월 23일이다. (041)330-7700



**2015봄아카데미 개강**

서울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3월 4일부터 불광사 교육원에서 2015년 봄아카데미를 개강한다.



**한솔복지관,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가섭 스님은 2월 16일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복지관에서 열었다.



**정각원 행복론 토요법회**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 스님은 2월 28일 정각원에서 행복론을 주제로 특별 토요법회를 개최한다.



**한국동양예술학회 회장 선출**

박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국음악과 교수는 2월 11일 한국동양예술학회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동양예술학회는 1999년에 창립한 예술학술단체다.

###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사

〈보직〉 금장생활관장 이진형 〈승진〉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장 배병국,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장 박득현 〈전보〉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장 최수호, 의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종규

# "바른불교 추구, 신행 결사체가 될 것"

### 우희종 바른불교 재가모임 상임대표



**2월 10일 창립 발기인대회서**
**대표 선출… "新 불교운동 추진"**
**오는 3월 공식 창립법회 개최**
**"'붓다로 살자' 관념적" 비판도**

지난해 송담 스님의 조계종 탈종 이후 활동을 시작했던 바른불교 재가모임이 2월 10일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 참가자들은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제시하겠다는 비젼을 내놨다.

이날 바른불교 재가모임은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공동대표단을 추인하고 오는 3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상임대표에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공동대표에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조윤예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선임됐다.

상임대표에 선임된 우희종 대표는 단순히 종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한국불교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재가불자 결사체로 거듭날 것을 포부로 밝혔다.

"바른불교 재가모임은 단순히 종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바른 수행과 신행생활을 이끄는 결사체를 지향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는 깨달음을 관념적으로 제시할 뿐 현실적 대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모든 문제도 바른 불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과 불교를 위해 대승적 불교활동, 새로운 불교운동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우 대표의 지향점은 모임의 행동강령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 재가모임은 행동강령으로 △자성삼보(自性三寶)에 귀의하며 각 개인의 다양한 수행과 신행 형태를 존중할 것 △최소 매달 한번의 수행이나 공부모임, 실천 현장에 동참해 도반과의 연대、소통 위해 노력할 것 △동사섭의 실천을 통해 종단과 사회 변화에 노력할 것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시를 적극적으로 행할 것 등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우 대표는 종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붓다로 살자' 는 관념적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승이 독식하는 한국불교의 현 체재 공고히 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붓다로 살자' 는 자성의 주체인 권승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념적 운동이고 바른 불교로 한국불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권승들이 가지는 체제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붓다는 흉내내는 삶입니다."

향후 우 대표는 한달에 한번 재가자들이 서로의 수행을 점검하는 월례 모임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월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SNS를 활용한 홍보와 재가들의 공의를 모으는 일에도 나선다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 재가자들의 힘과 원력을 모아 단체를 운영하고 특정 계파와 스님들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특정 계파와 스님들에 좌우되지 않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내놀 것입니다. 수행점검과 월례 세미나 등을 통해 새로운 불교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 금강대, 글로벌 도약 위해 새 전기

### 제5대 한광수 총장 취임…특성화 방안 밝혀




한광수 금강대 신임총장(사진 오른쪽)이 금강대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금강대는 신임총장 취임을 계기로 글로벌 대학 도약에 나선다.

금강대가 신임총장 취임을 계기로 글로벌 대학 도약에 나선다.

금강대는 2월 9일 논산 금강대 원각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대 한광수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김도언 학교법인 사무처장, 임종진 논산시의회의장, 강경원 논산부시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교수 및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광수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둘러싸고 대학의 경쟁력과 정체성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서 새로운 금강대의 도약을 위해 "대학의 기본 사명인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금강대학의 위상을 글로벌 기반 위에 교육 명문으로 다지는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총장은 취임식을 맞아 금강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노덕현 기자

## "템플스테이 전문가 역량 배양"

### 전국비구니회,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 과정'



전국비구니회는 2월 6~8일 서울 일원동 법룡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 초급과정' 을 개최했다.

템플스테이 전통성과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전문가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가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일원동 법룡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 초급과정' 을 개최했다.

이날 연수 교육에는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고 법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비구니 스님 50명이 참석해 교육을 들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백거 스님이 '템플스테이 미래 동향 연구' 를, 명법 스님이 '템플스테이 국제화에 대한 방안' 을, 자현 스님이 '사찰 문화재 이해' 를, 김상태 박사가 '관광자원으로서의 템플스테이 운영과제' 등을 강의했다. 또한 정진숙 목원대 겸임교수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쳤으며, 지장 스님은 정서 안정을 위한 초의 차명상법을 지도했다.

신성민 기자

## 관음종, 법화의식교육 특별과정



대한불교관음종은 지난해 2월 법화의식교육 특별과정을 신설해 1년간 법화 의식교육을 시행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1박2일 동안에는 1년간 익힌 법화의식에 대한 평가와 심사도 실시했다. 이번에 법화의식교육 심사과정을 통과한 17명 스님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이제 법화 행자로서 종단의 법화의식을 여법히 집전하며 종단의 위상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 위덕대, 우수급식시설 현판 전달식




위덕대서 위탁 운영하는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숙교수)는 2월 12일 14시 센터 교육장서 우수급식시설 현판식 전달과 함께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우수시설에는 97개 등록시설 중 어일, 안강, 하나, 명성, 사랑나무 어린이집 5개 시설이 선정되었다. 우수시설에 현판을 전달한 위덕대 홍욱헌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경주시센터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의 행복을 위해 안심급식 실천의 중심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 한국불교법사대 법사품수법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8일 동국대에서 제23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서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수료생 100여명 등 사부대중 25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천도재. 49재 의식 등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 국 불 교 태 고 종 대 구 경 북 교 구 종 무 원



동산불교대학이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견지동 동산법당에서 '제1회 동산 염불스테이'를 개최했다. 염불생활화를 목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 염불수행에 집중한다.



참가자들은 아미타48대원, 사성례, 천수경, 장엄영불 등을 읊었다.



염불스테이 내내 절을 하며 나를 비우는 참가자.



관상염불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

# 간절한 염불행자 목소리 부처님께 닿을까

## 동산불교대 제1회 염불스테이 현장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

5시간동안 나무아미타불을 2만번이나 암송했다. 소리는 빈틈없이 20평 남짓한 공간을 잘게 채웠다.

중생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닿았을까. 도금된 채 꼼짝 않고 앉아계신 부처님은 이 소리를 듣기는 한 것일까. 목이 쉬어져라 아미타불을 외면 부처님 조각상의 귀도 뚫릴 수 있을까.

2월 둘째 주, 서울 견지동 동산법당에서는 '나무아미타불' 염송 소리가 오후 내내 끊이지 않고 울렸다. 재가자들의 염불수행을 이끌어 오고 있는 동산불교대학(이사장 이종현)이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동산 염불스테이'를 개최한 것이다.

하루에 5시간씩 염불수행에 집중함으로써 염불을 생활화하자는 모토로 마련됐다. 염불의 대중적 보급에 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일일 템플스테이' 형식을 빌려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템플스테이와의 차이점이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템플스테이라면 염불스테이는 언제 어디서고 염불을 통해 극락정토를 이룰 수 있다.

염불스테이는 동산불교대학이 진행해오고 있는 만일염불결사 일환이기도하다. 만일염불결사는 통일신라시대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758년 발징 화상이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시작됐다. 이후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사회 변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며 신앙의 구심점을 형성, 불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산불교대에서는 1998년 하루 1000번 염불을 발원하며 시작됐다.

이미 17년차에 접어든 결사. 염불스테이는 만일염불결사의 새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지난달, 6천일 회향을 하고 아직 회향까지 10년이 남았다. 때문에 이번 염불스테이는 이제까지 결사에서 해오던 칭명염불 대신 관상(觀象)염불법을 택했다. 관상염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염불한다.

**1998년 시작된 동산 만일염불결사**
**염불생활화 위해 '스테이' 형식 빌려**
**2월 9~14일까지 하루 5시간 정진**

이종현 이사장은 입재식에서 "아미타불의 48대원 중에는 중생이 자신의 명호를 불러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다면 자신 역시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이 있다"며 "아미타불의 공덕을 믿고 일심으로 염불하면 삼매를 얻고 정토를 체험할 수 있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에 집중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부처님 염하며 즉심즉불(卽心卽佛)**

염불행자 20여명은 매일 오후 3시부터 입재에 들어가 70분씩 하루 세 차례 염불을 외웠다. 아미타 48대원 염송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성례, 천수경, 장엄염불 등을 읊으며 수행에 나선 것이다.



참가자들은 염주알을 돌리며 정근하기도 했다.

염불에는 중생이 삼계의 우물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두레박 같다는 통찰, 간절히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찰나에 무량공덕을 이루겠다는 다짐, 모두 함께 성불하자는 발원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었다.

아미타불을 찾는 것은 불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일 터. 질병 · 미움 · 싸움 · 배고픔 · 더러움이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20여명의 불제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부처님처럼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었다.

그들은 절을 하거나 염주를 돌리면서 아미타불을 떠올렸다. 부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 눈, 귀, 코, 입, 목 등을 거쳐 발가락까지 아미타불의 상호를 한번 염불할 때마다 관했다.

오로지 들리는 소리라고는 목탁과 염송, 깨알같이 염주알 굴러가는 소리뿐. 청아한 목탁소리에 의지해 울리는 '나무아미타불' 이 사방을 결계쳤고 염불은 1초의 머뭇거림, 주저함 없이 계속됐다. 70분 내내 이어지는 염불에 잠시 정신이 흐트러져도 여럿이 함께 내는 견고한 소리에 이내 망상이 수습된다. 혼자서 수행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로 염불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 떠올리며 관상(觀象)염불**
**부처님과 포개지며 '나=부처' 깨달아**
**서로 염불보살 돼 보리심 일으켜**

아침마다 개인적으로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는 임형준(52)씨는 혼자서 하다보니 수행이 느슨해지고 자주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어 염불스테이에 참가하게 됐다. 여럿이 함께 염불을 외는 경험은 처음이다. 그는 "서로를 고양시키며 염불하니 마음속 세간을 정리하기가 훨씬 쉽다. 집중시간도 늘었고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가자들에게 염불수행을 권하는 까닭은 쉽다는 데 있다. 이영화(59)씨도 염불 수행의 장점으로 '마음의 안정' 을 꼽았다. 염불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가벼운 우울 증세도 떨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산불교대학생 보설(55) 거사도 "관상염불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미타부처님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평소에도 부처님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며 살고 싶다"고 소감을 표했다.

관상염불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미타불을 세밀하게 떠올림으로써 부처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 그와 하나로 포개지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의 목적이다. 어쩌면 나와 10억 광년쯤 떨어져있을지도 몰랐을 부처님을 소환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작업일 것이다.

아미타불이 계시다는 극락세계에 있는 이들은 온전히 어린 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한다. 부처님을 한없이 부르며 그를 닮고자 하는 동산법당의 염불행자들은 순수한 동자승의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다.

다음 염불스테이는 8월로 예정돼 있으며 차츰 매월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불교여성의 역사 쫓아가는 답사여행

## 종교와 젠더연구소, 3~8월 '불교여성문화 답사' 진행

잊혀진 불교여성들의 삶을 추적하는 답사 여행이 마련됐다.

종교와 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은 역사 속에 묻혀있는 불교여성관련 유적지를 찾아가는 '앎과 쉼이 함께하는 불교여성문화 답사' 를 진행한다.

이번 답사는 3월부터 8월 까지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3월 15일 오래된 신앙, 산과 여신, 그리고 불교(평창동 보현산신각 및 서울 삼각산 왕녕사) △4월 19일 불교, 민간신앙을 품어 안다(삼막사와 계곡일주) △5월 17일 조선불교를 이어온 비구니의 역사, 그 유적지를 찾아서(서울 시내 비구니 사찰, 서울 둘레길) △6월 21일 다양한 불교 국사당과 함께만나다(인왕사, 인왕산) △7월 19일 근현대 한국 선불교와 여성(회암사, 회암사지 박물관) △8월 16일 불교, 궁궐 여성들의 한을 위로하다(정업원-낙산-혜화문-성곽길) 등으로 열린다. 조승미 강사(서울불교대학원대학), 김소원 여성문화유산답사회장,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이 해설을 맡는다.

옥복연 소장은 "이번 행사는 잊혀진 불교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알아가고,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재미있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행사를 통해 여성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070)4193-9933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문화답사 일정

| 회차 | 일자 | 주 제 | 내 용 | 코 스 |
|---|---|---|---|---|
| 1 | 3. 15 | 오래된 신앙, 산과 여신, 그리고 불교 | 산신 마을 신앙지 | 평창동 보현산신각, 서울 삼각산 왕녕사 |
| 2 | 4. 19 | 불교, 민간신앙을 품어 안다 | 안양 삼막사 | 삼막사와 계곡 일주 |
| 3 | 5. 17 | 조선불교를 이어온 비구니의 역사, 그 유적지를 찾아서 | 서울 시내 비구니 사찰 | 사찰, 서울 둘레길 |
| 4 | 6. 21 | 다양한 불교, 국사당과 함께 만나다 | 인왕사, 굿당, 인왕산 둘레길 걷기 | 인왕사, 인왕산 |
| 5 | 7. 19 | 근현대 한국 선불교와 여성 | 경기도 양주 회암사 | 회암사지 박물관 |
| 6 | 8. 16 | 불교, 궁궐 여성들의 한을 위로하다 | 국모의 자존감을 지켰던 단종비 정순왕후 등 | 정업원-낙산-혜화문-성곽길 |

# "고국의 어머니 생각에 절로 눈물"

## 국제선센터, 2월 10일 다문화가족 초청 설맞이 행사

"우리 팀 윷 나와라 윷!"

한 여성이 큰 윷을 내던지려는 순간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려온다. 던진 윷이 '도' 가 나오자, 팀원들이 아쉬운 탄성을 자아낸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2월 10일 서울 양천구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다문화가정 설맞이 행사' 를 진행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포교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지 탄웅 스님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신 분들 환영한다"며 "국제선센터에 자주 찾아와서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4층 극락전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각국의 설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국제선센터는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명절인 설의 의미와 세시풍속에 대해 소개했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2월 10일 서울 양천구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다문화가정 설맞이 행사' 를 진행했다. 이주여성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일본·베트남 등 이주여성 60명**
**각 나라 설문화 소개 등 다채**
**"3월 이주여성 주부교실 열 것"**

으며, 참가자들도 각국의 설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선센터 차장 천조 스님은 "이전까지 이주민 여성들에게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식의 프로그램이 많았다"며 "올해는 각 국의 명절 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더욱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갖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양실에서 한국의 대표 간식인 인절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어린이와 이주여성들은 쌀 3말로 직접 떡을 반죽하고 콩고물을 묻혀 총 3말의 인절미를 만들었다.

베트남에서 온 12년차 주부 이경미(32)씨는 "인절미를 만들며 어릴 적 고국에서 어머니가 떡을 손수 만들어주시던 생각이 났다"며 "내가 만든 인절미를 내 아이에게도 먹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만든 인절미는 양천장애인복지관과 신정 6동 경로당에 전달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편지를 쓰며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 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윷놀이 행사도 열렸다. 국제선센터 차장 천조 스님이 윷놀이의 규칙을 설명 한 뒤 참가자들은 신나게 윷을 던지며 팀워크를 발휘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결혼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다키유카리씨는 "한국 문화를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설 · 추석과 같은 민족 명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오는 3월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주부교실(가칭)' 을 열고,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부부 · 고부간갈등 및 자녀교육 등의 고민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천조 스님은 "앞으로도 국제선센터는 불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108인 여성 선정 및 〈우바이예찬〉 발간

## 여성개발원 2월 5일 이사회… 올해 사업계획 의결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은 2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지혜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박순)은 2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지혜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임원 선출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정관 변경을 의결했다.

회원들은 이사회에서 '실천 · 수행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회원 결속력 강화와 여성불자 교단적, 사회적 회향 확대를 목표로 세웠다.

2015년 주요사업으로는 회원 결속력 강화를 위해 회원 만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단 내 협력 증진을 위해 신도등록사업 홍보 및 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불자의 사회적 회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제7차 여성불자108인 선정 및 우바이예찬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201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안건으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 청량사, 안동·영주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 자모회, 주지 스님 원력에 동참…바자회 수익금으로



경북 봉화 청량사는 안동과 영주에 있는 초 · 중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안동과 영주에 있는 초 · 중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량사 신행활동모임인 '자모회' 는 2월 10일 안동 · 영주 초 · 중등학교 졸업생 26명에게 각2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량사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70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이 매주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어린이 풍물, 합창단, 밴드 등을 운영해 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움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지 스님의 어린이 포교활동에 감동을 받은 어머니 신행단체 '자모회' 는 지현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고자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바자회를 열고 있다.

자모회는 "평소 다도수업, 둥근소리 밴드 및 합창단, 교리공부 등으로 친목을 다져온 자모회는 주지 스님의 원력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연말연초를 비롯 부처님오신날에 바자회를 열고 자판기를 운영해 수익금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 실상사 대안학교, 2월 8일 졸업식

## 중·고생 20명 졸업…3월 1일 입학식




불교계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2월 8일 졸업식을 열었다.

불교계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가 2월 8일 졸업식을 열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졸업식은 실상사 스님들과 지리산 산내마을 주민들, 선생님과 학생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은 중 ·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시간들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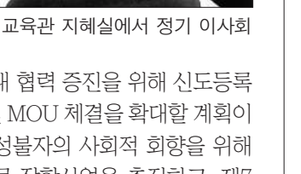
고등학교 1년차 과정에 있는 '언니네' 학생들은 해외공동체탐방 발표를 했으며, 2년차 학생들은 자서전을 쓰고 발표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졸업식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부모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학부모들은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 를 개사해 노래를 부르면서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일 중학교 15번째, 언니네 6번째 입학식이 열린다. (063) 636-3369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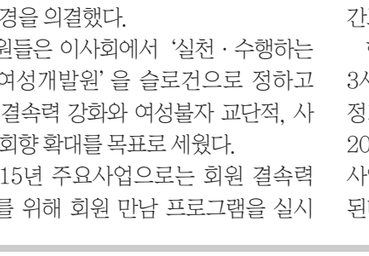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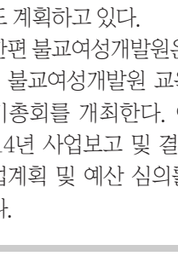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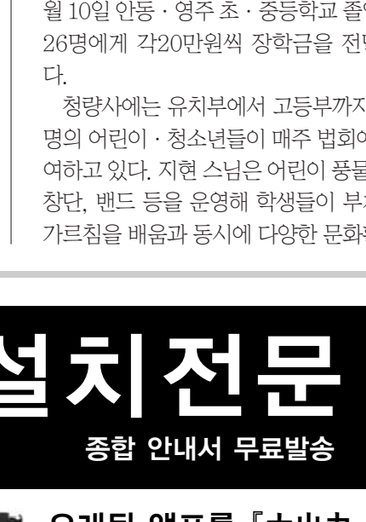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생명사랑 파수꾼 역할 톡톡히 할 것"

## 생명나눔실천본부·종로노인복지관 신년 계획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올해 생명나눔문화 확산 노력에 경주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6천명까지 확대모집하고 사찰, 가족 단위를 파고들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본부가 182회에 걸친 전국 캠페인으로 모집한 장기기증희망등록 인원은 총 6,420명. 당초 목표인원 5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다만 불교계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했던 '스님 1천분 모시기 운동'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421명의 스님을 모집한 데 그쳤다.

때문에 올해 본부는 스님 1천분 모시기 운동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 목표인원도 지난해 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설정했다. 캠페인 역시 250회로 확대하며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홍보 방법도 다양화한다. 사찰 법회를 활용, 한 사찰당 108명씩 장기기증 희망등록인원을 모집하는 '사찰별 108희망등록 동참하기 운동'을 벌이며 가족단위로 장기기증 바로알리기 운동을 독려하는 '1080 생명나눔 명가(名家)' 만들기 운동도 추진한다.

제1회 생명나눔 상 역시 공식 제정돼 생명나눔 홍보에 기여해온 이들을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개인은 물론 사찰, 신도회, 불교대학 등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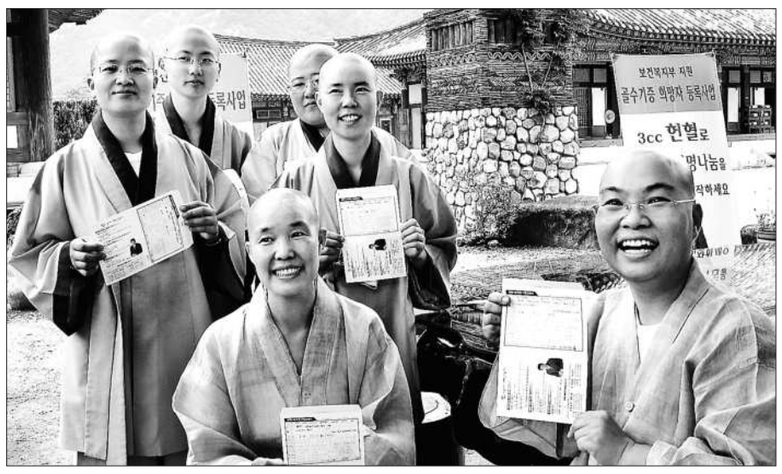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함께 자살예방 목적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운동에도 나선다. 현재 동국대 참사람봉사단과 협약이 맺어진 만큼 차츰 동참 대학 범위를 늘려갈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환자치료비지원사업 역시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58명에게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던 환자치료비지원사업은 올해 해외까지 대상을 확장할 예정이다.

일면 스님은 얼마 전 미얀마에 다녀간 경험을 언급하며 "가져간 약품, 시계, 단주 등이 동날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았다. 불교계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지인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출범 21년째에 접어든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현재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원은 4만5천여명이다. 그 중 스님은 3,359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자살 예방과 우울증 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죽음준비 교육을 실시, 노후 정서안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을 6천명까지 확대모집해 누적인원 5만명을 넘길 계획이다. 사진은 운문사 스님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6천명 모집 목표**

**사찰·가족·대학 파고들며 차별전략**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자살예방·임종준비 대상별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안전망 구축**

2월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질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복지 1번지를 구축해내겠다"며 "지역사회 노인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사회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자살예방·임종준비관련 프로그램 5개를 대상별로 나눠 1년내내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우울·자살 고위험군 어르신 45명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봄봄봄' 프로그램을 실시, 매월 문화, 여행, 친모도모, 축제를 테마로 집단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관계망이 단절된 홀몸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회참여향상 프로그램 '다함께 찬찬찬'을 준비중이다. 어르신 17명과 생활관리사가 1대1로 매칭돼 복지관 내 건강,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 매일 안전확인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을 돕기 위해 또래 어르신 4백여명을 자살예방지킴이로 양성,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여성 홀몸 어르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고립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홀몸 남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찐한인생사'는 인문학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성찰을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자신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각각 소설, 영화, 문학을 통해 회고하고 삶을 돌아다보는 인문학 기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종준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비(나로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운 준비)'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죽음의 의미와 삶의 가치, 인생 회고, 유산상속 및 유언작성, 애도상담 등의 내용으로 꾸려지게 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자비 학용품·연탄 나눔 줄줄이

##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아이연탄맨 행사 결실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정은아 어린이, 8세)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앞섰는데, 불교계에서 선물을 주시는 등 관심을 보여주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가오티리에우 씨, 30세)

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는 입학을 앞둔 다문화·저소득계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나눔행사가 마련됐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선재의 선물 책가방 보내기' 전달식. 6회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을 비롯해 임승진 KB국민카드 부사장과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선물을 포장해 전달했다.

자공 스님은 "아이들이 불자들이 선물한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설렌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에 옛 추억이 떠오른다"며 "지난해 500개, 올해 1600개에 이어 내년에는 접수자 모두가 학용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내가 노력하고 기부한 것이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이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알게돼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포장된 선재의선물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체 및 복지시설로부터 접수받은 한부모가정 628가구, 다문화가정 580가구, 조손가정 40가구, 기타 저소득 가정 371가구 등 총 1619가구에 전달된다. 전달 규모는 예년의 3배 규모로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가 1억 원을, 경화상사(대표 임행준)가 1800만원을 후원해 신청자 1800명 중 90% 가까이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에서 실시한 연탄나눔 릴레이 '아이연탄맨' 캠페인 역시 결실을 맺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보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아이연탄맨 캠페인에는 797명이 참가, 총 1천만원(연탄 1만6천7백장 상당)이 모금됐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를 방문,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연탄배달 봉사를 진행하는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통해 정릉3동에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83세대에 각 200장씩 배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선재의 선물 전달식에서 한 아이에게 책가방을 메주고 있다.

# 몸도 마음도 따뜻… 훈훈한 겨울

## 여주장애인복지관, 목욕봉사·떡만두국 보시


여주장애인복지관 봉사자들이 떡만두국 보시를 위해 직접 만두를 빚고 있다.

겨울의 막바지, 추위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풀리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주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은희)에서는 집에서 목욕을 하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월 9일 목욕서비스를 실시했다.

목욕서비스는 신륵노인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목욕탕에서 진행됐다.

재가장애인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물에 굳은 몸을 녹였다며 덕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2월 3일에는 여주우먼라이온스클럽이 여주장애인복지관에서 200인분 떡만두국 배식 봉사에 나섰다.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만두를 직접 빚고 음식을 마련한 이들은 배식·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복지관 직원들의 수고를 덜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 벽화 그리며 지역사랑 실천해요

## 금오복지관, 마을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해 밤실벽화그리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에서는 경북 구미시 도량동 밤실마을의 노후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밤실 아름다운 벽화마을만들기' 사업 참가봉사자를 모집한다.

구미는 고려 말 조선 초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길재선생의 충절과 가르침이 서린 고장. 복지관측은 길재선생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벽화로 살릴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다. 지역작가와 자원봉사자로 진행되는 벽화 그리기는 구미시민, 학생 등 벽화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복지관측은 "주민 손길로 새롭게 태어날 밤실벽화마을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구미사업장 후원으로 진행된다. (054)458-0230 **배현진 기자**

# 도서관 사서부터 도시락 배달까지

## 중림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실시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이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2월 10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증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사회활동으로 참여자의 건강도모 및 노후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확충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증명 사진 1장, 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 사본, 보건증(초등 급식 도우미만 해당) 지참 후 복지관을 방문하면 된다.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청소), 복지시설 도우미, '도서관 도우미, 실버엔젤(도시락 배달)로 모집 인원은 총 190명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02-362-3348)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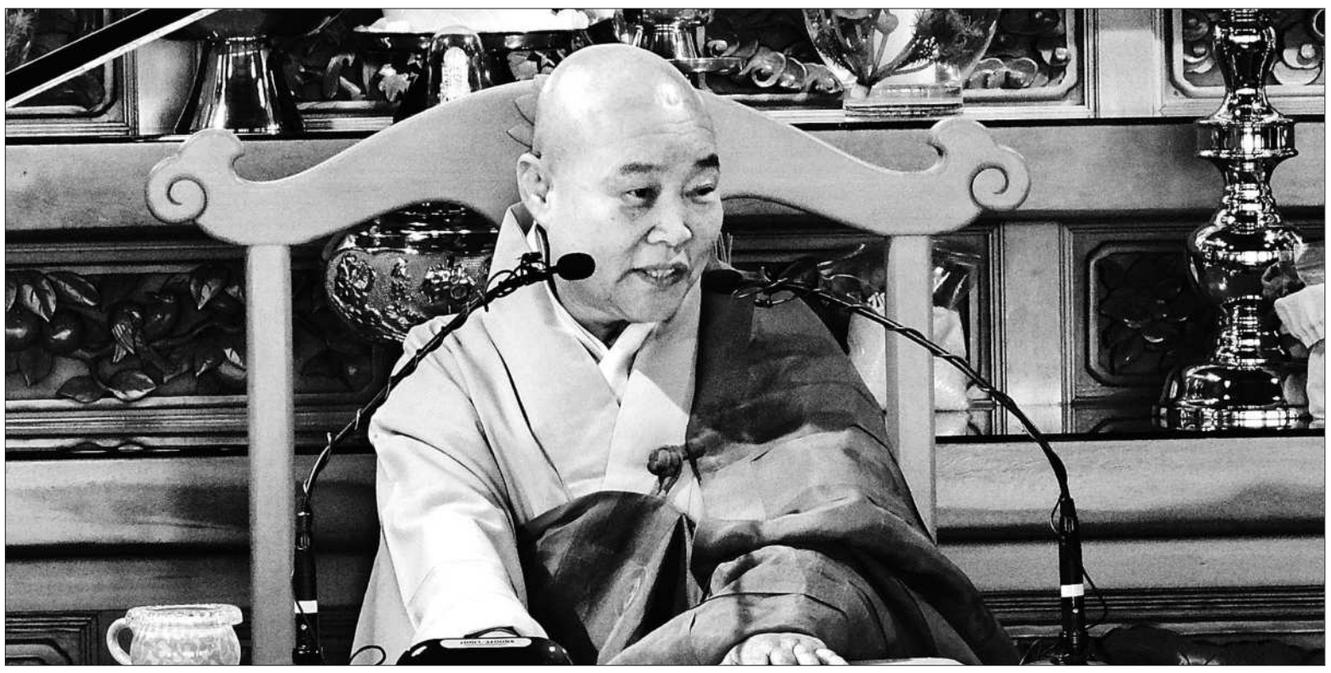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불성이 여래장… 성불에는 남녀 차별 없어

##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 〈승만경〉 강의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지던 부처님 당시, 부처님은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사회 제도의 벽을 허무는 일대 혁명을 이루었다. 〈승만경〉은 재가자 여성의 사자후를 다룬 경전이다. 해주 스님은 승만경을 통해 '비구니 팔경계' 와 '변성성불론' 등을 문헌적으로 해석해 남녀의 성불이 평등함을 밝히고 있다. 동국대 정각원 토요법회 승만경 강의 5강 중 그 첫 번째 강의만 요약한 것으로 승만경의 전반적 배경을 이야기 하는 내용을 실었다. 정리=정혜숙 기자



**해주 스님**은 … 운문사로 출가 동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교학연구회 회장과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수미정사 주지, 학교법인 승가학원 법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승만경〉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소설에서 육조단경 내용을 읽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풍동 번동 심동이라고 아시죠? 혜능 스님이 어느 절을 찾아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두 스님이 법담을 나누고 계셨어요.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했고 다른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 육조혜능 스님께서 "깃발을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바람도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죠.

그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때 책에서 봤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까? 스님들은 특별한 삶을 사실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마음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죠. 스무 살이 되면 로봇 하나 만들어서 우주 탐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저는 두 마음이었어요. 도사 따라 절에 가서 도 닦고 싶고 또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모가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서 실려왔어요. 그걸 보고 과학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판단하고 바로 출가를 했어요.

당시는 스승을 찾아다니던 시절이라 동학사에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출가하고 머리 깎으면 도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원을 5년 다녔는데 마음 쓰는 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혹시 내가 아는 큰 스님은 책에서만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유롭지가 않았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데 책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죠. 화두 드는 것만이 마음공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화두 들러 가야지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화엄반이 됐어요. 〈원각경〉, 〈화엄경〉 등 다양한 경전을 공부했는데 그때 화엄경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말씀과 글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부 마음공부 이야기였는데 딴 데 가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헌으로 글을 더 배우려고 동국대에 왔어요. 제가 전교 수석 졸업한 건 맞아요. 사실, 초중고 대학 전교 수석 안 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마음 잘 쓰는 거 아니잖아요?(웃음) 지식과 인격, 지혜와 인격이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요. 전교 수석을 해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석사를 해도 모르는 게 더 많았고 박사 과정에 도달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마음공부가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화엄경 때문에 학교 왔기 때문에 계속 화엄을 공부하게 됐어요. 화엄을 통해서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화엄 교학의 바탕은 여래장 사상인데요. 그 여래장 사상의 소의경전이 〈승만경〉이에요.

제가 85년도에 박사를 수료하고 86년도에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대학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로도 처음 교수로도 처음 비구니 스님이 강단에 선 거에요. 그때 처음 하게 된 것이 불교여성학이었어요. 당시 선학과 조교를 하면서 학교에서 특별한 과목을 개설하면 좋겠는데 뭐 없냐고 묻길래 '불교여성학' 을 하나 개설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2학년 과정으로 개설이 됐는데 비구 스님은 강의 할 사람이 없고, 비구니 스님도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셨어요. 결국 제가 하게 됐죠.

제가 박사 과정 때 논문을 두 편 썼는데 하나가 '비구니 승단의 성립' 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성성불론' 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것이었어요. '변성성불론' 이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비판론을 논문으로 쓴 거죠.

그 해에 여성학회가 생겼는데 당시 이화여대 총장님이 '종교와 여성 문제' 로 토론을 주최했는데 제가 불교 관련 파트에 참여해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때 발표한 내용이 '비구니 팔경계' 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마지막번에 '비구니는 100세가 됐다 하더라도 처음 출가하신 비구 스님 발 아래에 절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어요. 비구니 스님한테는 엄청나게 차별적인 이야기죠. 80년대 한국 여성학회가 생기면서 신학대학에서 여성신학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될 때였는데 불교 쪽에서는 승가 재가 모두 남녀 차별이 너무 많은 거 같았어요. 〈승만경〉은 재가여성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사자후를 하는 경전이라고 해서 재가불교 특히 여성불교에 으뜸가는 경전으로 일컬어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논문을 쓸 당시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을 때여서 여러 문헌을 뒤져서 비판적으로 그냥 썼어요. 제가 비구니니까요. 그 바람에 징계당할 뻔했어요. 물론 징계를 당한 건 아니에요.

모든 문헌을 통해 재해석 해보니 비구니 '팔경계' 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교단이 약해져서 부처님 열반 500년 후에 나왔어요. 교단 내에서도 대승불교가 일어나니 부파불교가 새 교단의 위협받을 때 교단을 정비하면서 나온 것이 비구니 팔경계 문제였던 거 같아요. 이렇게 문헌을 재해석해서 승만부인 이야기를 하니 당시는 모두가 입을 닫았어요. 지금은 비구니 스님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승만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 승만 부인의 힘이 막 드러나고 있지만 말이죠.

**팔경계는 부처님 사후 500년 정통교단이 위협 받을 때 나온 '설' 승만 부인이 일승의 대방편을 사자후하는 내용 〈승만경〉에 실어 여성의 성불 평등함 보여줘**

〈승만경〉은 대승경이고 일승경이에요. 대승경전 중에서도 그 이름이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 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이에요. 승만 부인이 일승의 대방편을 사자후하는 경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대승 이론이 막 일어날 때 그 이념과 사상과 수행 방편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대승경전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지면 〈승만경〉은 중기 이후에 나온 경전이죠.

대승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정통교단이라고 했던 이십부파 교단이 위협을 받을 때였죠. 바깥으로는 외세침입도 받았겠지만 불교교단 전체로 바라보았을 때는 정통바라문이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인도 전체를 휩쓸고 있는 종교가 재정비 될 때였어요. 이때 여성 출가에 대한 위협이 가해졌죠. 여자는 마구니는 될 수 있어도 마왕도 못되고 전륜성왕도 못된다는 등의 말이 있었죠. 또한 정법이 천년을 갈 건데 500년 밖에 못가는 것은 여자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교단사가 다시 쓰여지고 교단이 재정비 될 때 이런 말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승만경〉은 비구도 아니고 여자가, 부인이 사자후를 하는 내용이에요. 재가여성불자가 법사계에서 사자후 한다는 거죠. 〈승만경〉은 436년에 중국에서 번역이 됐고 576년에 전래됐어요. 인도에서는 적어도 중국보다 100년 전에 편찬되었을 거예요. 일승경전은 대승 중에 대승이에요. 그래서 재가자 출가자 모두 좋아하는 경전이에요.

당시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부처님이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또 만세 천만세가 지나가도 모두가 부처님을 우르러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다고 부처님이 설하셨지 어디 교단 내에서 차별을 했겠는가' 이런 맥락으로 논문을 썼죠. 당시는 이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문제 될 게 없어요. 이렇게 〈승만경〉이 뜨고 있으니 요즘은 괜찮아요.

〈법화경〉에 팔세용녀 성불이야기가 나와요. 용녀가 여덟살 때 성불을 하는데 그때는 잠깐 남자 몸을 바꿨다가 바로 성불하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가 성불할 수 있지 여성은 남자 몸으로 바뀌어야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한 마지막 대승경전이 법화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경전이 나오느냐 하면 '전여신경' 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자의 성불 얘기가 막 나올 때 여성의 몸으로 하면 안 되고 남자의 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는 〈법화경〉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의 〈화엄경〉에는 여성 선지식이 21명이 돼요. 21명 모두 각계각층의 여성들로 선재동자의 선지식으로 나와요.

〈승만경〉도 '공의 도리' 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는 여자라는 고정불변의 상이 없고 남자에게는 남자라는 고정불변의 상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승의 공사상이 반야바라밀의 대표적인 방편으로 보는 대승 경전에서 볼 때, 남녀문제 출재가자 문제 불평등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일승이 뭐냐 하니까 〈승만경〉에서 삼원십대수의 모든 발원이 하나로 모이면 일승이에요. 그 일승은 '모든 중생은 여래장 존재다' 이거에요. '여래장'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래가 부처죠.

여래장은 진여와 생멸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진여는 여래, 생멸은 중생 쪽이죠. 마음을 진망화합심(眞妄和合心)으로 본 게 여래장 사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처럼 된다 이 마음은 진심이겠죠? 참 마음, 청정심이죠. 중생 마음은 번뇌 마음이다 허망한 마음이다 물든 마음이다 하는 것은 '망(妄)' 으로 봐요. '망' 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진망 화합이다, 부처님 입장에서 대승은 성불 발원한 것이니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는 불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불성이 여래장이라는 의미에요.

나에게 본래 부처님 씨앗이 있어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래장 사상이에요. 씨앗이 다 있는데 어떤 건 씨앗으로만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싹이 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승만경〉은 일승의 원을 삼원 십대수, 세 가지 원을 다시 일승의 원, 섭수 정법의 원, 정법 올바른 가르침을 거두어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원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은 해제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학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이건 평등한 거예요. 스님은 스님대로 비구는 비구대로 비구니는 비구니대로 보살님은 보살대로 거사님은 거사대로 특징적인 장점을 가지고 불국토 건설에 재역할을 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수행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를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신라 구법승 성지순례 숙소… 신라원 총 5곳

##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 최근 논문 통해 주장

그동안 학계에 3곳으로 알려져 있던 신라원이 총 5곳이며, 이들이 구법승의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였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변인석 아주대 명예교수〈오른쪽 사진〉는 최근 '신라사연구'에 투고한 〈8~9세기 재당 신라원의 분포와 성격〉 논문에서 "신라원은 당나라 정부가 늘어난 구법승을 관리하기 위한 우호적 배려로 설치한 숙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라원은 적산 법화원, 청주 용흥사, 장산 예천사 등 3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모두 일본 엔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알려진 곳이다.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중국 3개 기행문으로 꼽히는 것으로 엔닌 스님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 구법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변 교수는 순례행기에 나온 3곳 외에 오대산 동남쪽 입구의 청주 관음원과 획녹(지금의 녹천시) 본원사 등 2곳에도 신라원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청주 관음원 내 신라원이 있다는 문헌은 조주록에서 조주선사가 관음원에 머물때 신라스님으로 추정되는 신라원주가 공양을 청하며 신라원의 존재를 밝히는데서 드러난다"며 "조주 선사는 '나와 그대 사이에는 바다가 갈라놓고 있다'며 신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 3곳에 관음원과 본원사 등 2곳 추가
### 관음원, 조주선사 〈조주록〉서 밝혀
### 본원사, 상산의 경당비문서 근거

이어 변 교수는 "획녹 본원사의 신라원은 〈상산정석지〉 권 13에 수록된 상산의 경당 비문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며 "본원사는 당 고찰로 승려의 비행(非行)을 바로잡는 승정이란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엔닌 스님은 법화원과 법화원 내 신라원을 구분해 기술했지만, 후대에 이를 혼용해 사용했다"며 "엔닌 스님의 기록을 보면 신라원의 원주는 보통 본찰의 전좌승이 겸임했으며, 주 소임은 침구와 식사, 주방 등을 점검하는 등 대소사를 챙기는 것으로 신라원은 본찰 승사와 구별되는 객승을 위한 전용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교수는 신라원이 분포한 청주와 장산 지역에는 신라교민들의 집단거류지를 찾을 수 없기에 흔히 알고 있는 신라교민사회의 중심지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밝혔다.

변 교수는 "신라원은 불교명산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선 신라암과 달리 길 위에 세워졌는데 이는 당나라가 30리마다 설치한 보통원과도 관계가 깊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이어 "신라는 당나라에 유학승과 유학생, 조공사를 묶어 지속적으로 파견했으며, 이중 구법승들의 구법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역할도 일정부분 담당해 신라에 우호적인 당나라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으며 특별대우 차원에서 스님들의 전용숙소로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당나라가 신라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불교명산 길목에 설치한 신라원은 신라가 당나라에 문화를 수입하는 종속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뜻한다"며 "이는 당의 역경사업에 신라스님이 참여해 거둔 성과와 같이 불교로 국경을 초월한 융합의 정신이 발현되었다"고 평했다. 끝으로 변 교수는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도 이는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며 "불교적으로도 구법승들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학계에서도 중화주의 사관을 벗어던지고 이에 대한 조명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이탈리아의 고려불화, 한국 땅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14세기 고려불화의 국내 환수가 추진된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은 2월 9일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4세기 전반의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를 구입 혹은 영구대여 형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미타불이 오른손을 내밀어 죽은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아미타내영도는 일본 지온(知恩)원과 젠린(禪林)사, 프랑스 기메 박물관 등 세계에 5점만이 남은 희귀한 성보문화재다.

국내에는 개인 소장본 1점 만이 있다.

2013년 이탈리아에서 확인된 아미타내영도는 최소 보물급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월관음도보다 현재 남아있는 수가 훨씬 적다.

한편, 이탈리아 로마의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은 1957년 개관해 2010년부터 한국실에서 불상과 그림, 도자기 등 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청담 스님, 참선 수행에 정과혜 중시"

### 임병화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서 조명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오른쪽 사진〉은 최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청담 선사의 선사상 연구〉를 통해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었던 청담 스님을 재조명했다.

임 박사는 논문에서 "청담 스님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참선을 비판했다"며 "남악회양이 좌선에만 집착하는 마조를 깨우쳤듯 청담 스님은 참선에 있어 정과혜를 중시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이어 "스님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정혜쌍수를 적극 수용했으며, 이는 철저한 바른 생활을 바탕으로 선정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은 실질적인 선수행에 입각해 보살도의 경지를 구축해 근현대 출재가가 이루어지고, 승려와 신도, 선과 교를 융섭하는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러한 보살도 실천의 밑바탕은 인욕과 참회로 스님은 평생을 이를 통해 정진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계행과 선정, 교학 공부를 모두 중시하는 균형잡인 수행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들며 간화선에서도 선과 교를 아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이어 청담 스님의 마음과 관련된 독자적인 선사상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마음법문의 출가연에 따른 것으로 특히 마음사상 중 무심을 중시여겼음을 강조했다.

임 박사는 "청담 스님은 대중들도 마음공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부처와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으며, 마음자리를 찾는 실질적인 선수행으로 보살도의 경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스님이 이를 통해 이뤄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불교 대중화, 생활화"라며 "당시 어렵게 여겨진 선을 대중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런 연장선에서 대한불교초대발행인 등 사판의 영역까지 활발히 나섰다. 이에 대해 후학들이 청담 스님이 남긴 사상과 족적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사명대사 선종 총섭 임명 교지 첫 공개

### 불교사회연구소, 〈밀양 표충사〉에서 교첩 소개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선종의 총섭에 사명당 유정 스님을 임명한다는 교첩이 최초로 공개됐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최근 호국불교사찰자료집 〈밀양 표충사(表忠寺) 표충사(表忠祠)〉를 펴내고 교첩 자료를 공개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자료집은 표충사의 건립 및 이건(이건논쟁 포함), 중창 사실을 알려주는 23종의 고문서 및 서적, 사명유정스님의 생애와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선조 26년(1593년) 8월 비변사가 왕명하에 발급한 교첩은 승과 합격 후 첫 법계인 대선(大選)인 유정 스님을 경상도 총섭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섭은 승병을 지휘하는 관직을 말한다. 이 문서에는 비변사 관인과 함께 실무를 담당한 제조와 낭청이 직접 서명한 수결이 있어 공식문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표충사〉 내에는 18~19세기 승군대장인 팔도도총섭이 종정으로 인식됨을 엿볼 수 있는 〈종정안록〉도 함께 실렸다. 〈종정안록〉은 표충사가 봄과 가을에 올린 제향의 책임자를 담은 것으로 영조 14년(1738)부터 고종 10년(1873)까지 팔도도총섭을 맡은 136명의 종정 명단이 수록돼



비변사가 발급한 경상도 총섭 임명 교첩

있다.

이와 함께 〈표충사〉에는 표충사(表忠祠)의 창건과 이건, 사명당 유정 스님과 표충사 춘추제향, 표충사의 현재,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한 논문이 수록돼 있다. 표충사 설립 및 제향과 관련해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본관절목〉, 〈감영완문〉, 〈참사록〉 등이 그것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이와 함께 어공지(御供紙) 진상 사찰이었던 옥천사 소장 문서를 발굴 정리한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3(승잡역)〉도 함께 펴냈다. 옥천사는 조선시대 종이를 만드는 부역을 하며 관공서와 주고받은 고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자료집 3집으로 〈갑사 표충원〉 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불성과 열반' 주제 학술세미나

### 한국교수불자聯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개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2월 24일 부산 진여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불성과 열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원효의 〈열반종요〉에 나타난 불성의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김용환 충북대 교수의 〈열반경〉의 열반과 이토 신죠(伊藤眞乘) 불성사상의 상관연동 연구,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의 〈열반경〉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정치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희재 광주대 교수가 한국의 열반종에 관한 연구, △김성규 영남대 교수가 영원에 대한 고찰- '열반경', △윤종각 동아대 교수가 '열반경'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공과 실재,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한국에서 진여원의 사상과 수행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 한국미술사硏, 제45회 미술사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2일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제45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화조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화조화의 세계,△ 고구려 고분벽화의 화조화, △고려불화 속의 화조화, △조선 전반기 불화 속의 화조화, △신사임당 초충도와 그 주변, 조선 전반기의 꽃과 동물그림, △조선 후반기 불화 속의 화조화, △조선 후반기 민화 속의 화조화, △화조화 탐방, △17·18세기 조선 후반기의 화조화, △19세기 조선 후반기의 화조화 등 13개 강연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뭇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천 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재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 개설시기 : 2015년 3월. 둘째 목요일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양택과 음택 중점 강의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 봉 합 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

# 광주불교계 "로고 걸고 전법 나서요"

광주불교연합회
Buddhism Association of Gwangju

빛고을나눔나무

### 광주불교聯 및 산하기관 단체 사용… 부처님과 보리수 상징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가 지역 불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대표로고를 만들어 전법에 나선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1월 1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체문패인 로고를 최종 확정하고, 향후 모든 대외문서에 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광주불교연합회 로고(사진)는 밤색계열의 보리수 잎 안에 부처님이 좌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성수(聖樹)로 이번 로고에는 보리수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는 광배(光背)의 의미를 담았다. 로고는 2개 종류로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설기관인 광주불교공동모금단체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의 로고〈사진〉는 나눔과 나무를 주제로 만들어 졌다. 나무는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기초 생물이면서, 불교적으로는 '귀의한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출가와 재가를 상징하는 두 손으로 나눔나무를 공손이 받드는 모습을 구현해 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나눔활동을 펼칠 것을 서원으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영배 광주불교연합회 홍보팀장은 "불교계 단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통합의 뜻을 지닌 로고를 제작했다. 불

**불교 · 나눔단체 의미 쉽게 전해**
**통합의미로 다양한 행사서 활용**
**홈페이지도 마련해 자원봉사 접수**

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쉽게 불교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중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광주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 2개의 홈페이지가 제작 중이며, 홈페이지에는 광주지역 불교계 소식과 봉축행사 안내 및 참가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운영위원회와 회원 사찰들의 참여공간이 만들어진다.

빛고을나눔나무 홈페이지는 단체와 사업소개, 나눔 참여방법, 후원소식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월 9일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공모사업을 심사를 마치고 전체 2500만원 지원금을 확정했다.

빛고을관등회 공모사업은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봉축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금이다. 불교단체는 별도의 봉축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빛고을나눔나무에서 기업체와 사찰의 후원을 받아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7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 이들 단체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공모사업은 올해 3월부터 봉축기간인 5월까지 각 단체별로 진행되며,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사 후 상이 수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아이들 사회 적응위해 노력할 것"

###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 광주소년원연합회장 취임


지암 스님이 최성학 학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온 여수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광주소년원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고령정보산업학교(舊 광주소년원)는 2월 12일 본관청사에서 광주소년원연합회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을 열었다.

지암 스님은 취임인사말을 통해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듬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호위원들에게도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킬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암 스님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소년원에서 명예부모 결연식과 멘토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소년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매월 음식지원, 봄 · 가을 소풍 나들이 활동을 펼쳐왔다.

지암 스님은 2년 임기 동안 소년원생들의 교육과 심성활동, 멘토링활동, 학교지원, 사회적응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향후 2개월 간 △어머니위원과 함께하는 합동생일잔치 및 다과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을 탐방하는 현장훈련 △효사랑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각국사선양회' 설맞아 지역 불우이웃 도와

### 한부모가정 250세대에 떡국떡 500상자 전달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 (대표 대현)는 2월 5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설 명절에 사용할 떡국 떡 50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 해원정사에서 후원한 떡국떡은 화순에 있는 한부모가정 250세대에 2kg씩 전달된다.

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힘든 명절을 맞이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각국사 선양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마음닦음 강조한 스님 가르침 새길 것"




2월 7일 선운사에서 열린 운기 스님 24주기 추모재에서 스님들이 운기 스님의 가르침 잇기를 서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행장집.

### 선운사, 7일 운기 스님 추모재 및 교구종회… 행장집 〈독보건곤〉 봉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2월 7일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성원당 운기 스님의 24주기 추모재를 열고 스님의 행장집 〈독보건곤(獨步乾坤)〉을 봉헌했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추모재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을 비롯한 운기스님 문도들과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헌된 행장집의 제목인 '독보건곤' (천지간에 혼자 걷노라)은 평소 스님이 자주 설하고 글로 남긴 글귀로 출가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한다. 이 행장집에는 석전 영호 스님이 운기 스님에게 보낸 엽서, 친필 원고, 불국사 강원 강주 시절의 사진첩과 몇 점 남지 않은 운기 스님의 묵적 등도 함께 실렸다.

또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박봉식 前서울대 총장, 송석구 前동국대 총장의 축사와 법철 스님이 저술한 운기대강백 행장기, 대우 스님, 혜남 스님 등 출가제자들과 황경석 前선진그룹 회장의 추모사, 운기스님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김제 금산중학교 제자들의 추모글이 함께 실렸다.

운기문도회 문장인 혜산 스님은 간행사에서 "운기 스님은 수행자는 마음의 명경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닦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불교발전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원당 운기 스님은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해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백양사, 불국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중흥에 이바지 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날인 7일 지장보궁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종무보고 및 종무계획, 선운사 불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의결됐다. 종회에서는 교구우수사찰 시상식도 열려 포교우수사찰로 부안 개암사, 불사 우수사찰에 전등사, 종무행정 우수사찰에 만일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7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실상사 작은학교 28일까지 신입생 모집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 가 2월 28일까지 2015년 중등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실상사 작은학교 교육과정은 대안학교 교육으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철학, 한문, 과학 등 중학교 과정의 기초적인 지식 수업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텃밭 가꾸기, 환경 가꾸기 등의 체험공부와 매 학기 5박6일간 진행되는 기능 익히기, 대안학교 탐방과 공동체 탐방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실상사 작은학교는 2월 8일 졸업식을 열고 중학교 과정 졸업생 16명,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4명을 배출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졸업전야 행사로 고교과정 1년차 학생들의 해외공동체 탐방 발표와 2년차 학생 4명의 자서전 발표가 진행됐다.

이튿날 졸업식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 부모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작은학교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 아이들이 자서전을 쓰도록 했다. 교과과정에서 새로운 시야를 넓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063)636-3369

노덕현 기자

# 전북 대표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자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경선, 이승규 불자가 수상했다.

전북지역 대표 신도교육기관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의 졸업식이 2월 8일 열렸다.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화엄불교대학 26기 46명, 학림원 21기 53명의 학인이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참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은적사 주지 지월 스님, 석초 스님 등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가족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김한수 불

한편 지난 1989년 개교한 화엄불교대학은 26년간 2,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차별 없는 자비 나눔 부처님 마음 전해요”

## 적십자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 봉사활동 현장

대한적십자 부산지사 불교지구협의회(회장 김순희 · 이하 적십자 부산불교지구)가 자비 봉사를 펼치고 있는 부산 구서동 무료급식소를 2월 10일 찾았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혜일암(주지 우신)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매주 화, 수요일 마다 진행되는 혜일암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700여 명의 독거 어르신 및 노숙자들이 찾고 있다. 이른 아침 급식소에서 활동하는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 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차가운 영하의 날씨와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누구하나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10년 동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승현(63)회원은 무료급식소가 곧 쉼터라고 말한다. “봉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난 듯 가슴 따뜻함을 느낀다. 특히, 어르신들이 손을 잡아 주며 고맙다라고 해 주실 때 뿌듯하다.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봉사 활동은 무료급식 뿐만이 아니다. 불국토 노인 요양원 상락정, 연화원, 개금 복지관에서 어르신 목욕 봉사도 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 및 관자재 요양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옷과 방석, 커튼 등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 양정 복지관, 금정복지관, 수영복지관 등 복지관 복지 후원 사업 활동도 빠지지 않는다.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애원 보육생들을 위한 목욕봉사도 하고 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 차별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학금 지급, 헌혈 캠페인 및 부산 반여동 원오사가 운영하는 공부방 환경 지원 등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활동은 부산과 경남 전 지역에 펼쳐지고 있었다.


적십자 부산지사불교지구협의회가 2월 10일 부산 구서동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 10개 단위회 · 170여명의 회원 활동
### 지역 · 종교의 구분 없이 자비 나눔
### 재난 · 재해 지역 구조 활동에 적극

김경남(70) 회원은 “저 또한 건강이 안 좋지만 이곳에 나와 봉사를 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가족 같은 도반들과 함께 봉사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다는 생각에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봉사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며 얼굴에 활짝 미소를 띠웠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에 대해 회원들은 ‘재난 지역을 위한 구호 활동’ 으로 뽑았다. 평상시에는 각각 봉사를 하다가 재난이 생겼을 때는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인다고. 재난 지역이면 그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직접 보고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특히, 지난 부산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수해 지역을 방문해 빨래 봉사, 흙탕물 청소,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해민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또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봉사작업에 참여하는 등 전국의 재해 재난 지역을 방문해 복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올해 12주년을 맞는다. 박추자 초대 회장은 적십자 내 불교 모임을 발원하며 2003년 3월 10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현재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회원 170명으로 불이단, 연등단, 참사랑단, 불심단 등 10개의 단위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동이 씨앗이 되어 지난 2012년에는 경남 지역에 적십자 내 두 번째 불교 단체를 만들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적십자 부산불교지구회는 3월 10일 창립 기념 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적십자 회관에서 봉행한다. 신임회장으로 선출 된 김순희 회장은 “세대를 이어 주는 젊은 인재 영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방송과 신문을 통한 홍보로 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 법운종 종정 지암 스님, 한국 제 1대 승왕에

## 1월 24일 캄보디아 뗏봉 대승왕에게 인준서 받아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스님이 1월 24일 캄보디아 대승왕 뗏봉 스님으로부터 한국 제 1대 승왕 임명 인준서를 수여 받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법운종 소속 보운 · 보우 · 보성 · 보명 스님 등은 삼장법사 법위도 받았으며, 법운종은 캄보디아와 불교문화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했다. 특히 국제종교문화연맹(회장 보우)은 대법당에서 바라춤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불교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지암 스님은 “동남아 여러 불교국가를 순례하다가 캄보디아를 우연히 방문했는데, 빈곤에 고통받는 현지인들을 직접 목격 한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7번 정도 캄보디아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10여년 동안 국경을 초월해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온 법운종과 국제봉사단체 자비의등불(회장 보운)은 1월 25~28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시 꿀렌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페인트작업 및 사랑의 우물파기, 학교정문 보수, 학용품 전달, 빈민촌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봉사활동을 함께 한 보운 스님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 마실 물 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다. 많은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해마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지하 암반수를 얻기 위해 무려 100미터까지 파는 대공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1대 승왕 임명 인준서 수여 장면.

김주일 기자

# “파도소리 들으며 불교 명상 배웁니다”

##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 부산 한마음선원 템플스테이 체험

미국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생들이 부산 한마음선원을 찾았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주최로 열린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2월 7일~8일 부산 한마음선원(지원장 혜도)에서 열렸다. 행사는 ‘참 나의 줄을 잡고’ 하나로 포행과 ‘We are the 대장부’ , 예불 및 촛불재 등으로 진행됐다.

마레샤 씨는 “명상을 통해 마음과 몸의 조화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마음의 성장을 체험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티 씨는 “ ‘We are the 대장부’ 시간을 통해 생각을 돌이키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유익했다. 스님께서 설명 해주신 주인공의 의미, 참 나의 의미를 생각 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8일에는 와선, 요가 및 파도소리 명상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파도소리 명상을 위해 부산 영도 절영 해안 길을 찾아 절경을 감상하고 평화로운 명상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한 에너지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믿고 노력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는 2014년 여름 광명선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안양 한마음선원 국제문화원 혜각 스님은 “이번 참석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인연을 지속적으로 맺고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은 전 세계 각지의 우수 학생들의 미국 유학지원은 물론 미국 내 학부 졸업생들이 해외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이 한마음선원에서 개최한 템플 스테이에 참석했다. 사진은 부산 영도 앞 절영 해안 길 ‘파도 소리 명상’ 모습

# 자비암 ‘육경합부 · 선림보훈’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부산 동래구 자비암(주지 자관)의 〈육경합부〉(六經合部)와 〈선림보훈〉(禪林寶訓)이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제152호로 1월 27일 지정됐다.


부산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지정된 〈육경합부〉

자비암 〈육경합부〉는 닥종이로 목판을 인출한 인경본 6권 1책으로, 구마라집 한역의 〈금강반야바라밀경〉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수량은 98장이며, 1460년(세조 6) 선종(선종도회소 흥천사)에서 조성한 목판본을 원판으로 삼아 인출한 기록유산이다.

일부의 장은 훼손되어 있으나, 광곽(匡廓)이나 본문 내용이 뚜렷하고, 인경 시기는 성종 때로 추정된다.

부산시 문화재 관계자는 “자비암 육경합부는 세조 및 성종 때 목판본이나 인경본의 조성 체계와 목적, 불교계의 사상적 경향, 선종도회소 흥천사의 단월(檀越) 성분, 당대 활동 인물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정보를 담고 있어, 15세기의 역사 · 문화적 실체를 밝혀주는 원천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비암 〈선림보훈〉은 중종 20년(1525)에 순천 모후산 대광사(母後山 大光寺)에서 개간한 2권 1책의 목판본이다. 자비암 선림보훈의 판본은 고려본 다음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판단된다.

비록 표지가 없고 마지막 반장이 탈락되기는 했으나, 현재 보존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자비암 소장 선림보훈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이고, 동일 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통해 간기가 확인되며, 특이한 어미를 지니고 있어 서지학적인 가치가 있다.

하성미 기자

# 대불총 대구지회 2대 최문수 회장 취임

(사)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이하 대불총이라 함) 대구지회 2대 회장 취임식이 2월 7일 대구 동구 승가불교대 무파사(학장 일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구지회 지도법사 성담 스님, 지광 스님,경도 스님, 고운 스님,혜명 스님, 일관 스님과 김홍래 본회 공동의장, 대구지회 최문수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2대 최문수 회장 취임식 장면

회장으로 취임한 대구지회 최문수 회장은 “한국전기공사에서 40년 동안 전기를 밝혀왔다. 소임을 맡는 동안 지역사회에 불을 밝혀 사랑받는 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한일불교문화교류 여성부, 신년하례회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 이하 한일불교교류 여성부)는 2월 11일 ‘창립 11 주년 기념 및 을미년 신년하례회’ 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등 정사, 前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양산 스님,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불교교류 여성부는 6월 경기도 화성 용주사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지원, 10월 일본 방문 등을 2015년 계획으로 세웠다. 또한 5월 봉축 무차만발공양, 동지팥죽 나눔 등도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 노적봉 바라보니 紅塵에 묻힌 번뇌 사라져

〈홍진〉

## 적멸보궁이 있는 사찰

### ③ 북한산 노적사

**"노적봉이 더없이 깨끗하여 티끌하나 없고**
**만고의 청풍이 노적봉을 불어와 맑고 밝은 기운 돌아오는구나.**
**산영루를 던지고 험악한 산길을 이리저리 찾아 북으로 가면 세 길쯤 되는 돌에 '백운동문'이라 새겨져 있어 돌길을 따라 진국사 절문에 당도하니 붉은 나무와 흰 돌이 구렁을 이루며 물소리 맑게 들리어라."**

이 시는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노적사 전신(前身)인 진국사(鎭國寺)를 읊은 것이다. 요즘 노적사 가는 길은 많이 평탄화되고 포장이 되어 이덕무 시에서처럼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수 백 년 전 여정에 비해 다소 수월해 졌을 뿐,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산허리에 굽이치는 길을 따라 오르다가 평탄한 듯하고, 다시 비탈길 오르기를 몇 번 해야 닿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눈앞에 다가오는 노적봉의 웅장하고 오묘한 모습은 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노적봉은 다른 곳에서 보아도 뛰어나다. 그러나 노적사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노적사 경내에 들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대웅전이 아닌 노적봉이다. 참으로 장관이다. 노적사는 힘하나 안 들이고 노적봉을 덤으로 얻은 셈이다. 얼마나 큰 부처님의 가피인가. 노적봉 암벽은 천만 길이나 되고 우뚝 솟아난 모습 때문에 부지 중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의지할 곳이 없었다. 자첨(子瞻)은, '중국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했지만 누구든 직접 이 산중에 와서 본 사람은 그의 말을 꼭 믿지는 않을 것 같다. 중장대가 절 뒤에 있어 상장대와 마주보고 있다. 올라가 둘러보니 백운대가 노적봉 위로 솟아있지만 여기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구분할 수가 없다.



경내에 들어서면 노적봉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원래 진국사였던 노적사는 1978년 종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중창 불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적멸보궁 내부. 유리창문 너머 사리탑이 보인다.


2009년 네팔서 이운된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

**원 이름은 진국사…성능 스님 창건**
**북한산성 11개 승영 사찰 중 하나**
**1960년 무위 스님이 노적사로 명명**
**2009년 네팔서 진신사리 이운**

진국사(노적사)는 1712년(조선 숙종 38) 당시 팔도도총섭인 계파성능(桂坡聖能)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당시 북한산성에는 산성을 축조하고 관리하는 많은 승군들이 머물렀는데, 성능스님은 중요시되는 요충지에 11개 사찰을 창건하고 승군이 머물게 했다. 진국사는 이 때 창건된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진국사 창건주인 성능 스님은 육신은 북한산에 있었지만 자신의 주 수행처였던 화엄사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그런 스님의 심경은 '북한지' 에 잘 나타나 있다.

"천승(賤僧)이 외람돼 여러 상공들의 심부름을 받아 본분을 내던지고 힘을 다해 바삐 일한지가 벌써 30년이다.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옛 절로 돌아가련다.' 성능 스님은 지리산 화엄사로 돌아가 곧 입적했다. 스님이 떠난 뒤 호국사찰 진국사는 이내 속세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 후 언젠지 모르지만 소실돼 빈터만 남았는데, 1960년 무위(無爲)스님과 창암 유흥억거사, 박금륜행, 김진공성, 불자 등이 복원해 노적사라 명명했다. 이후 주지 스님이 여러번 바뀌다가 절이 본격적으로 중창된 것은 1978년 종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다. 종후 스님은 대웅전, 나한전, 요사채, 종각 등 원력 불사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적사가 적멸보궁 사찰이 됐을까? 원래는 종후 스님이 와서 태국 불교 승왕으로부터 사리 3과를 이운해 사리함에 모셨지만, 10년전 원인모를 화재로 소실됐다. 종후 스님은 다시 원력을 세워 사리를 모시려던 중 2009년 인연이 된 네팔 팔탄타쉬지하초사서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운했다. 그리고 사리탑을 만들어 봉안하고 적멸보궁도 건립했다. 그해 10월엔 진신사리탑 제막 법회와 적멸보궁 현판식도 봉행했다. 한편 2005년 종후 스님은 노적사 재산 일체를 조계종에 헌납했다. 이제 노적사는 명실공히 공찰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노적봉을 지키고 있었다.

**북한산 노적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주변 가볼만 한 곳 북한산성길


사진은 중성문의 모습.

북한산성길을 가고자 하면 사람들은 주로 구파발을 지나 북한산성 입구로 들어선다. 잘 뚫린 아스팔트길로 해서 북한산초등학교,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에 이른다. 아쉽지만 아스팔트길이다. 차량 통행이 줄어 쾌적하다. 대서문(大西門)이 가장 먼저 보인다. 대서문은 사실상 북한산성 정문에 해당한다. 다른 문들은 산 위로 올라간 곳에 세운 반면 대서문은 구파발로부터 평지를 따라 접근할 수 있었기에 옛사람들의 북한산 통로는 대부분 대서문으로 통했다. 숙종 37년(1711년) 북한산성이 축

**대서문, 사실상 북한산성 정문격**
**북한산성문, 수문 뺀 13문만 남아**

성되면서 소로가 뚫렸고,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당시 경기지사 최헌길 씨가 미군 불도저를 동원해 5m 폭의 길을 냈다고 한다. 이제는 산행 인구가 늘면서, 대서문길도 차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정문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 그러면 북한산성의 문은 몇 개나 있을까? 북한산 등산을 어느 정도 한다 하면 도전하는 코스가 북한산성 일주 코스다. 흔히들 '12성문 종주' 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출발은 대서문에서 하고 성벽을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돌아오면 12개의 성문을 만난다. 그렇다면 북한산성의 성문은 12개였을까? 아니다. 대서문 옆 계곡에 수문(水門)이 있었는데, 1915년 홍수에 무너졌으며, 나머지 유구(遺構)도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깨끗이 씻겨 나갔다 한다. 또 하나의 문은 중성문(中城門)이다. 북한산성이 축성된 다음해(숙종 38년 1712년) 숙종은 친히 이 성을 살폈는데, 대서문이 있는 서북방향이 평지라서 적의 침략에 취약하므로 성 안에 겹쳐 성을 쌓았으니 중성(重城)이며, 이 성의 문 이름을 중성문이라 하였다. 그러니 북한산성의 문은 14개였으며 지금은 수문을 뺀 13문이 남아 있다.

## "마지막 불사인 선원 건립 올해부터 추진"

### 주지 종후 스님 인터뷰



종후 스님은 큰 일이 아니고는 좀체로 산문 밖을 나서지 않는다. 입춘을 앞둔 2월 2일 종후 스님은 경면주사로 입춘 부적을 직접 쓰고 있었다. 요즘 사찰서 흔치 않은 광경이다.

"열심히 기도 하다보면 반드시 부처님 가피를 얻습니다. 노적사도 기도처로서 손색 없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사라 생각하고 올해부터 선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후 스님은 오래전부터 선원을 개원하고 싶어 했다. 일찌감치 노적사 인근에 선원을 지을 터도 찜해 두었다. 하지만 국립공원지역이라서 '허가' 가 어려웠다.

종후 스님은 "원효 스님과 의상대사 등 유명 선지식들도 오래전 이곳 북한산에서 정진하셨습니다. 이런 요새에 건축물 허가가 안나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내에 적은 규모라도 선원을 지어 놓고 참선은 산 속에서 하도록 시스템을 구상중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수좌 스님들이 멀리 안가고 결제때면 언제나 마음편히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불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 불탑신앙의 결정체 황룡사 9층탑

## 탑의 진화

### ㉙ 탑의 진화 (신라의 불탑 2)

지난 호에서 알아 본 경주 분황사 남쪽의 넓은 벌판 위에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사진1〉 하나가 홀로 자리하고 있다. 그 동안 견뎌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이 돌은 과거 수많은 목재와 기와의 무게를 견디고 지탱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바위가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 기둥을 받쳤던 심초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심초석의 크기는 435cm × 300cm, 두께는 128cm에 이르며, 무게는 약 30톤에 달한다. 오랜 시간도 차마 앗아가지 못한 심초석의 웅장한 규모는, 찬란했던 옛 불탑의 위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지금으로부터 1,370년 전, 파란만장한 삶과 외교적 국난을 오로지 불심으로 극복하려 했던 덕만공주, 즉 선덕여왕의 원대한 꿈이 모여 만들어졌다. 조성 당시 동양 최대의 목탑이었던 이 불탑이야말로 신라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불탑신앙의 결정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초석을 도화지 삼아 머릿속에 황룡사 9층 목탑을 그려보기에 앞서, 우리는 신라인들이 이러한 불탑을 조성한 이유와,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게 된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삼국유사〉 제 3권 탑상편 황룡사 9층탑 조의 내용을 통해, 탑을 조성한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라 제 27대 선덕왕 즉위 5년(636), 중국으로 유학 간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였다. 이 때 문수보살은 자장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국왕은 전생에 인도 크샤트리아 계급의 왕이었는데,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그 특별한 인연으로 여타 오랑캐 종족과는 다르지만, 산천이 험한 탓에 사람의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 미신을 믿는구나. 하지만 나라 안에 훌륭한 큰 스님들이 있으니 군신이 편안하고 만백성이 평화롭다." 말을 끝낸 뒤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자장법사는 이것이 문수보살의 화현이라 생각하여 슬피 울며 물러갔다.

어느 날 자장법사가 중국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나던 때였다. 갑자기 신인(神人)이 나타나더니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라고 묻자 자장은 "보리(菩提)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신인은 자장에게 절하고 나서 또 다시 물었다. "그대의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소?" 이에 자장은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靺鞨)과 연하고 남으로는 왜국(倭國)에 이어졌으며, 고구려와 백제 이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는 등 이웃 나라의 횡포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백성들의 걱정입니다." 이를 들은 신인이 "지금 그대의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아,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소. 그 때문에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니, 그대는 어서 신라로 돌아가시오!"라고 말하자, 자장법사는 "신라에 돌아가면 무슨 유익한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인은 말했다. "황룡사의 호법룡(護法龍)이 바로 나의 큰아들인데, 범천왕의 명령을 받아 그 절에 와서 보호하고 있소. 그대가 신라에 돌아간다면 절 안에 '9층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은 신라에 항복할 것이며,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의 길이 편안해질 것이오. 또, 탑을 세운 뒤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죄인을 용서하면, 감히 외적이 신라를 해치지 못할 것이오."…(중략)… 643년, 자장법사는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佛經) · 불상(佛像) · 가사(袈裟) · 폐백(幣帛) 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다. 이어서 선덕여왕에게 탑을 세울 것을 간청하자, 왕이 신하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니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제에 기술자를 청하여 데려와야 겠습니다." 곧이어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에 찾아가 요청하니, 아비지(阿非知)라 하는 기술자가 명을 받고 와서는 나무와 돌을 재었다. 또, 이간(伊干) 용춘과 용수 형제가 그 건탑 불사를 주관하는데, 그들이 거느리고 일한 소장(小匠)들은 200명이나 되었다.

탑의 중심기둥을 세우던 날, 아비지는 자신의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꿈을 꿨다. 이에 의심이 생긴 아비지가 탑 조성을 멈추었더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며 어두워졌다. 곧 노승(老僧) 한 사람과 장사(壯士) 한 사람이 나타나 그 기둥을 세우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자 아비지는 건탑 불사를 중단한 것을 후회하고 마침내 9층탑〈사진2〉을 완성하였다.

이처럼 황룡사 9층탑은 당나라 유학승 자장법사의 건의와 선덕여왕의 결단, 백제의 명장 아비지의 기술력이 빚어낸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 그 자체였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탑을 9층으로 조성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탑의 제1층은 일본(日本), 제2층은 중화(中華), 제3층은 오월(吳越), 제4층은 탁라(托羅), 제5층은 응유(鷹遊), 제6층은 말갈(靺鞨), 제7층은 거란(契丹), 제8층은 여진(女眞), 제9층은 예맥(穢貊) 등, 이렇게 이웃나라를 상징하는 9층을 쌓아 진압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장법사의 호국불교 사상과 선덕여왕의 호지불법 정신이 힘을 합쳐 9층탑이 완공된 뒤, 신라는 마침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탑이 세워질 당시, 자장법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받아 온 사리 100과를 황룡사 탑 기둥과 통도사 금강계단, 대화사 탑 등에 분산하여 봉안하였다. 이렇듯 불탑 조성의 주된 목적은 사리를 봉안하여 예경하는 신앙심의 발로에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불탑 조성에서도 살펴보았듯, 탑이 적을 살피는 망루 역할을 위한 군사적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탑 내부의 층계를 이용하여 탑의 최상부인 9층까지 오를 수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신라가 사라지고 대지의 주인이 바뀌며, 황룡사 9층탑 또한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다. 〈삼국유사〉에는 황룡사 9층목탑이 사라지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전해진다. 탑은 처음 조성한 이후 고려 숙종(肅宗) 원년(1096)까지 지진과 벼락 등의 피해로 여섯 번이나 보수와 중수의 과정을 겪었다. 또 고종(高宗) 16년(1238) 겨울에는 몽고군들의 병화(兵火)로, 탑과 장륙존상, 절의 전각 등 모든 것이 재앙을 입어 불타 버리고 말았다. 그

**높이 약 55~80미터로 추정**
**조성 당시 동양 최대 목탑**
**망루 역할 충분… 호국불교 기반**

**탑의 섬세함 · 화려한 장식 돋보여**
**신라예술 극치 보여주고 있어**

〈사진2〉



황룡사 9층목탑 복원모형. 30층 아파트와 맞먹는 80m 높이로 추정된다. 탑의 꼭대기에 오른다면 경주 시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므로 분명 망루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을 것이다.

〈사진1〉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심 기둥을 받쳤던 심초석으로 추정된다.

〈사진3〉



경주 탑곡마애불상군. 황룡사9층탑이 새겨져 있다.

〈사진4〉



황룡사찰주본기. 연도,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뒤 황룡사 9층목탑은 재건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커다란 심초석만이 남아 과거의 영예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룡사 9층목탑의 내부구조나 외형은 확인할 수 없게 됐지만, 천만 다행으로 신라인들이 경주 남산 기슭에 있는 암벽에 황룡사9층탑의 모습을 새겨 놓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당시 탑의 모습과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사진 3〉

이 조각은 신라인들이 세운 목탑의 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탑의 기단에는 두 마리의 사자로 짐작되는 동물이 새겨져 있다. 이어서 탑의 가운데 큰 기둥이 투시되고, 각 층의 처마 끝에는 모두 풍탁(風鐸 · 풍경)이 매달려 있다. 이처럼 풍탁을 탑에 시설한 점은, 신라인들이 시각적인 신앙심과 함께 청각적인 수행의 마음을 높이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탑상부가 시작되는 노반 위부터는 매우 섬세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신라예술의 극치를 감상할 수 있다.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룡사 9층목탑은 한 변의 길이가 22m인 정사각형의 형태라는 것과 총 면적은 약 150평인 490㎡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64개의 초석 위에 정면 7칸, 측면 7칸의 규모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황룡사 9층목탑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인 찰주본기(刹柱本記)〈사진 4〉는, 1964년 도굴범들에 의해 우연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찰주란 목탑을 세울 때의 중심 기둥을 말한다. 찰주는 큰 돌 위에 세우게 되는데, 이 때의 받침돌을 찰주석이라 한다. 황룡사 찰주석 밑에는 금동사리함이 묻혀져있다. 신라 경문왕 12년(872)에 황룡사를 중창하며 금동 사리함의 안팎에 74행 700여자의 글자를 새긴 것을 바로 '황룡사찰주본기'라 이른다. 찬자는 박거물(朴居勿)이고 글쓴이는 요극일(姚克一)이며, 건탑 연기, 탑의 규모, 조성 의의와 중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찰주본기를 살펴보면, "철반(鐵盤) 이상의 높이가 42척, 철반 이하는 183척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철반이란 탑신부 위의 속칭 상륜부라 부르는 탑상부를 받치던 노반을 말한다. 이러한 노반이 철이라는 금속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철반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상륜부가 42척이고 탑신부와 기단부가 183척이라면, 황룡사 9층탑의 총 높이는 225척이 된다. 그렇다면 225척이라는 높이를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본래 1척(尺)은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뎃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자의 한자인 '尺'은 손을 펼쳐서 물건을 재는 형상에서 온 상형문자인데, 처음엔 18cm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것이 차차 길어져 한(漢)나라 때는 23cm 정도, 당(唐)나라 때는 24.5cm 정도로 쓰였으며, 이보다 5cm 정도 더 긴 것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척은 약 35cm이며 고려 및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32.21cm를 1자로 했다. 하지만 세종 12년의 개혁 시에 31.22cm로 길이를 바꾸어 사용했고, 902년에 일제의 곡척(曲尺)으로 바뀌면서 30.303cm로 통용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계량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척을 거래 · 증명 등에 있어 계산단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상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25척은 당나라척의 경우 약 55m가 되고, 고구려척의 경우 현대 30층 아파트의 높이와 맞먹는 약 80m가 된다. 이처럼 높고 웅장한 탑의 9층 꼭대기에 오른다면 경주 시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니, 탑은 분명 훌륭한 망루의 역할을 해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목적을 토대로 지어진 황룡사 불탑에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라인들의 강력한 호국불교사상이 깃들어 있다.

또한 찰주본기에 의하면 '자장법사는 오대산에서 가져온 사리(舍利) 100과를 황룡사탑 기둥 속과, 통도사 계단(戒壇)과 또 대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으니, 이것은 연못에 있는 용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세 곳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사리신앙을 장려함과 동시에 사리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호국불교정신과 신앙심의 강한 결속을 토대로 탑을 세운 신라는, 23년 후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 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서는 신라인들의 호국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천왕사와 망덕사 목탑에 대하여 알아본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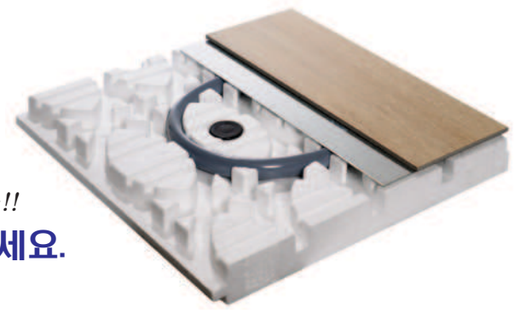




신중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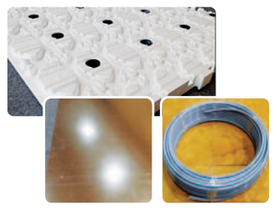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1 02 03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남양주 : 010-9183-9729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창원 : 010-8008-1110
제주도 : 010-3000-1945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수원 : 010-5211-7260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8〉 영광 불갑사 대웅전

# 태극과 보주에서 발산하는 생명력


천정에 장엄된 세 가지 문양. 육엽 범자연화문과 태극 넝쿨문, 붉은 바탕 백묘 넝쿨문 셋이다. 넝쿨문의 한가운데는 생성과 순환의 근원인 태극과 보주 덩어리가 있다.


대웅전 천정 전체 모습. 대들보에 얹혀있고, 용의 몸통으로 응용된 부재가 충량이다. 충량의 끝단면에 용수판을 닮은 용을 붙였다.

### 법성포-영광-불갑사의 불연(佛緣)

한국불교사에서 바다를 통한 남방불교 전래지로 거론되는 곳이 몇 있다. 해남 미황사, 나주 불회사, 영광 불갑사 등이 대표적이다. 영광의 '영'은 '신령 령(靈)'이다. 예사롭지 않은 지명이다. 영광(靈光)은 '신령의 빛이 머문 땅'이다. 그 땅을 접어드는 포구가 법성포(法聖浦)다. 법성포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리가 전해진 포구'라는 의미다. 법성포에서 22번 국도로 내륙을 가로지르면 불갑사(佛甲寺)에 이른다. 불갑사는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성포-영광-불갑사에 이르는 일관된 흐름의 지명에서 불국토의 인연과 불교전래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똑같이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에 인도승 마라난타가 남중국 동진에서 들어와 백제땅에 최초로 불교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단지 인도승 마라난타가 영광 법성포로 들어와 백제땅 최초의 사찰 불갑사를 세웠다고 구전될 따름이다. 기이한 지역명의 인연들이 근거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리라.

### 건축과 예배 축이 직교하는 가람

불갑사 대웅전은 영조 40년, 1764년에 중건된 건물이다. 2002년 대웅전 해체 수리공사 중에 종도리에서 상량문 묵서가 발견되었다. 묵서에 의하면, 1764년의 중창은 여섯 번째에 이르는 '제 6중창'으로, 건축을 총괄지휘한 도편수는 구례 화엄사 승장(僧匠)이었던 쾌연이고, 26명의 목수가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불갑사 가람의 진입축은 동서방향이다. 대웅전은 동쪽에 앉아 서쪽을 향한 서향건물이다. 그런데 법당에 모신 삼존불은 법당의 정면이 아닌 측면방향으로 모셔져 있다. 불상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보고 계신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마곡사 대광보전, 통도사 영산전, 대웅전처럼 건축의 중심축과 불상을 향한 예배축이 서로 직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배치는 제 6중창 이듬해인 1765년에 단청채색을 입히면서 불상을 지금처럼 남향으로 봉안하였다고 상량문은 밝히고 있다. 지형적 특성에 의해 가람의 중심축은 동서로 전개시켰지만, 법당내부 불상의 배치는 대웅전 남향배치의 일반성을 추구한 산물로 보인다. 그것은 마치 청도 운문사 건축들이 지형구조 따라 산을 등진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산을 바라보는 남향인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중심축을 동시에 갖춘 까닭에 7짝이나 되는 많은 창호를 갖추고 있다.

대웅전 외형에서 풍부한 창호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이 지붕 용마루의 보탑 구조물이다. 용마루의 보탑은 용의 정면 얼굴조형에 석탑의 몸체 한 층을 올리고, 그 위에 보주(寶珠)를 얹은 유례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용마루에 용이 떠받친 보주탑**
**보주는 광명편조의 화엄의 빛**
**용은 무한한 변화능력 갖춘 힘**
**민화풍 별지화에 시대흐름 배여**

김제 금산사 대장전 용마루에서 이와 비슷한 조형을 볼 수 있고, 청동보주 장엄은 양산 통도사 적멸보궁과 밀양 표충사 대광전 용마루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며, 심오한 불교철학을 담고 있다. 법당은 법의 집이다. 법은 부처님의 말씀, 곧 연기법의 진리다. 용마루의 보주는 우주만유에 비추이는 광대무변의 진리의 빛, 곧 광명편조(光明遍照)의 비로자나 법신에 다름 아니다. 거룩한 법신의 상징인 까닭에 커다란 용이 받치고 있다. 법당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인데, 그 중심 용마루에 법신의 빛인 보주를 장엄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바다의 수평선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성스러운 장면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말씀이 태양처럼 법당 용마루에 솟구쳐 올라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 태극과 보주, 생성과 순환의 근원

대웅전 천정에도 온통 보주들이 미어 터지고 있어 놀랍다. 대웅전 천정에 베푼 문양은 세 종류다. 육엽 범자연화문과 태극 넝쿨문, 그리고 붉은 바탕의 백묘 넝쿨문 셋이다. 육엽 연화문의 한가운데 씨방자리엔 비로자나불 법신을 상징하는 '옴' 종자불이 있다. 법신 종자불에서 여섯 줄기가 뻗쳐 새로운 범자불이 탄생한다. 여섯 종자불은 붉은 색 계열의 장단-주홍-다자로 이어지는 초빛, 이빛, 삼빛으로 층단 바림을 풀었고, 그 바깥으로 다시 꽃잎 형태로 백록-양록으로 이어지는 초빛, 이빛의 바림을 입혀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무한히 확산시키고 있다. 검은 바탕의 천공에는 다시 대단히 개략화한 흰빛의 육엽연화문을 빼곡이 베풀어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고도의 압축적 상징체계로 드러냈다. 주홍과 양록의 색감이 조화로운 그 종자불의 세계는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대칭으로 끝없이 펼쳐진다. 한마디로 대방광불의 화엄세계다.

천정장엄에서 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태극 넝쿨문양이다. 중앙천정에 베푼 붉은 바탕의 백묘 넝쿨문도 태극 넝쿨문양과 위상수학적으로 연결상태가 동일한 모티프의 문양이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태극문은 태극에서 에너지가 나와 발산하는 구조이고, 백묘 넝쿨문은 중앙으로 수렴하는 구조로 대비를 이룬다. 하나가 연역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귀납적이다. 그럼에도 수렴하고 발산하는 생명력의 에너지는 대단히 힘차고 역동적이며, 폭발적이다. 태극은 본질적으로 우주만물이 생성하고 순환하는 거대한 원리이자 근원이다. 우주생성의 시원이면서, 만유의 근원이 태극이다. 문양의 한가운데는 백-청-적색의 삼택극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며 통일을 이루고 있다. 삼태극으로부터 양록과 주홍의 바림으로 에너지가 퍼져나가 여섯 꽃잎 사이로 보주가 미어터져 나온다. 동양철학적 우주생성의 원리가 담긴 심오한 메트릭스다.

이 장면들은 불교와 도가의 습합이라 할 것이며, 인도 불교철학과 동양의 도가, 혹은 유가철학의 경이로운 결합장면이 아닐 수 없다. 도가사상을 통해 불교의 화엄세계를 비추고, 화장세계를 통해 도가철학의 정신세계를 비추이고 있는 경이로운 모멘트다. 태극에서 보주가 나와 강력한 생명력의 자성을 띄고 있는 장면은 마치 우라늄 원자핵의 모형을 보는 듯 하다. 태극과 보주로 이루어진 원자핵으로부터 강력한 생명력의 에너지가 분출해서 나선형으로 법계에 뻗치는 경이로운 도상이다. 이토록 아름답고 기운생동한 오방색의 태극문양은 양산 통도사 대웅전과 기장 장안사 대웅전 등에서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역으로 백묘 넝쿨문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보주로 응축되고, 그 보주는 연화의 씨방자리에 입체적 형상을 취했다. 일종의 보주꽃의 형상이다. 연화좌의 보주이니, 보주는 곧 부처의 압축된 상징이다. 불보살의 존상을 상징하는 일종의 삼매야형(三昧耶形)으로 조형화한 것이다. 보주 주위로 빛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국토에 놓으신 부처님의 광명에 다름 아니다.

### 기둥 타고 내려오는 장난기의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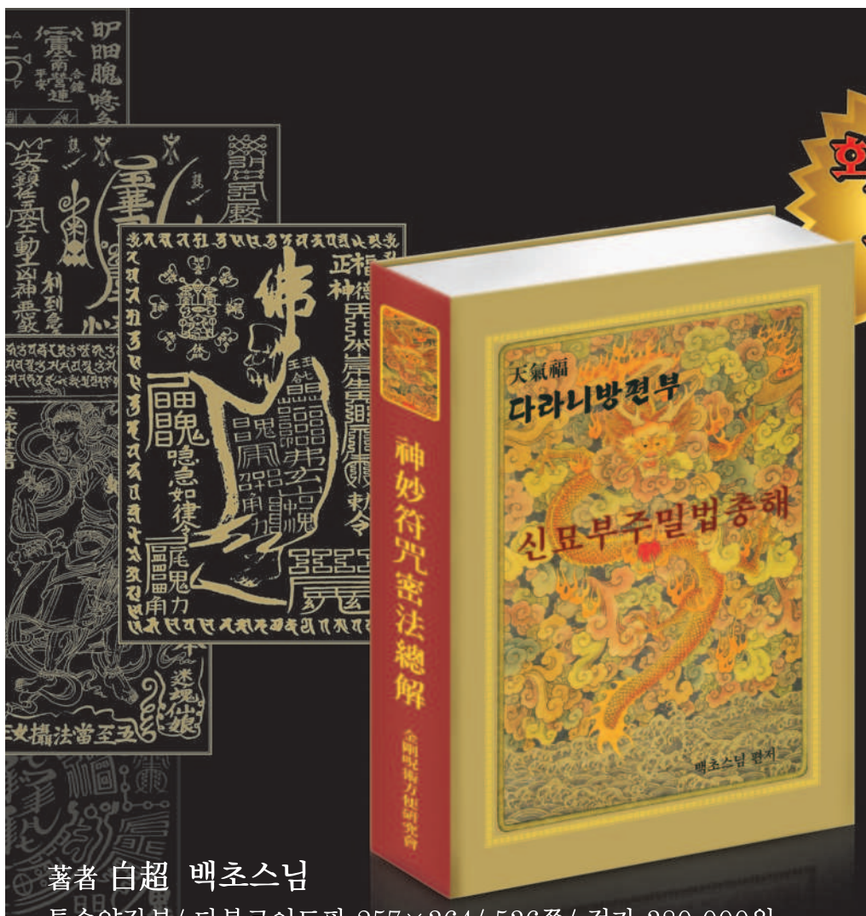
불갑사 대웅전 내부에서 심층적인 보주장엄과 함께 더불어 주목을 끄는 장엄은 용의 구상세계다. 연꽃과 보주와 용은 외형적 구상에서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변화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모티프다. 연꽃과 보주는 씨앗, 혹은 자궁 같은 생명의 원천력과 밀접한 상징구조라 한다면, 용이나 봉황, 넝쿨 등은 신령한 기(氣), 혹은 생명 에너지에 보다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용은 무한한 변화능력을 갖춘 신령한 힘, 또는 에너지 그 자체다.

불갑사 대웅전 내부엔 곳곳이 용의 장엄이다. 대들보나 평방에 베푼 평면회화의 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입체조형으로도 베풀었다. 귀공포에서 살미공포의 에너지로 나툰 용을 비롯해서 율동감 있게 굽이친 충량부재를 그대로 용의 몸통으로 극대화 하기도 했다. 충량을 이용한 용은 흔히 접하는 충량 단면 마구리에 용 얼굴을 그려 넣은 형식이 아니라, 망자의 상여 앞뒤에 붙이는 용수판(龍首板)처럼 용 얼굴을 조각한 판재를 붙인 독특한 형태다. 닫집의 내림기둥에 장치한 용 조형도 그 응용력이 대단히 극적이고, 심미적이다. 짧은 내림기둥에 아름다운 오색의 구름을 공모양으로 사뭇 풍성하게 조형한 후, 용의 머리부분만 살짝 얹어서 신령한 기운 속에 용이 나투는 형상으로 재치있게 표현했다. 닫집 칸의 고주(高柱)에 장엄한 용은 재치를 넘어 익살과 해학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수달, 혹은 다람쥐처럼 생긴 동물을 쫓아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용의 형상에서 미소가 절로 흐른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에서도 비슷한 조형을 만날 수 있다. 용의 표정엔 신성 대신 장난기가 가득 발동해 있다. 익살의 문양을 보니 낭만주의 단계를 지나 근세로 향하는 시대적 흐름이 눈에 아른거린다. 상벽의 판벽에 베푼 별지화 속에도 변화하는 시대의 바람이 배여 있는 듯 하다. 병풍그림의 소재인 포도 넝쿨이 우아한 율동으로 바람을 타고 있고, 바위와 함께 그린 모란도는 19세기 민화와 매우 흡사하다. 바위에는 명암을 풀어 입체감을 살려내고 있다. 시나브로 '중세의 가을'을 넘어 근세의 시대정신이 조금씩 배여들고 있는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기둥에서 내려오는 용, 용마루의 보주탑, 용수판을 닮은 충량의 용, 포벽과 판벽에 장엄된 벽화들.


대웅전에 모신 삼존불과 닫집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943-688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 협 023-02-500940
우체국 310417-02-169082

# 사성제 · 팔정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

##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 8. 부처님의 근본설법


조계종립 동국대의 상징물인 팔정도 광장의 부처님 모습.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팔정도를 표현했다.

**교법의 지위(地位)**

삼보란 불타와 교법과 승가(僧伽), 오래된 표현으로 하면 성자(盛者)와 성자의 가르침과 성제자중(聖弟子衆)이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석존의 재세중(在世中)에는 역시 제일보(寶)인 붓다였다고 생각한다. 오래된 경전에 쓰인 것을 보면 제자들은 자주 '법은 세존을 안목으로 하며 세존을 도자로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법이 흘러나오는 원천(源泉)은 세존이며 따라서 가장 큰 관심을 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석존 자신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자각 밑에서 진실로 선다는 것은 법이며 이 색신(色身)의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여시어경(如是語經)〉에 석존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일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비록 내 옷의 자락을 잡고 내 바로 뒤에 따라서 다닌다 하여도, 만일 그 사람이, 욕심을 품으며 노여움을 품으며, 사악(邪惡)한 마음을 품으며, 게으름에 잠기며, 지해(知解)하는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나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이다. 왜냐하면, 그 비구는 법을 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을 보지 않는 자는, 나를 보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석존이 그의 열반(涅槃)을 눈앞에 두고 아난다에게 준 가르침의 말씀은 더 명쾌하게 그 생각의 방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아난다여, 비구들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법을 남김없이 설명하였다. 여래의 법에는 그 중 어떤 것을 제자에게 감추는 것 같은 교사(敎師)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비밀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그대들은 여기에 스스로를 등명(燈明)으로 하며 스스로를 의처(疑處)로 하여, 다른 사람을 의처로 하지 말며, 법을 등명으로 하며 법을 의처로 하여 다른 것을 의처로 하지 않으면서 주(住)하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 붓다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셨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붓다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교법만이 가장 큰 존경의 대상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도 교법과 계율(戒律)을 결집(結集)하는 일이었다.

**사제설법의 위치**

석존이 45년에 이르는 전도교화(傳道敎化)의 생에 가운데서, 때에 따라 혹은 기회(機會)에 응(應)하여 사람들을 위해 설명한 교법은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스승이 입멸(入滅)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요한 제자들에 의해서 결집(結集)된 교법은 소중히 전해졌으며 또 여러 형태로 편찬(編纂)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역 사아함(漢譯四阿含)이 되었으며 또 파알리 오부(五部)가 되었다.

지금 빠알리 오부가 포장(包藏)하는 경수(經數)를 전부 합하면, 일만 팔천 여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경전이지만 이것으로써 석존이 생애동안 설명한 것을 모두 망라(網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에 이르는 설법 가운데서 어느 설법이 가장 중요하며 어느 설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곧 소위 〈사제설법〉을 들면서 여기에 법의 핵심(核心)이 있으며 여기에 그 분의 근본설법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이미 석존 스스로 여러 번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 제자들이 분명히 수지(受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 한 사람의 비구가 스승인 붓다를 찾아가서 물은 일이 있었다.

"대덕(大德)이시여, 무명(無明), 무명이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것이 무명일까요?"

불교인들은 모든 악(惡), 불선(不善)의 근본(根本)력을 지적하여, 그것은 무명(無明)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무명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 이 비구의 묻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석존의 대답은 매우 간명하게 "그것은 사제에 관해서 무지(無智)하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현실의 인생을 직시하며**

사제설법은 잘 알려져 있듯이 녹야원에서 거행된 석존의 '최초의 설법(초전법륜, 初轉法輪)' 의 일부로서 설명된 것이며 또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제일제는 '고(苦)성제' 라고 이름한다. 그것은 이 인간생활의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만족할 만한 것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否定的)이었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성제란 것은 이런 것이다. 즉 생(生)은 고(苦)이다. 노(老)는 고이다. 병(病)은 고이다. 사(死)는 고이다. 원망스럽고 미운 자를 만나는 것은 고이다.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것은 고이다.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고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오온(五蘊)(인간의 존재)은 모두 고이다."

이 인생은 결국 괴로움이다. 일체(一切)는 모두 괴로움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그가 출가(出家)할 때의 과제였지만 이제 그 깨달은 바를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교법을 전개(展開)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또 그 기점(基點)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인생에는 괴로운 일도 있으며 즐거운 일도 있다. 기쁨도 있으며 서러움도 있다. 이 인생의 진상에 붓다도 또한 눈을 감은 것은 아니었다. 만일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만을 보며 즐거움, 기쁨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가 단호히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의 극단(極端) 금욕주의(禁慾主義)에 떨어지는 일이다. 금욕주의는 또 하나의 극단, 쾌락주의(快樂主義)와 함께 그가 분명히 물리친 입장이었다.

그러나 좀 더 파 내려가 보면 이 무상천류(無常遷流)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언제까지나 기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며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즐거움 그대로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얼마 후에는 괴로움에 의해서 대신 될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기쁨이 얼마 후에는 서러움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기쁨일까. 석존이 이 인생은 결국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붓다께서 '행고(行苦)' 를 설명하셨다고 말한다. '행고' 라는 것은 제행(諸行)이 무상한데서 연유(緣由)하는 고(苦)라는 뜻이다.

**문제해결의 방도(方途)**

부처님은 의연(毅然)하게 이 현실적 인생의 모습을 부정(否定)하였다. 거기에서 출발하면서 그는 다시 의연하게 이 인생개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한다.

그때 먼저 그의 생각하는 방식의 공식(公式)이 된 것은 앞서 말한 '연기(緣起)의 법칙' 이었다. 즉 "이것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남으로 연해서 이것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지금 괴로운 것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연(緣)하여 생겨나는' 원인(原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데 연(緣)해서, 이 괴로운 인생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여 그가 탐구한 것이 제이제<고(苦)의 집(集) (원인)의 성제〉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원인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후유(後有)를 가져오며 희탐이 함께 일어나며 이곳저곳에서 환희(歡喜)하는 갈애(渴愛)이다. 이것에 욕애(欲愛)와 유애(有愛)와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이것이 인생고의 원인에 관한 붓다의 해석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이 인생고의 해결의 방법을 구한다. 거기에서도 또 그의 생각하는 방법은 '연기의 법칙' 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즉 〈연기의 법칙〉은 그 후반(後半)에 있어서 "이것이 없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滅)함으로 연해서 이것이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는 "무엇이 멸함으로 연해서, 이 고(苦)의 인생이 멸하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그 결론을 제삼제, '고(苦)의 멸(滅)의 성제'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없앰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이 갈애(渴愛)를 남김없이 떠나서 멸할 때, 해탈(解脫)하여 집착(執着)없는 것에 닿는다."

그리고 다시 붓다는 이것의 실전과 실천의 길을 제사제 '괴로움을 없애는 도(道)의 성제' 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없애는데 이르는 도(道)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성스러운 팔지(八支)의 길이다. 정견(定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그리고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 그것이다."

그러면 갈애(渴愛)란 무엇일까. 갈애의 멸이란 무엇일까. 또 성스러운 팔지의 길이란 어떠한 것일까. 우리들은 다시 그런 것을 탐구하여 사제의 충분한 이해를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붓다 설법의 근본이 있으며 핵심(核心)이 있으며 총괄(總括)이 있기 때문이다.

##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 불교는 서쪽 오랑캐 가르침인가

**문** 문 유교에서 불교를 헐뜯는 자는 반드시 불교는 서쪽 오랑캐의 가르침이므로 중국에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중국 성인의 가르침은 도서(圖書) 보다 우선함이 없는데 불자(佛者)는 의논함에 미치지 못하니 그를 하열하게 여김이 어찌 그럴만 하지 않겠는가.

**답** 답 이는 이른바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 얽매어 큰 이치에 통달하지 못한 자라 할 것이다. 국토의 경계를 나눔은 비유하면 그릇과 같다. 그릇이 크고 작음은 비록 같지 않다. 그러나 중심은 어느 그릇인들 없겠는가. 그것도 또한 한 천하며, 이것도 또한 한 천하다. 제하(諸夏=中國)가 천축을 오랑캐로 여긴다면 또한 천축(天竺)도 제하를 오랑캐로 여길런지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각황(覺皇)이 세상에 응하시어 교화를 드리우신 시종(始終)인데 어찌 오랑캐의 가르침으로써 중국(中國)에 시행함이 합당치 않다 말할 수 있겠는가. 청컨대 관견(管見) 으로 말해 보겠다.

**불교를 서쪽 가르침이라 비난함은 얽매어 큰 이치에 이르지 못한 것**

저 법왕(法王)이 세상에 응하심을 살펴보니, 체(體)는 태극(太極)이고, 용(用)은 건곤(乾坤)이니, 운용시위(運用施爲)가 자연히 천지로 더불어 유행(流行)하여 한 일 、한 모양이 조화(造花)에 합하지 않음이 없는 자이다.

구천(九天)의 위에 상생(上生)하심은 장주(莊周)가 말한 바 '대명(大明)의 위, 지양(至陽)의 근원' 이고, 자야(子夜)에 움직임은 하늘이 자(子)에서 열림에 응함이고, 계축(癸丑)에 처태(處胎)하심은 땅이 축(丑)에서 열림에 응함이며, 갑인(甲寅)에 탄생하심은 사람이 인(寅)에서 태어남에 응하심이다.

칠월에 입태(入郃)한 것은 음양(陰陽)의 기운이 서로 알맞기 때문이니, 부모의 기운이 고른 연후에 태에 들어가심이다. 그 십오를 취한 것은 양은 희고 음은 검은 중간이기 때문이고, 또 오(五)라는 것은 토(土)의 생수(生數)니 곤(坤)으로써 간직함에 응함이다.

사월(四月)에 출태(出胎)한 까닭은 음(陰)이 다하고 양(陽)이 극한 시기이기 때문이니, 음이 다하면 태기(胎氣)가 소멸(消滅)하고, 양이 극하면 태어난다. 그 팔일(八日)을 취한 것은 팔자(八者)는 열림이기 때문이며, 또 팔자는 목(木)의 성수(成數)인데 목은 진(震)이니, 제(帝)는 진에서 나옴에 응한 까닭이다.

금연(金蓮)으로 받든 까닭은 더러움에 처하여도 물들지 않음을 말함이고, 구룡(九龍)이 물을 토하여 금구를 목욕시킨 까닭은 구(九)는 양수(陽數)이고 물(水)은 양기의 변화한 바니, 그를 사용하여 음장(陰藏)의 기운을 세제(洗除)한 것이다.

사방으로 각각 일곱 걸음을 걸으신 것은 사방에 각각 칠요(七曜)가 있음을 보이심이다. 칠요란 것은 음양오행조화(陰陽五行造化)의 으뜸인데, 사칠(四七)을 곱하면 하늘의 이십팔수가 되니, 하늘의 경이며, 눈으로 사방을 돌아본 것에다 중앙을 겸하면 오성(五星)이 되니, 곧 땅의 위(緯)이다. 경위(經緯)를 갖추고 문채(文彩)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자후(獅子吼)를 내신 것이다.

하늘을 가리킴은 공이며 양(陽)이요. 땅을 가리킨 것은 색(色)이며 음(陰)인데, 이는 음양공색(陰陽空色)의 중앙에 곧 진여자성(眞如自性)의 부처가 있음을 보임이니, 그 세력이 홀로 존재하여 어깨를 나란히 할 자가 있지 않은 것이다.

이 한 불토세계(佛土世界)에 사대주(四大洲)가 있는데 유독 남섬부주(南贍部洲)의 중앙을 취한 것은 남쪽은 명정(明正)하고 치우치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이니, 그 법이 대중대정(大中大正)하여 반드시 여기에서 유행함을 보인 것이다.

이는 곧 대대로 부처님이 세간에 응하시어 중생에게 열어 보이신 최초의 방편이다.

이러한 본 체〈體〉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작용〈用〉이 있는 것이니 진실로 세간의 성인이 방불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다만 사(事)로써 논(論)했을 뿐이지만 만일 이(理)에 나아가 말한다면 어찌 다만 이와 같을 뿐이겠는가.

불(佛)이란 깨달음이며, 화(華)는 비지행원(悲智行願)이니, 진심(眞心)을 각오(覺悟)하면 비지행원으로써 묘체(妙體)를 장엄하여야만 위없는 보리를 이루게 된다.

경교(經敎)란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손가락을 인하여 달을 보았다면 남아라고 말할만 하지만 혹 손가락을 집착하여 달로 여긴다면 어찌하겠는가. 어리석고 미혹함이 심한 것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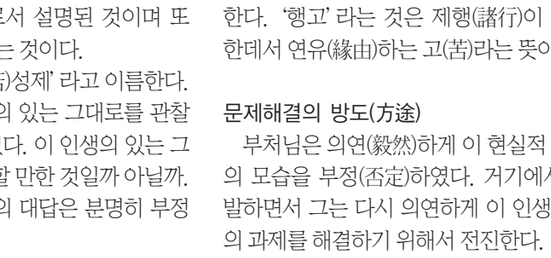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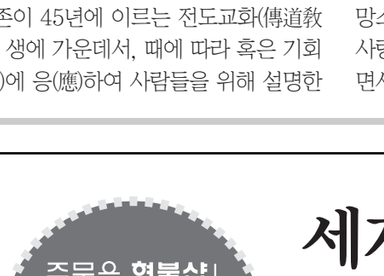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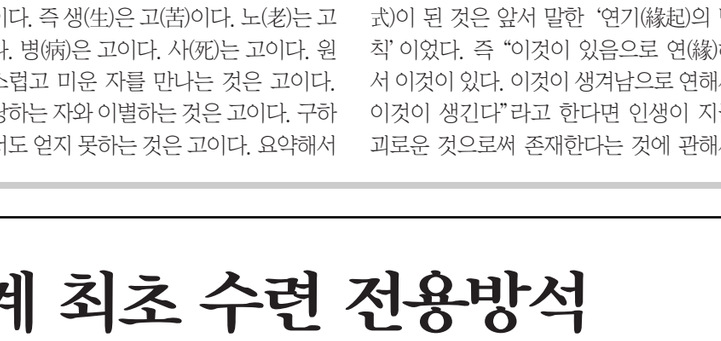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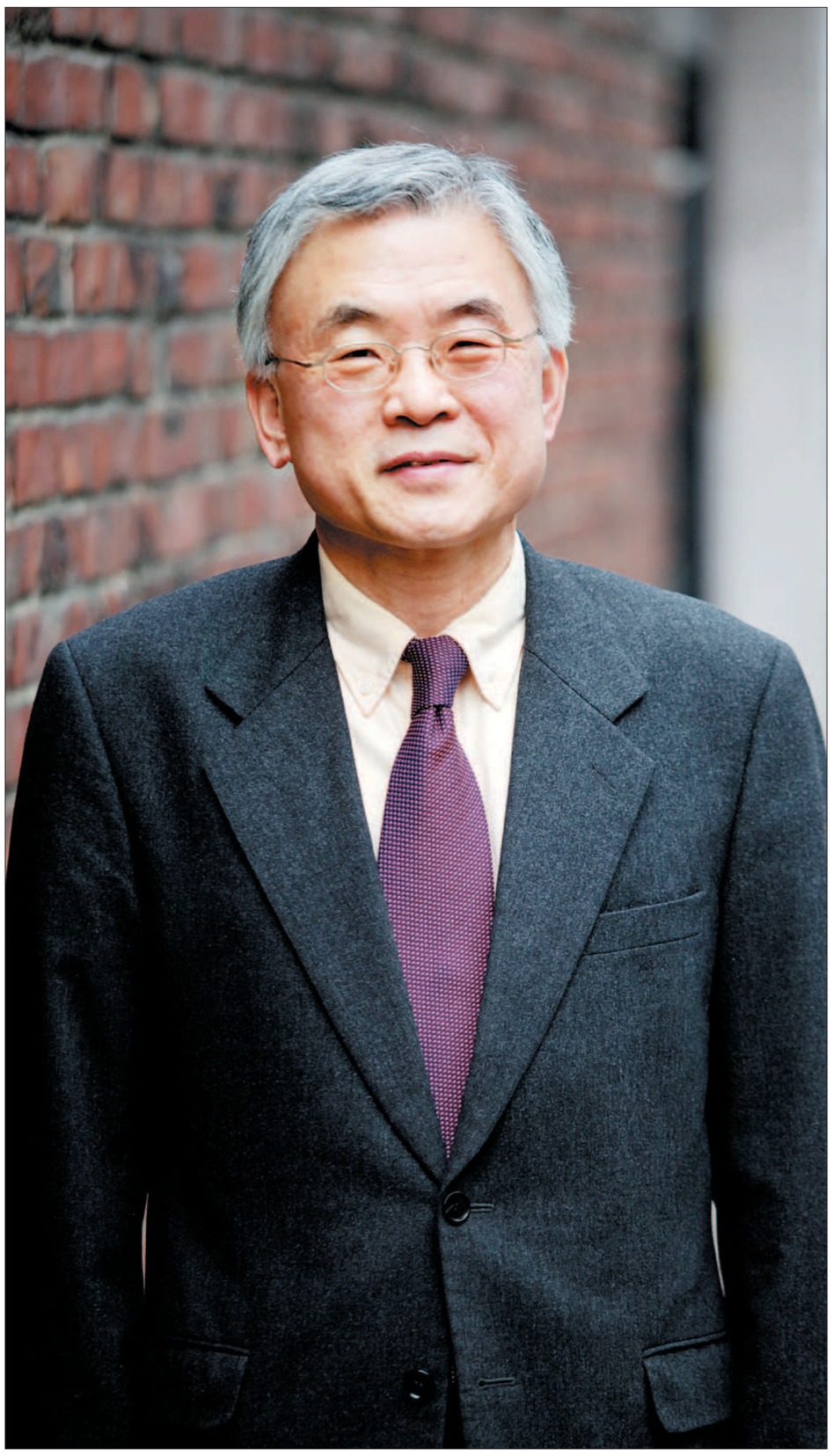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교수 한명 자각 모이면 큰힘”…

##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춘 교수**는 … 동국대 법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숭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84년부터 원주 상지영서대학 교수로서 상법과 국제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과 강원도청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원주시청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불교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을 맡아 6년 동안 세만기를 성료했더. 원주 성문사 신도회 고문 소임을 맡고 있다.

40년 전 종립 동국대 법대에 입학한 혈기 왕성한 한 청년이 오대산 월정사를 찾았다. 첫 여름방학을 맞아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당차게 탄허 스님의 소개서를 가져온 그 청년에게 사찰에서는 스님이 썼던 방산굴의 독방을 내주었다. 그것이 불심의 씨앗이 되었다.

40년이 지나 하얗게 머리가 센 그 청년은 마치 그 때처럼 혈기왕성하게 불교계를 위해 일한다. 바로 최용춘 교수(61 ·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의 이야기다.

상지영서대 법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최용춘 교수는 2009년부터 제13대, 14대, 15대 회장을 맡아 6년 동안 불자교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 왔다. 2월 28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그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중이다.

“뒤돌아보면 집행부에서 ‘보다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다니며 불자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가 보다 많았다면, 불자교수들을 응집하는 힘이 더욱 생기고, 대학에서의 포교도 크게 활성화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말을 쏟아냈지만 6년 동안 교수불자연합회는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다.

먼저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창기 교불련은 교수들이 모인 뒤 식사비가 부담될 정도였다.

최 교수는 “모든 행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회장이다 보니 모금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벅찰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리뛰고 저리뛰었다. 상원사 의정 스님의 도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 교수불자연합회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열정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다. 또 교수들의 참여율도 대폭 높아졌다.

“2009년 첫 하기교수불자대회를 열었을 때였어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문광부 종무관이 축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행사가 진행되니 참으로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차마 밝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참석율이 낮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일이 전화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100여 명씩 동참했습니다. 최근에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는 200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먼저 회원수첩을 만들었다. 그동안 교불련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회원수첩조차 없었다. 또한 그동안 나온 논집을 연구재단에 등재신청했다. 교수불자대회도 세미나를 비롯해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병행했다. 여기에 인도와 일본성지순례 등 교수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최 교수는 교수들이 신심갖고 더욱 열심히 불교계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이 혼탁할 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교수들이라며 교수 한명 한명의 자각이 모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교수가 전국에는 10만 명이 있습니다. 이중 적어도 5만 명이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불련 회원 교수는 1800명 수준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대회 등에도 4~500명은 모여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야 합니다.”

최 교수는 자발적인 동참의 근원이 바로 이타행에 대한 발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강경〉 14분의 ‘이상적멸분’ 에는 이타행을 넘어서 위 이익일체중생이라고 했다”며 “교불련은 말로의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단체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불련에 대한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봉사실천, 학술연구, 동아리지원 세분야에 수여하는 교불련 자체 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며 “창립기념법회 등에서 불자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후임 회장이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회장 소임 6년… 2009년 이후 회원 2배**
**성지순례 통해 교수 네트워크 초석 다져**
**2011년부터 4년간 대학생 동아리 지원**
**“자체 학술 · 봉사상 제정 못해 아쉬워”**

**2010년 서불대 사태 맡아 정상화 보람**
**온가족 관음정근 · 기도 함께해 ‘화목’**
**“남탓말고 스스로 변해야 진정한 불자”**

### 대학생 포교, 지도교수 활동이 핵심

대학시절 불심이 싹튼 경험에서 일까. 최 교수는 임기동안 교불련의 중점사업으로 대불련 활동을 지원했다. 먼저 최 교수는 포교원장인 혜총 스님, 당시 김규칠 진흥원 상임이사, 이종두 종무관, 명호근, 윤제철,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등과 매월 회의를 열고 그 결과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4년간 총 7000만 원 가량을 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에 나서고 학생들과 직접 만났다. 전국 43개 대학의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3년부터 대구, 부산, 광주, 청주 등에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대불련 조직 감소와 교수 불자들의 활동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제주대와 한국교통대, 대전대, 건국대에서 불교학생회가 재창립되고 동국대 전산원 등 법회가 없던 곳에서도 법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강원대의 경우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불자학생들이 불사를 벌여 법당에 불상을 모시기도 했다. 그 기쁨에 최 회장이 직접 사경한 〈법화경〉을 법당 부처님 복장에 봉안했다.

“대학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아리는 지도해주는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결국 이 학생들이 사회에서 불교계의 동량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자 교수들이 포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대학 내 불교동아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는 최근에는 취업문제 등으로 40년 전 학창시절에 비해 동아리 수에서부터 학생 수가 모두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창 시절에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따듯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불교만의 문화가 자리잡혀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으로 인한 압박감, 인생상담 등을 할 수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에서 불교학생특강을 열어 흥행에 성공했지만 세미나 참가 학생들의 대불련 가입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일화를 털어놨다.

최 교수는 “대학생들을 법회로 유인하려면 기존의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선시 낭독회, 참선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이 있는 지역의 사찰과 선배불자, 교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독교 교수들의 장기적인 시각에 놀라

이어 최 교수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신교계의 장기적인 시각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교수협의회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2012년 기독자교수협의회와 공동사업을 추진중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2019년 독립선언 100주년 행사도 추진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교계에는 즉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큰 대회를 한다고 해도 길어봐야 1년~2년 안으로 준비합니다. 인재불사도 그렇습니다. 불자들이 불자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 사람을 키워내고, 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미흡해서입니다.”

최 교수는 “1980년대 가톨릭계가 강남 성모병원 부지를 헐값에 인수할 때 불교계는 법난을 겪었으며 2000년대 개신교계가 성시화운동을 할 때, 불교계는 시청앞에서 범불교도대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그 것으로 그쳤다. 사안에 대해 뼈아프게 느끼고 긴 시각에서 변화해야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인재불사를 비롯해, 민영교도소 문제 등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많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 교수는 최근의 종립학교에서의 갈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했다.

최 회장은 “중요한 점은 교육기관으로서 얼마만큼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 2천여 불자 교수 역할 중요


2014년 3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교불련 25주년 법회 현장.


2014년 진행된 대학생 지도교수 간담회에서 불자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최용춘 교수


통도사에서 진행된 하기 교수불자대회 모습. 문화재해설 등이 곁들여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14년 6월 해인사에서 열린 교수불자대회 입재식에서 삼귀의례를 하고있는 참가자들

학교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고, 또 종립학교로서 이들이 불심을 갖고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010년 보문학원 이사장을 맡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중요한 점은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서불대 문제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난 일을 했기에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그 무엇보다 긴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 신행활동 바탕으로 주변 이웃 보살필 것

최 교수는 교불련 회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회장직을 수행한다. 최 교수는 소임을 벗은 만큼 본연의 일에 충실하는 한편, 신행활동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중선봉행 제악막작(衆善奉行 諸惡莫作).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여러 선함을 받들어 행하라는 말로 도림선사와 백낙천의 선문답에서 나오는 말이다.

최 교수는 "백낙천의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말 아닌가' 는 질문에 '80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고 답한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불교의 가르침은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실천' 을 강조했다.

현재 매일 〈금강경〉 3독과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최 교수는 특히 사찰을 많이 찾을 예정이다.

"아침에 일어나 108염주로 관음정근을 11번 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3독, 금강경 1독, 108배를 하죠. 그렇게 하면 하루가 편안합니다. 소임을 내려논 만큼 여러곳을 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집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든지 원주 영원사, 천태종 성문사, 국향사, 구룡사, 법흥사 등 적을 두지 않고 수시로 가는 편입니다."

최 회장은 연말이면 가족과 함께 월정사 시절 인연이 닿은 삼보 스님이 있는 법흥사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워낙 가족이 함께해 지금도 자녀들이 기억하는 가족여행은 사찰로 간 것 밖에 없을 정도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기념으로 함께 3000배를 하고, 군대에 가기 전 함께 3000배를 했습니다. 집에는 삼존불 모셔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장가를 간 뒤 아들이 어느날 그러더군요. 자기 전에 관음정근을 하고 잔다고요."

최 교수는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일중해서 추진하는데 신행활동이 크게 도움이 됐다"며 "명상을 통해 논문 작성 전 머리를 정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기부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교도소에 특강을 가거나 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 가 있다는 뜻의 무재칠시(無財七施)를 가르치기도 한다"며 자신의 신앙에 지침이 되는 법문들을 소개했다.

"사실 원주에 목사님이 운영하는 밥상공동체가 있는데, 매월, 초파일, 추석, 설날 등에 지역 불우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밥을 해주는 봉사를 합니다. 취지에 공감해 쌀을 부담하고, 가끔은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게 시작"이라며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스스로를 예외로 하며 말합니다. 나부터 예외없이, 내가 먼저 하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이타행입니다. 남을 탓하기 보다 내가 먼저 하나씩 해나간다면 불교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 미디어포교의 위력

오래 전 배우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한 영화 '라디오 스타'를 무척 인상 깊게 보고 나도 언젠가는 라디오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작은 포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몇 해가 지나고 백양사에서 포교국장 소임과 함께 광주에 있는 백양사 포교당 관음사의 살림을 맡게 되어 매주 수요일 저녁에 2시간씩 천수다라니 49독 기도를 시작했다. 2시간을 잠시도 쉬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며 다라니를 외우다가 문득 영화 라디오스타가 떠올랐다. 나도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다면 관음사를 널리 알리고 포교활동도 더욱 광범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발원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다. 처음 백양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기 전에도 남해 보리암에서 1년간 기도하며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소임을 맡고 싶다는 발원이 성취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꼭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념했다.



그림 · 박구원

그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를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광주불교방송국 기술부장이 찾아왔다. 매일 오후에 방송하는 '무명을 밝히고' 라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리를 옮기면서 대체할 진행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본사 주지스님께도 재가를 받았다.

가끔 업무적으로 불교방송국에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처음 발을 디딘 방송국은 느낌이 무척 새로웠다. 하지만 담당피디와 프로그램 제작 및 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방송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담당피디는 평소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긴장을 한 탓에 자꾸 침이 마르고 발음이 꼬이기 일쑤였다. 때로는 피디의 큐사인을 놓쳐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오프닝 원고를 직접 쓰고 쉼표를 찍어가며 몇 번을 읽고 또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차츰 목소리도 차분해지고 피디의 큐사인도 여유있게 받게 되었다. 신도들과 지인들에게도 방송시간을 알려주고 많이 들어달라고 홍보를 했다.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다고 인사하는 신도들도 차츰 늘어나면서 방송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양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 장내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백양사 포교국장이라고 소개할 때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진행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무척 반가워하며 크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진행을 마치고 만난 자원봉사자 가운데는 방송을 늘 들으면서 어떤 스님인지 궁금했다며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방송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설법이 가장 뛰어났던 부르나존자가 스스로 어려운 여건을 찾아 포교에 전념한 것처럼 포교의 방법은 하는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맞춰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미디어를 손쉽게 접하는 현대인에 맞는 포교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야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포교에 전념하고 계신다. 그 스님들이 더욱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불교방송과 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불교를 널리 알리는 미디어의 위력을 기대해본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 美 교수, 수행 체험 교과에 반영 '화제'

## 맥다니엘 교수, '차분하고 신중한 삶' 프로그램 개발





저스틴 맥다니엘 교수는 태국과 라오스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맥다니엘 교수(사진 왼쪽)와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맥다니엘(사진 오른쪽)

종교학을 가르치는 한 미국인 교수가 태국과 라오스 일대에서 수행자의 삶을 체험하고, 귀국해서는 체험을 토대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화제다.

〈Daily Pennsylvanian〉 지는 1월 22일 "저스틴 맥다니엘(Justin McDaniel ·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교수가 태국과 라오스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 수행자의 삶을 체험한 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맥다니엘 교수는 방학 기간 중 캄보디아 난민촌을 방문해 영어를 가르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AIDS를 예방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접하게 됐다.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종교인 불교와 문화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맥다니엘 교수는 "특히 캄보디아 난민촌 거주자들이 불교라는 사유에 근거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아이들이 단기출가를 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 태국 · 라오스서 수행자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 학생과 교감

### 학생들 "내면의 밝은 면 드러나"

내 자신도 수행자의 삶을 체험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Daily Pennsylvanian〉지에 따르면 맥다니엘 씨의 수행자 삶의 체험은 '도전'과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가사를 입고 삭발한 채, 하루 한 끼만으로 배를 채우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이란 서구인에게는 도전 그 자체"라고 말한 맥다니엘 교수는 "그러나 속세의 여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다"며 "또한 타인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지,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등도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수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점도 이번 체험의 소중한 배움이었다.

"가르치는 일은 훌륭한 직업이지만 그에 상응해 커다란 책임도 따른다"고 전제한 맥다니엘 교수는 "교육이란 단지 성장이나 성취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은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며, 배움과 실천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맥다니엘 교수는 태국과 라오스에서의 수행자 체험을 토대로 '차분하고 신중한 삶: 수행자 그리고 사색적인 삶(Living Deliberately: Monks, Saints and the Contemplative Life)'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Arts and Scienc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재학생에게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케롤라인 벨트렌(Carolina Beltran · 1학년) 씨는 "교수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기'를 집요하게 요구한다"며 "교수의 낯선 교육에서 당혹보다는 열정을 더 느껴진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James An · 4학년) 씨 역시 "교수님의 프로그램은 우리 내면의 밝은 면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 같다"며 "교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美 여성불교계 대모의 삶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The Silent Dance of Life'…2016년 상영 예정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모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 94)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장편 다큐멘터리, 'Ruth Denison-The Silent Dance of Life'가 제작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Lion's Roar〉 지는 2월 11일 "영화감독 알렉산드라 코모렉(Aleksandra Kumorek)이 지난 4년간 루스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며 "루스 특유의 심오함과 유쾌함을 담은 1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제작됐고, 1년간의 편집, 수정 과정을 거쳐 2016년 대중에게 개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루스 법사는 40여 년 동안 위빠사나 명상을 보급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불교지도자이다. 나치 독일 치하와 소련 강제수용소에서 성장기를 보낸 루스는 1957년 미국으로 망명해 앨런 와츠(Alan Watts)와 알도스 헉슬리(Aldous Huxley) 등과 교류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1971년 버마 상좌부 지도자 우 바 킨(U Ba Khin)의 지도를 받은 루스는 모하비 사막에 위파사나 명상센터 담마 디나(Dhamma Dena)를 개원, 잭 콘필드(Jack Kornfield) 등과 교류하며 위파사나 명상 보급에 매진했다

미국에서 여성만의 '여성불교수련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루스 법사는 넘치는 에너지와 전통을 벗어나 음악 리듬, 챈트 소리, 춤 등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창의적인 명상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졌다. 루스 법사에게 불교를 배우고 법사나 명상 지도자가 된 여성은 아야 케마 (Ayya Khema), 샌디 부셰(Sandy Boucher) 등을 비롯해 셀 수도 없이 많다.

"루스는 미국에서 여성불교를 이끈 1세대 지도자들의 수장"이라고 전제한 샌디 부셰(Sandy Boucher) 법사는 "루스의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일깨운 여성 불자들이 많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서 불교 특히 상좌부 불교와 위빠사나 명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여성불교계의 대모 루스 데니슨(Ruth Denison · 94) 법사

〈Lion's Roar〉 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루스 법사의 다큐멘터리는 독일의 영화 제작사인 '노르트메디아(Nordmedia)'의 후원으로 했다. 그러나 제작된 영상을 편집하고 완성한 후 각 극장에 배본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후원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16년 상영을 목표로 '인디고고 캠페인(Indiegogo Campaign)'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알렉산드라 감독은 "이를 통해 3~1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해, 루스 법사의 다큐멘터리 후반부 작업을 성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스 법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The Silent Dance of Life' 제작 관련 후원은 indiegogo.com/projects/ruth-denison-the-silent-dance-of-life을 방문해 가능하다.

오종욱 편집위원

# 태국 호랑이 사원 100마리 포획 물의

## "동물학대 · 불법 밀매 의혹…조사 중"



스님과 호랑이가 함께 공존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 '호랑이 사원'이 사실은 동물학대와 불법 밀매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과 호랑이가 함께 공존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태국 '호랑이 사원'이 사실은 동물학대와 불법 밀매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언론 Takepart는 2월 8일(현지시간) "태국 공무원들은 태국 깐짜나부리 '왓 파 루앙 타 부아 사원'의 호랑이 100마리를 포획해 사원 승려들이 불법적으로 사고 팔았는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국 지역환경관리단체는 호랑이 사원이 호랑이를 기르기 위해 합법적 허용 절차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호랑이 사원은 멸종위기에 놓인 38마리의 인도 토종 코뿔새와 늑대를 불법적으로 사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태국 공무원들은 "우리는 멸종위기에 놓인 코뿔새 38마리를 포획했으나, 사원 앞 우리에 갇혀있던 늑대 두 마리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 사찰 측으로부터 늑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랑이 사원은 승려와 호랑이가 평화롭게 공존해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10여 년 전 죽어가는 새끼 호랑이를 발견한 주민이 사원 승려에게 호랑이를 부탁했고 그 후 하나 둘 늘어난 호랑이가 사원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됐다.

사원 측은 "호랑이들은 우유로 자랐기 때문에 야생성은 통제됐다. 먹이도 피를 빼고 개 사료와 함께 먹여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순한 호랑이로 길들여졌다"고 강조하며 한화 약 3만6천원의 입장료를 받으며 관광객을 유치했다.

관광객들도 인터넷상에 호랑이와 기념촬영을 한 사진들을 올려 호랑이 사원은 더욱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의 의심의 눈빛은 벗어날 수 없었다.

호랑이 사원을 주시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인 '케어 포 더 와일드(Care for the Wild)'은 3년간 비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태국 법 상 호랑이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간주되지만 사원 측은 나이 든 호랑이와 라오스 밀수 시장의 어린 호랑이를 밀교환 한 것이다.

케어포더와일드는 "호랑이 사원은 불법적으로 호랑이를 국제적 밀거래를 했으며, 호랑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가둬넣고 사육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호랑이들은 섭씨 40도에 달하는 고온의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쇠사슬로 묶여 기진맥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케어포더와일드는 "이런 날씨에도 사원측은 호랑이들에게 물조차 주지

### 멸종위기 새 · 늑대도 불법 사육 "밀거래 과정서 무자비하게 가둬"

않는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호랑이에게 마취제를 투여, 잠을 재운 뒤 사진 촬영을 한다"며 "약물 중독으로 병든 호랑이는 폐기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 여행블로거인 브야스(Ruchika Vyas)씨는 지난 1월 "호랑이를 보기 위해 약 15달러를 지불하고, 호랑이에 의해 부상을 당해도 사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후 입장할 수 있다"며 "직원들은 호랑이가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진정제가 투여된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이 호랑이의 꼬리를 아무렇지 않게 당기거나 손과 막대기 등으로 세게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몇몇은 호랑이를 도구처럼 생각하며 위에 앉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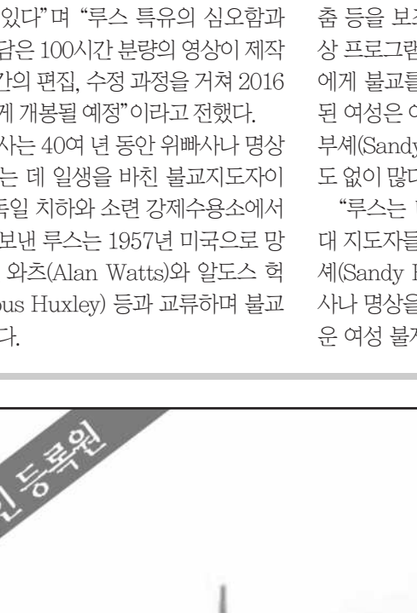

디자인 등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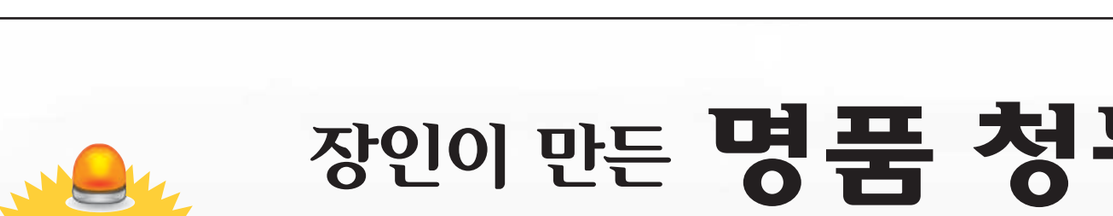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 품 명 | | 규 격 (세로 / 지름) |
|---|---|---|
| 촛대 | 사자 코끼리 | (大) 51cm×21cm<br>(中) 41cm×21cm<br>(小) 35cm×21cm |
| | 거북이 | (中) 41cm×21cm<br>(小) 35cm×21cm |
| 향로 | 거북 용두 | (大) 28.5cm×34cm<br>(中) Ⓐ 21.5cm×29cm<br>(中) Ⓑ 18.5cm×23cm<br>(小) 15.5cm×18cm |
| 다기 | 다기 | (大) 26cm×20cm<br>(中) Ⓐ 22cm×14cm<br>(中) Ⓑ 20cm×13cm<br>(小) 17cm×12cm |
| 향통 | 원형 | (大) 15.5cm×7.5cm<br>(小) 11.7cm×5cm |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 아토피, 피부병 치료를 통한 중생구제의 서원



연각사 해파 스님

**수행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피부병을 통해 그 고통을 알게 된 스님은 그 인연으로 피부병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수많은 임상치료를 통해 아토피 치료의 큰 성취를 이루어 내고 현재는 하남 연각사 포교원에서 아토피와 피부병으로 고통 받는 불자들을 치료해 오고 있다.**

**해파 스님**은?

17세 때 마공 스님을 은사로 쌍계사 국사암으로 출가하여 지리산 반야봉 깊은 산속에서 수년간 수행 정진했다. 득도 후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구제의 원을 세워 현재 하남 연각사 포교원에서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 치료에 전력하고 있다. 스님은 출가 후 수행정진 하는 도중 고질적인 피부병에 시달렸다. 갖은 고통 속에 스님은 수행자로서 이 또한 수행의 경계라고 생각했다. 피부병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관련서적을 탐독하고 끊임없는 자가치료를 진행한 결과 스님은 새로운 치료방법을 발견한다. 스스로 터득한 침술과 지리산에서 직접 만든 약재를 환부에 처방해 임상결과까지 얻었다. 피부병을 극복한 스님은 아토피나 건선과 같은 고질적인 피부병으로부터 중생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또한 스님으로서의 본분사임을 알고 본격적인 중생 치료에 나섰다.

## "행(行)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수행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해파 스님은 항상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며 몸소 절약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곁의 선지식이다. 스님은 항상 "부처님보다 자기 부모님 공경을 우선하라"며 "효가 근본이며 옛것을 익혀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스님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자로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측은지심 또한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치료받는 불자님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그 보다 큰 성취는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스님은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모든 것이 다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님은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자로서 기도정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 해파 스님이 말씀하시는 아토피와 원인은?

"'아토피'는 스페인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치료할 수 없는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선진국병으로 문명 발달과 함께 널리 퍼진 화학물질로 인한 피부병입니다. 병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토피는 현대인이 평생 안고 가야할 병입니다. 하지만 아토피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아토피는 먼저 몸 안의 열이 많아 생기는 병입니다. 건강을 챙기는데 과하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을 과하게 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은 잠을 자거나, 혹은 너무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하며 발생합니다. 과학적, 합리적인 것에 벗어나 자연의 흐름과 본능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면 사실 아토피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 "합리에서 순리로 돌아가자"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병 등이 발생하는 관점을 해파 스님은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도 자연 속의 일부입니다. 자연인 사람에게 인공적인 석유부산물인 화학물질이 누적되면 당연히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순리에서 벗어난 자연은 곧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피부에 부작용의 형태인 각종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파 스님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음식이나, 화학성분의 의류, 보습제, 화학적 환경 등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 ■ 해파 스님이 개발한 천연초제비누

아토피나 피부병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스님은 스스로 만들어 쓰던 연고형태의 약제를 일반 환자도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방 고약의 형태 개발했다.

비누처럼 응고시킨 '천연초제비누'로 천연 생약 25종의 성분을 주원료로 하여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이 전혀 없다. '초제비누'는 순수 생약으로 만들어 영양분을 피부 깊숙히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습과 보윤효과가 탁월해 피부에 부드러운 탄력과 유연성을 촉진시켜 사용자가 직접 달라진 피부 상태를 느낄 수 있다.

각종 특이 피부, 아토피, 각종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 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 탈모증 등의 각종 피부 체질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 피부 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기에 1회만 체험해도 피부 상태가 호전된다.



아토피, 피부병 약재 천연초제비누

바른 행을 실천하며 염불, 정진하는 **연각사 포교원**
경기 하남시 수리남로 30 (덕풍동 369-2) 010-8875-5454

## "스님과의 인연으로 피부병 치료"

**보리행 보살 (63세)**



"아토피가 얼굴과 목까지 너무 심해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천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병이 나아가고 있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피부건선과 아토피로 고통 받으며 온갖 치료를 다해 온 보리행 보살은 긴 세월동안 전혀 호전되지 않아 지병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왔다. 지인의 소개로 7개월 전 해파 스님을 만난 보리행 보살은 스님의 침술과 천연초제비누 사용 등 2개월 간의 치료 결과 아토피는 물론 근육 뒤틀림까지 호전되고 있다. 이후 보리행 보살은 주 3일씩 빠짐없이 연각사로 스님을 만나러 오고 있다.

### ■ 일반적인 아토피의 정의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양증(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한다.

유아기에는 얼굴과 팔다리의 펼쳐진 쪽 부분에 습진으로 시작되지만, 성장하면서 특징적으로 팔이 굽혀지는 부분과 무릎 뒤의 굽혀지는 부위에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많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른의 경우 접히는 부위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lichenification)가 나타나고, 유소아기에 비해 얼굴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병률이 인구의 20%라는 보고도 있다.

**원인**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증상은 피부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매연 등 환경 공해, 식품첨가물 사용의 증가, 서구식 주거형태로 인한 카펫, 침대, 소파의 사용 증가, 실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집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알레르겐)의 증가 등이 있다. 또한 실내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원인 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원인이 된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점은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증상**

심한 소양증(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 피부 병변이 주요 증상이다. 피부건조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대개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심해진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습진성 피부 병변(병리적 변화)이 생기고 이러한 병변이 진행되면서 다시 더 심한 가려움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피부 병변의 분포와 반응 양상은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유아의 경우 병변이 주로 진물이나 딱지가 지는 급성 습진이 나타나며 주로 얼굴, 머리에 잘 생기고 몸통이 거칠고 건조하며, 팔다리의 바깥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기에는 얼굴보다는 오히려 팔다리의 접히는 부분, 목의 접히는 부위에 생기며 건조한 습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동양인에게는 십대 이후에 잘 낫지 않는 심한 유두 부위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호전된 후에도 특정 물질이나 자극에 의해 쉽게 가렵거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성인기에 손 습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인기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남는 경우에는 몸의 피부 증상은 호전되는 반면 얼굴에 홍반과 홍조 및 습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접히는 부위는 오랫동안 긁어 피부가 두껍게 보이는 태선화 피부가 나타난다.

성인기라도 만성 습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 습진 위에 진물과 딱지가 앉는 급성 병변이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난다.

본 지면의 내용은 현대불교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 사모곡, 참회곡, 예불천수경, 회심곡, 백발가, 장엄염불 (시판중)
■ 교육과목 :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 작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 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 문의전화 : ☎ (053) 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 다라니에 담아

## 고판화 박물관 '판화로 보는 아시아 부적의 세계' 展

### 唐 '범문 다라니 경주' 공개
### '미륵보살' 왕생 발원 실어
### 한·중·일·티베트 등 부적 및 목판
### 2월 15일 부터 100여 점 전시

설을 앞두고 다라니는 물론 아시아의 부적과 판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2월 15일~5월 10일 '소원성취의 길- 판화로 보는 아시아 부적의 세계' 전을 연다.

이 전시에는 대중들의 간절한 바람을 판각 문화로 승화시킨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등의 부적 목판, 인출판화, 서책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해성 사비관음 불상과 함께 팔찌 속에서 출토된 '범문 다라니 경주' 는 주목된다. 당나라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범문 다라니 경주(梵文 陀羅尼 經) 중심에는 묵서가 쓰여 있는데, '제자 고○○는 도솔천궁에 태어나 미륵보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고대에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왕생극락을 발원하고자 팔찌(비천臂釧)에 다라니를 넣어, 시신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다라니 묵서를 쓴 발원자는 미륵보살로 태어나 중생구제를 발원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불자이기보다는 스님이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는 고대 스님들의 간절한 발원이 생생히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한다.

이에 고판화박물관은 5월 15일 개최하는 '6회 고판화 국제 학술대회' 에서 서지학과 고판화에 권위 있는 세계 학자인 고바야시 교수(일본 소피아대), 남권희 교수(경북대)와 중국학자들을 초대해 범어 다라니를 조사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라니가 들어 있는 은제 '경통과 경갑' (고려시대)도 소개된다. 한선학 관장은 "고려시대에는 경통을 만들어 땅속에 묻고 경총(經塚)을 만들었던 풍습이 있다. 여기에는 미륵이 출현할 때까지 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발원이 담겼다. 높이 2.4cm · 너비 1.2cm · 두께 0.6cm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경통에 다라니를 넣었는데 이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불교와 도교에 민간신앙이 결합된 조선시대 다라니에는 국한문 혼용 문자와 범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죽은 넋을 제도(濟度)하고 재난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는 '태을구고천존(동극청화대제)' 의 '동극청화구룡부 천관사복' 목판과 인출판화도 소개된다.

한국 대표 민간 부적으로 인간의 모든 액을 소멸하고 만복이 깃들게 한다는 '백살소멸만복부' 과 삼재부, 산신을 상징하는 호랑이 부적인 금란장구부와 산신부도 전시된다. 일본의 삼다라니 목판, 티베트 몽골 네팔 부적으로는 길상다라니 목판 등이 선보이며 '타르초' 20여 점이 소개된다. '풍마' 라 불리는 이 기도깃발은 티베트 몽골 네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바람이 소원을 실고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전해준다는 전설이 담겼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대중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부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 모두 마음의 위안을 얻어 새롭게 도약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033) 761-7885







① 당나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범문 다라니 경주'
② 다라니의 묵서로 '제자 고○○는 도솔천궁에 태어나 미륵보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다라니가 들어 있는 고려시대 은제 '경통과 경갑'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변상도 사불하며 부처님 마음 닮아가요

## 해인사 〈그림으로 만나는…〉 출간

###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 컬러링북으로 활용 마음공부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며 마음공부할 수 있는 컬러링북이 출간돼 주목된다. 해인사출판부가 화엄경변상도 80장의 인경본을 〈그림으로 만나는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로 내놓았다.

컬러링북이 베스트셀러 1위로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인사출판부가 불교의 변상도를 컬러링북으로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이 책은 불자들에게는 사불을 통한 수행을, 일반인들에게는 컬러링북으로 활용돼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예정이다.

해인사출판부는 "사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 수행 중 하나다. 의식적으로 한군데 집중을 하면 생각이 끊어져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선을 따라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순간 오롯이 집중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망상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도록 하는 연습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며 부처님을 닮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도 있어 여러 방면에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170매로 구성된 책은 왼쪽 편에는 변상도 작품을 배치하고 오른쪽 편에는 변상도 원본을 실어 독자들이 사불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변상도 각 장의 하단에는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놓았는데 이는 화엄경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첫 번째 장에는 화엄경 80변상도의 원본을 축소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인사출판부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206호인 고려대장경 중 사간판전에 봉안된 화엄경 변상도 80장을 소장하는 가치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서점과 해인사출판부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는 60,000원이다. (055)934-3111

정혜숙 기자




〈그림으로 만나는 대방광불 화엄경〉 내지. 왼쪽은 변상도 작품을 오른쪽에는 원본을 실어 사불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변상도 하단에는 간략한 설명도 덧붙여 놓았다.

# 원각사지 중심으로 조선 변혁의 바람이 불다

## 서울역사박물관 '탑골에서 부는 바람' 展… 3월 29일까지

### 18세기 북학파 백탑파 형성
### 대표작 〈북학의〉〈열하일기〉등 공개
### 원각사지 석탑 묘사 '탑동연첩' 눈길

원각사지10층석탑이 우뚝 선 탑골공원, 지금은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이곳은 18세기 조선에 변화를 몰고 온 '백탑파' 의 근원지였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1월 9일~3월 29일 역사문화특별전 '탑골에서 부는 바람' 을 열고, 조선 변혁을 이끈 '백탑파' 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탑파의 대표작 박제가 〈북학의〉, 박지원〈열하일기〉 외 북학파 관련 자료 및 이덕무 · 박제가 · 유득공 · 이서구의 시를 담은 〈한객건연집〉, 유득공의 18세기 한양의 세시풍속지〈경도잡지〉 등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탑동연첩' 은 백탑파의 근원지 '탑골' 의 원각사지10층석탑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국보2호로 지정돼 있는 원각사지10층석탑은 조선 도성 한복판에서 당당히 자태를 뽐내던 탑이었다. 그 탑을 배경으로 연암 박지원을 비롯하여 18세기 북학파 지식인들이 이웃해 살며 '백탑파' 를 형성하였다.

백탑파는 탑골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서상수 등과 남산 자락에 살면서 이들과 교유하였던 홍대용, 박제가, 백동수로 대표된다. 이들은 당시 지배이념으로써 관념적 학문인 주자의 학설을 좇는 것을 거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용후생의 학문을 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청의 신문물을 수용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전시회에서는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백탑파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이 지은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가 최초로 대규모 공개된다. 박물관 측은 성시전도시에 대해 "백성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북학파 실학자들의 시각으로 노래한 작품"이라며 "역동적인 한양의 모습을 생생히 포착하였을 뿐 아니라 왕도(王都)의 모습도 대규모로 조감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물관은 북학파 실학자의 사상과 교유와 관계된 약 300점의 유물을 전시, 이와 관련 주요자료를 e-book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02)724-0274



백탑파의 근원지였던 탑골을 묘사한 '탑동 연첩'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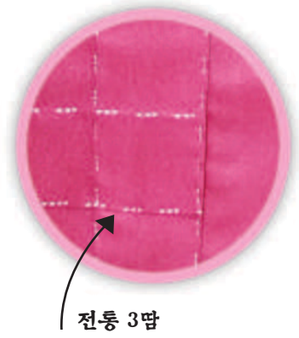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전통 3땁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문화

# 초월적 존재 '로봇 붓다'의 탄생
# 예술과 과학 만나 역동 美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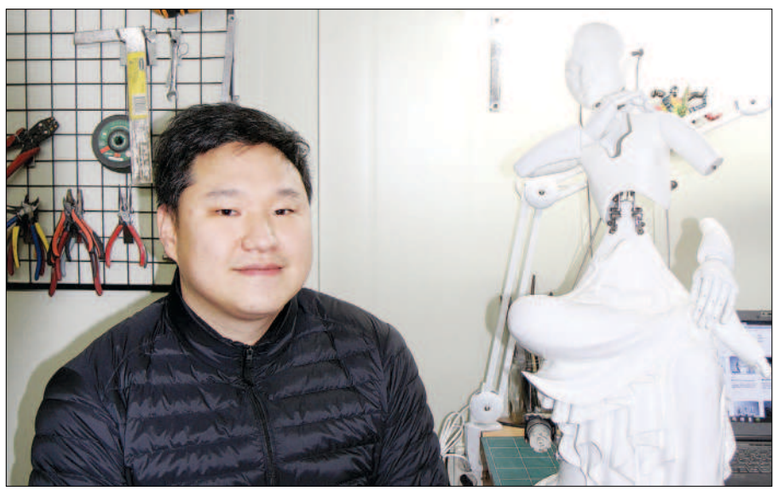
## 왕지원 조각가

왕지원 작가의 작업실은 문래동 예술촌에 위치해 있다. 온갖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는 그의 작업실에는 흡사 공구 가게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톱니바퀴를 이어붙이고 우레탄 재질의 고무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전기를 연결시켜 동작을 완성해내는 그의 작업은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총체적 예술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가사유상 비천상 천수천안관음상 등의 불상이 있었다.

왕지원(36) 작가의 작품은 전기와 연결시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불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팔을 움직이며 눈을 깜박이기도 한다. 불상이지만 로봇이고 로봇이면서 불상인 이 작품에는 '초월성'을 지닌 존재 붓다가 있다. 왕지원 작가는 올해 붓다아트페스티벌(3월 12일~15일) '현대미술로 보는 붓다의 지혜' 기획전에 참여, '붓다-Z'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2월 11일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우선 그가 이런 작품을 만든 배경이 궁금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는 로봇 불상을 만들게 한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아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후 중학교 때 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술고를 가게 됐죠.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의수 의족을 해야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온갖 생각이 들었는데, 움직임이 힘든 제 자신을 기계화해 로봇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죠."

2007년 인사동 성보갤러리에서 자신의 신체와 사이즈가 같은 로봇 형상을 처음 만들어 전시하게 된다. 그때 누군가가 작품 앞에 절을 하는 광경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듯한 충격을 받는다. "그때 초월적 존재의 붓다를 작품에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은 이 붓다와 기계문명의 상징 로봇의 결합이죠. 반가사유상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왕지원 작가는 전기와 연결시켜 움직임을 만들어낸 반가사유상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톱니바퀴와 우레탄 재질 소재로 움직이는 붓다 형상 완성해 내 붓다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로도**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불교미술을 공부하며 작가 나름의 상상력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많은 종교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있는데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불교는 늘 관심 분야였고 이런 정신을 작품에 투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의 작품은 국내는 물론 네덜란드 중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왕 씨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가 되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기계 문명의 이기에 대해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계 문명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안에서 제 작품을 통해 기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현실을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작가는 시계 부속품을 활용한 만다라로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만다라가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었으면 한다고. 내년 3월 영국 전시도 계획중이다.

한편, 붓다아트페스티벌은 기획전 '현대미술로 보는 붓다의 지혜' 초대 작가와 평론가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2월 11일에는 왕지원 작가와의 만남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명법 스님, 양효실(서울대 미학과 강사), 이빛나(미술 비평가) 씨 등 세 명의 평론가들이 함께하며 신성과 모독 그 경계의 선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즐거운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왕지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수천안 관음을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이 작품에는 중생을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이 실려 있다.


붓다아트페스티벌 측이 주최한 작가와 평론가와의 만남. 왕 작가의 문래동 작업실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욕망 향해 질주하던 한 남자의 참회

## SBS 드라마 '펀치'

남자는 검사다. 약자를 보살피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다. 국가가 부여한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데 한 치의 가책도 없으며, 흔쾌히 권력의 충견이 된다. 너무도 가난했기에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대 수석으로 학교를 다녔고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 검사가 되었다.

보상 받고 싶었다. 가난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자식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그의 비리는 당당했다. 아니 당연했다. 그러던 어느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남은 시간은 6개월. 맹목적으로 달리던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다.

드라마 펀치는 한 남자의 참회에 관한 이야기다. 물론 그 참회는 단순하지 않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은 큰 흉터를 남겼고 그 흉터를 드러내 수술하기에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엮여 있다.

드라마 초반은 박정환(김래원)과 신하경(김아중 분)을 중심에 두고 벌이는 선악 구도인듯 했다. 선을 대변하는 신하경 뒤에는 법무부 장관 윤지숙(최명길 분)이 있었고 악을 대변하는 박정환 뒤에는 검찰총장 이태준(조재현)이 있었다.

드러내놓고 욕망을 탐하는 조재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조계의 희망으로 상징되는 윤지숙은 '법은 하나야 너한테도 나한테도' 라며 법의 정의 실현을 외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인도 악인도 없다. 모든 경계가 무너져버린다. 윤지숙과 이태준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치고 박고 싸우는 적이 되고 때로는 모종의 거래를 통해 아군이 된다. 한 순간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 숨 막히게 쫓고 쫓기며 역전에 역전이 거듭된다.



드라마 펀치는 권력의 달콤함과 허망함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돌아보게 한다.

〈빈두설경(賓頭說經)〉에 나오는 '흰쥐와 검정 쥐' 이야기는 욕망의 달콤함에 도취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풀어놓았다. 한 남자가 큰 광야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 한 마리를 만났다. 너무 놀라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도망쳐 가다가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쪽으로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는 또한번 놀라게 된다. 우물 네 구석에서는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널름거리고 우물 한복판에는 무서운 독룡이 독기를 내뿜고 있었다. 위에서는 미친 코끼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밑에서는 용과 뱀이 함께 혀를 널름거리니 오도 가도 못한 남자는 오직 하나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그 등나무 넝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게 웬일인가? 등나무 넝쿨을 흰 쥐와 검정 쥐가 서로 번갈아 가며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위를 보니 나무의 벌집에서 몇방울의 꿀이 떨어져 그의 입으로 똑똑 떨어지니 모든 것을 다 잊고 행복에 도취되고 만다. 그러는 동안 대지에는 난데없이 불이 나 사방이 모두 불타버렸다.

**권력의 달콤함 쫓는 위정자들 적도 동지도 없는 아비규환의 세계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은 주인공 참회하며 욕망의 순환 고리 끊고자**

'권력' 이라는 달콤한 꿀 몇 방울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드라마 속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보는 듯하다. 주인공 박정환은 죽음에 직면해 이제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딸이 살아갈 세상은 정의로워지기를 기원한다. 딸 예린이와 함께 바닷가 여행을 온 박정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 미워하면 예린이가 힘들어. 할아버지 사진 봤지? 아빠도 할아버지 미워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아빠가 바보 같았다.아빠 미워하지도 말고, 아빠 닮지도 말고, 아빠 가고 나면 우리 예린이는 엄마처럼 살아. 알았지?"

아버지가 물려준 가난의 업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던 남자는 또 다른 업을 만들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의 질주는 멈추었다. 남자는 진정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말한다. "인생에 정답이 있나? 선택만 있을 뿐이지. 난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 이제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번에 택한 그의 선택이 또다른 업으로 남지 말기를, 욕망의 순환 고리 그 고통의 윤회에서 자유로워지길.

정혜숙 기자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적하수오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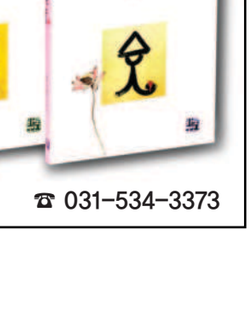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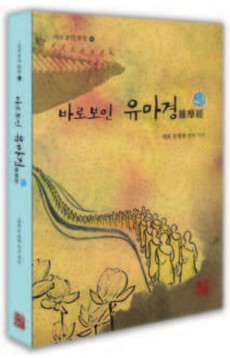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 ~ 2/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지금 여기 깨어있기 | 법륜스님 | 정토 |
| 2 | 인생수업 | 법륜스님 | 휴 |
| 3 |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 주경스님 | 마음의숲 |
| 4 |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이일야 | 담앤북스 |
| 5 |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 원철스님 | 불광출판사 |
| 6 |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 Carlton Books | 담앤북스 |
| 7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8 |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 모과나무 |
| 9 | 낭송 선어록 | 문성환 | 북드라망 |
| 10 | 범망경보살계본휘해 | 이원정,목정배 | 운주사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어둠에 가려진 조선불교의 속살 파헤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이봉춘 지음**
**민족사 펴냄**
**4만 3천원**

한국불교사에서 억불정책을 썼던 조선 불교는 여전히 어둠으로 존재한다. 역사에서의 불편한 기억들 때문이다. 정치로부터 한결같이 강제된 피지배적 상황, 인적 물적 억압과 종교적 침체 등 이 시대 불교 경험들 대부분은 우울하다. 이런 기억들을 되짚는 일이 편할 리 없다. 조선불교의 역사는 불교가 꽃피웠던 신라나 국교 지위를 누린 고려와 대비되면서, 그 쇠락상이 더욱 부각됐다. 어쨌든,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서 조선불교가 소외된 배경은 이런 사정들과 무관치 않다. 저자가 바로 불교공부를 하며 조선불교에 천착한 이유도 매한가지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인기 없는 조선불교를 마음에 두고 숙제로 삼아 온 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다. 조선불교는 처음에 상식과 선입견 수준 그대로 어둠 짙은 한 시대의 역사로만 읽혀졌다. 하지만, 점차 조선불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쉽게 간과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찍이 경험못한 5백 여년의 역경을 겪으면서도 불교의 생명력을 유지한 이 시대 불교인들의 의지와, 고난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 노력들이 특히 그렇다"고 술회한다. 이어 저자는 "기존 시각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조선불교를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듯한 인식은 타당한 것이며, 또 다른 면모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진행한 조선불교의 탐구와 천착이 큰 기쁨이고 사명이었다"며 "책에 실은 글들은 그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재정리 한 것으로, 조선불교 실상을 규명하고자 한 출발 시점의 본래 의도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자위를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 책은 통사적 입장서 조선시대 불교사를 연구했다. 조선시대 불교사는 신라, 고려 불교사에 비해 우울한 모습이 많다. 불교는 조선시대 내내 억압 대상 1호이자 비판 대상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적 물적 억압과 종교적 침체, 그리고 교학적 사상적인 쇠퇴가 수반됐다. 불교인들의 생존방식 또한 힘겨웠다.

억불 배경에 대해 저자는 이 책에서 "대체로 신왕조의 억불 의지는 승니 태척과 같은 강력한 건의 등에서 보듯 방향은 뚜렷했지만 그것이 모두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개국 초 급격한 억불이 시행될 여건이 아직 성숙치 못한 이유 외에도 태조 자신의 신불성향 및 대불 자세가 그들과는 같지 않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태조도 불교의 유폐 시정 등 타당한 건의는 조정 유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서 유신들은 내심 억불의 지를 강화해 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비참하기 까지한 구체적인 불교 탄압의 예도 저자는 소개한다. "세조대부터의 고승으로, 세조 사거 후에도 특히 자성 · 인수 양대비를 도와 사찰중수와 불전 국역간행 등 불사를 도운 학조(學祖)의 머리를 부채로 때려 피가 흐르게 한 유생도 있었다. 또한 종친들과 가까이하며 불사를 대설한 그를 주벌해 불교의 근본을 끊자는 상소가 계속됐다. 또 성종 24년 3월에는 유생들이 재궁의 법당에 들어가 불경을 훔치고 불상을 훼손하고 승려를 붙잡아 난타하며 도첩을 빼앗는 폭행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유생들의 이 같은 횡포가 국가의 배불정책과는 직접 관계가 없었지만, 이는 당시 배불의 한 경향과 분위기를 방증했다"고 밝혔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부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불 · 유교대의 배경과 초기 불교정책

불교와 유교가 교대하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먼저 주목한 바는 고려 후기 불교 특히 그 말기 불교의 현실들이다. 이를 불유 교대(交代),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시작한 숭유억불정책의 내적 요인으로 봤다. 억불과 배불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불교 자체에 있다고 본 인과론적 관점의 이해이다. 그 밖에 성리학 전래에 따른 고려 후기의 사상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신흥사대부 계층의 배불여론과 기세를 그 외적 요인으로 파악했다. 불유 교대(交代)의 작업은 이 같은 배경 아래서 새 왕조의 혁신정치와 함께 가시화한다. 태조대의 견해가 엇갈리는 탐색단계를 거쳐, 태종대에 본격적인 배불을 단행하고, 다시 세종대에는 그것이 더욱 강경하게 이어져 간다.

### 배불의 강호와 고착

조선의 유교국가 체제는 태종대에서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성종 · 중종 대를 거치는 동안 완벽을 기해 간 배불정책과 그 결론적인 불교의 현실상황을 밝힌 것이다. 조선조 배불의 전체 맥락에서 살필 때 태종 · 세종 대에는 불교의 경제적 억압과 인적 조직의 해체가 중심관제였다. 이에 비해 성종 대에는 불교의 기반적인 국가제도와 전통적인 각 종 불교 유습(遺習)의 제거가 강행되고, 연산군은 그나마 정책의 원칙과도 무관하게 아예 우발적이라 할 파불(破佛)을 자행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중종대의 폐불 정책으로 이어짐으로써 조선 전기에 이미 배불의 윤곽을 거의 확정짓고 있다. 이 같은 배불의 강화 및 그 상태의 고착은 유교국가 체제가 구축 · 완성되는 것과 궤를 함께 한다.

### 흥불정책과 교단의 자립활동

불교 억압과 배척 시대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흥불의 흐름이 엄연히 존재했다. 이는 특히 조선 전기 중에 몇몇 숭불주의 의욕적인 불교정책과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조선조 전시대에 걸친 지도적 고승을 비롯한 교단 구성원들의 활동과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앙과 의례를 통해 불교의 저변 세력을 형성해 간 일반 대중의 변함없는 지지 역시 중요한 흥불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불교 전반을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시대 불교의 실체 파악을 가로막고 자칫 불교인들을 자조감과 패배의식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흥불과 교단 유지를 위한 조선불교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끈질긴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조선불교의 인물과 사상

유난히 고난 깊던 조선불교에서도 이런 사실은 예외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선두에서 고뇌한 불교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과 사상을 조명했다. 이들의 사상은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의 지표가 되고, 호법 · 흥법 활동 기반으로 작용했다. 선초불교계의 자존심이라 할 만한 지성으로서 그 시대에 빛을 발한 자초와 기화, 스러진 불교를 앞장서 다시 세우고 순교한 보우, 출세간과 세간의 지도자 유정, 배불의 부당성을 국왕에게 직접 상소한 처능, 그리고 근세 선문의 중흥조 경허의 사상들은 한결같이 불교 지도자다운 깊이와 품격을 느끼게 한다. 이들 고승 외에 효령대군에게서는 신불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담당해 간 불교외호자의 한 전형을 엿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봉춘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동 대학원장,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원효학 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불교학회 이사 및 동국대 명예교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있다.

# 붓다의 땅에서 만난 인간 부처의 원형



**성지에서 쓴 편지**
**호진 지안 지음**
**불광 펴냄**
**1만 5천원**

편지글은 언제 다시 읽어봐도 새롭다. 시절인연에 따라 빛바랜 추억의 강도가 프리즘처럼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0년 나온 〈성지에서 쓴 편지〉는 더더욱 그렇다. 성지에서 주고받은 수행자들의 단상과 깨달음이 오롯이 녹아 있어서다.

지난 2008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호진 스님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67세)에 인간 부처의 원형을 찾아 인도로 떠난다. 그리고 스님은 1년 동안 1,600리 길을 순례하며 前 종립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과 서신을 주고받는다. 이 책은 그 편지글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두 스님의 대화속에는 어떠한 미사여구도 등장치 않지만, 몸소 체험한 진실적 이야기라는 점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미리 유서까지 쓰고 죽을 각오로 길을 떠난 수행승의 고독과 고난, 진실을 갈망하는 두 학자 스님의 끝없는 탐구심은 출간 당시 큰 화제를 일으켰으나, 책은 여러 사정으로 절판되었다. 그러는 동안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들이 늘면서, 새로운 숨결로 다시 태어났다.

### 1년동안 1,600리길 순례 역정 담겨
### 서신 통해 전해진 두 학자의 학문 열정

호진 스님은 서문에서 "초기불교가 불교의 뿌리라면 대승불교는 꽃이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나와 지안 스님은 연구 분야와 방법이 다르다. 나는 초기불교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안 스님은 대승불교를 전통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같은 불교 연구이지만 붓다와 교리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갖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내용을 한 곳에 묶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다"고 출간 동기를 밝힌다.

호진 스님은 신화와 전설에 가려 비역사적 인물로 묘사되는 부처님의 실제 모습과 근본 가르침을 밝히는 데서 새로운 붓다상을 찾고자 했다. 껍데기는 벗겨내고 알맹이를 드러내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며 연구 노트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역사적인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신화와 전설을 제거해야 한다. 나의 공격 목표는 신화와 전설이다."

한편 지안 스님은 순수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지나친 선전과 방편 연구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성찰해 순수한 구도자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분별심을 버려 종파를 극복하고, 과거에 안주하기보다 끊임없이 거듭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불교 상을 찾는 두 스님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과정에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책이다.

호진 스님은 초전법륜의 길(보드가야–사르나트) 278km, 열반의 길(라즈기르–꾸시나가라) 353km를 두 발로 걸었다. 그 옛날 부처님이 걸었을 길을 고스란히 따른 것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부처님의 참모습을 되살려내고, 불교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다. 50도에 육박하는 한낮의 열기도, 부서질 듯 파고드는 다리의 통증도 스님을 멈추지 못했다. 오히려 몸의 고통은 부처님이 겪었을 그것과 대비되어 스님의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렇듯 고행에 가까운 순례를 가리켜 지안 스님은 순교자적 순례, 살을 에는 고통 속에 탄생하는 전복 속 진주에 비유한다. 더불어 먼 곳에서 외롭게 사투를 벌이는 도반 스님에게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는 스님의 마음에도 다시금 열정의 불이 지펴진다.

이 책은 호진 스님이 순례 과정에서 체험하고 사색한 내용과 이에 대한 지안 스님의 답문으로 이뤄진다. 전체적인 구성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그려지는 두 스님의 모습은 입체적이다. 특정 주제에 관해 상반된 견해로 대립할 때면, 각자가 지닌 학자로서의 열정과 고집이 드러나는 반면,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리움을 전할 때는 진한 우정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서로를 둘도 없는 의지처이자 자극제로 삼아 살아가는 두 도반 스님의 다채로운 모습을 엿보는 것 또한,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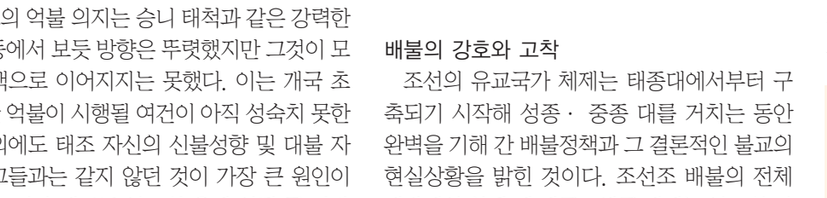
아무리 걸어도 2,600년 전 부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 그 사실을 호진 스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처님 곁에 다가서고 싶은 소망이 스님을 붓다의 땅으로 이끌었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로 가는 동안 스님은 잠시도 한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비 내리는 밤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모기떼에 쫓겨 잠 못 이루던 밤 나무 아래서, 긴긴 밤을 홀로 외롭게 지새웠을 부처님을 생각했다. 마침내 사르나트에 도착했을 때 흘렸던 눈물은 끝내 닿지 못할 부처님을 향한 그리움이었는지 모른다.

호진 스님은 부처님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고뇌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적이어서 존경스럽고,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그의 삶을 동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 좇는다고 스님은 말했다.

김주일 기자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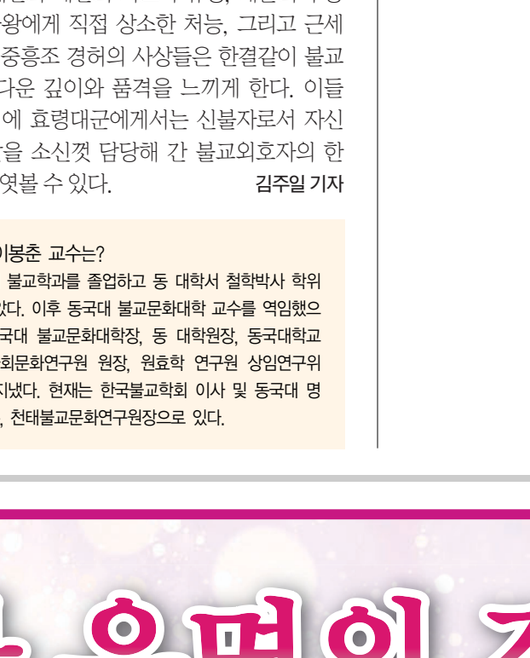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문부 • 천신통령부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링타리스만부적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 • 희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분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 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 밥값 하며 당당하고 인간답게 살려면?

## 밥값 했는가

**불교신문 · 불광 공동기획 | 불광 펴냄 | 1만 2천원**



우리가 스님들의 감로법문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괴로운 삶에서 위안받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고민들을 숙명처럼 안고 산다.

돈, 마음의 상처, 사람사이의 갈등 등등. 이런 이유에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 또 어느 하나가 해결되더라도 금세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워 여전히 삶은 힘겹다. 그래서 법회때면 이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다. 꼭 고민이 없더라도 우리는 법문을 꾸준히 들어야 한다. 법문이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게 해 괴로움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일러주어서이다.

이 책에는 우리 시대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열여덟 분 스님의 법문을 한데 모았다. 법문은 한자로 '法文'이 아니라, '法門'이다. 법(法), 즉 진리로 들어가는 문(門)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진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밝히는 법문을 통해, 그토록 우리를 괴롭혀왔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매년 명법문을 가려 뽑아 한 권으로 묶어온 '기억에 남는 명법문' 시리즈 여섯 번째이다. 前 조계종 원로의원 의장 도원 스님(대구 파계사 조실)을 비롯해, 수행과 전법 현장서 가르침을 베풀며 몸소 실천하는 열여덟분의 생생한 법문이 지상(紙上)에 펼쳐진다. 이 감로법문들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괴로우며, 행복과 자유의 길은 정녕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의문들이 우리 시대 수행자들의 육성을 타고 눈 녹듯이 풀어진다. 올곧게 수행 생활을 이어온 수행자는 생로병사, 즉 인생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하여 법문으로 풀어내기에, 그 가르침은 절절하게 다가와 우리 삶을 바꾸는 희망으로 작용한다. 탈출구가 필요해 여행도 떠나보고 템플스테이에도 참여해 본다. 하지만 그때뿐, 여전히 삶은 녹록치 않고 마음은 쉬어지지 않는다.

**18명 스님들 명법문 실어**
**진정한 삶의 해법 제시**
**"삶의 본질 꿰뚫어야 번뇌 소멸"**

왜일까? 삶의 핵심, 즉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만든 상(相)에 갇혀, 자신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바닷물을 가져와도 그 맛이 짜듯, 인생의 어느 문제를 가져와도 불법의 이치에 대입해보면 모두 해결된다. 본질을 꿰뚫어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 개인의 문제 해결은 물론, 이웃의 짐도 들어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책은 평생 수행과 전법에 전념한 도원 · 성타 · 월주 · 혜총 · 고우 · 대원 스님 등 어른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 백양사 · 조계사 주지스님 등 대중과 빈번히 소통하는 우리 시대 스님들이 불법의 이치를 깨치도록 설명한 법문집이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었어도 현실서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지로 인해 이미 오랫동안 습관화돼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심이 일어나고 그대로 행동해버린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정진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책속의 밑줄 긋기 – 스님들 주요 법문 모음 (책 편집 순)

참깨달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비를 구현할 때에야 이뤄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가령 사랑이란 단어엔 증오라는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나 자비에는 반대말이 없어요. 사바세계의 중생이 진정 목말라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의 반대어로서의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반대어도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자비라는 광명체입니다. 〈성타 스님〉

깨달음은 경전 속 글귀만이 아니라 고통받고 설움받는 이웃의 신음과 탄식 속에도 있어요. 자비는 타인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자(慈)와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는 비(悲)가 합쳐진 것이지요. 타인의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자비 실천은 깨달음을 얻는 좋은 방편입니다. 〈월주 스님〉

시골에서 새끼 보셨죠? 가마니 보셨죠? 그 둘은 서로 다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의 재료는 뭡니까? 짚이죠. 제가 강조하는 본질, 즉 '무아 · 공의' 핵심은 '짚'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티격태격할 수밖에요. 하지만 두 제품도 '짚'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 공'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수백 가지 제품이 있지만, 재료는 모두 똑같은 '짚'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고우 스님〉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실을 살면 끊임없이 문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모든 곳에서 항상 시비분별과 불협화음의 고뇌 속에 살게 됩니다. 고통과 근심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된 사람이 기업가, 정치가, 학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극락세계와 다름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원 스님〉

우리의 눈, 귀, 코, 입은 늘 밖을 향해 있어요. 반조는 이들을 안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밖의 사물에 끄달리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회광반조(廻光返照)야말로 참선 수행의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다졌을 때 수행은 급진전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반조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혜거 스님〉

생명의 실상인 본래면목, 마하반야바라밀,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 맑고 밝아 한없이 자비롭고 활력이 넘치고 무한한 지혜가 원만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하반야바라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 마음에 어둠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지나갑니다. 항상 맑고 밝고 활기차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모습이 바라밀 행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환 스님〉

이 세계는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서로 끊임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일러주는 스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노래 속에서, 내가 쉬이 듣고 깨친다면 그 아이가 스승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아이에게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바로 법을 구하는 선재 동자입니다. 〈종훈 스님〉

부처님께서는 인과(因果)란 한 치의 오차 없이 분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살다보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먹고 사는 이들을 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 업(業)의 씨앗이 영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 언제든 그 과보는 받게 됩니다. 〈무상 스님〉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들, 탁한 부분들을 맑게 해 마음을 밝힘으로써 업장이 맑아지게 되는 수행입니다. 업장은 업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그 장애가 맑아지니 그동안 장애에 의해 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전보다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님이 스스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원명 스님〉

'일꾼은 공부를 해도 일 삼아 공부를 하고, 공부꾼은 일을 해도 공부 삼아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수행자에게는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까지도 공부여야 합니다. 공부가 따로 있고 자기의 삶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이 오면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배고프면 오히려 불식(不食)도 하고 일종식(一種食)도 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현 스님〉

가까운 사람을 절에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출가 전에 동생과 친구를 포교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래도록 힘들게 설득해 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내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형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뭐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하게 됐습니다. 포교는 남을 교화하면서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경 스님〉

마음을 닦는 이유는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밝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대자유인,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남편은 이랬고 누구 자식은 저랬다는 이야기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도를 닦는 것일 뿐입니다. 〈무각 스님〉

# 사건과 인물로 쓴 인도불교 흥망성쇠

## 인도 그리고 불교

**김치온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2만원**



저자는 〈인도 그리고 불교〉에서 석존 이전부터 시작해서 석존의 출가와 성도, 전도와 열반, 교단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경전의 내용에 따라 살피고, 대승불교가 일어나 전개되는 과정들 또한 경전의 내용들을 살펴가며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그 동안 진각종 기관지인 밀교신문에 연재한 것이다. 저자가 연재 결정이 되었을 때, 인도불교 전반에 걸쳐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보자고 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인도불교사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교리적인 내용들을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사실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과 인물들의 정황 그리고 교리적인 배경 등은 알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 착안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후 관계와 배경 등을 경전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불교내에 밀교의 흐름을 포착하고 점차 밀교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힌두교적인 내용과 결합해 전면에 부각되면서 그와 함께 인도에서 불교와 함께 쇠퇴해가는 것도 고찰했다.

인도문화사에서 불교의 탄생은 인류의 삶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과 실체성을 지닌 몇몇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주된 흐름인 상황에서, 실체성을 지닌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관점서 일체는 상의상관적인 관계성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연성연기의 세계관은 위대한 깨달음이었다. 붓다는 최초로 사성제를 설해 안냐따 꼰단냐가 연기를 보는 눈(法眼淨)을 얻었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꼰단냐는 깨달았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오온 무아를 설해 그들이 무아 즉 공(空)을 체득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법안정과 공의 체득이라 할 수 있다. 대승불교와 밀교는 연기법을 통해 무아를 체득하고 고해에 빠진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수한 방편을 지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인도에서 쇠퇴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계를 지키고자 하는 수행자와 생활속에서 주어진 계를 지키려는 교도들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종교의 생명력은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청정한 마음에 달려 있다. 진정한 해탈은 지혜에 청정한 자비가 함께할 때이며, 지혜에 자비를 빙자한 탐욕이나 방편을 빙자한 탐욕이 포함한다면 이것은 민중을 속이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라며 "인도불교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은 물론 불교가 점차 일어나는 서구 사회에서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준다"며 "그러한 점에서 인도사회서 불교가 탄생한 배경과 인도불교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인물들의 정황 그리고 교리적인 변천 과정들은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 경계 물들지 않는 마음 詩로 승화

## 만사가 봄빛이어라

**김하리 지음 | 퍼플 펴냄 | 7600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공(空)/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한없이 길기도 하고 점조차 없는 것"(空 중에서)**

1990년 문단에 데뷔한 김하리 시인은 불명이 진여정(眞如淨)으로 독실한 불자다. 그동안 11권의 시집과 수필집, 심리학 책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시작한 이 책의 저자 김 시인은 음성 포교를 위해 불교 시(詩)와 찬불가 보급에도 앞장서 왔다.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 독송 CD가 그 결과물들이다. 또한 2014년에는 한글법화경 CD를 6개월에 걸쳐 제작하기도 했다.

불교시집은 2006년 '여여하니 여여하다'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 서문에 "찰나를 깨치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 생각 깨치면 중생이 부처다라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며 "만사가 봄빛 이라는 말처럼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불법과 부처님 자비심을 시(詩)와 음성포교로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책은 총 4부에 걸쳐 주제별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여편의 불교시가 수록돼 있다. **김주일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세상의 이치 이해하고 인생의 길을 찾다

## 불교로 읽는 古典

### 유교 경전 〈주역〉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장아함 가운데 〈사문과경〉에는 불교의 사문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온다. 그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이 점치는 일 등의, 세간에서 미신이라 부르는 것들을 불교의 사문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된다. 그렇게 부처님이 불교의 출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한 것들을 하는 스님들이 현실에 꽤 많다는 것에 새삼 당혹스럽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변명하면 합리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생뚱맞은 생각이 떠오른다. 부처님이 〈주역(周易)〉을 아셨다면, 그 〈주역〉에 의해 치는 점도 금지를 시키셨을까?

〈주역〉이 점치는 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점치는 책을 넘어선, 한자문화권의 형이상학과 우주론 등 철학의 근본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은 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가 〈주역〉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겠는가?

〈주역〉의 계사전에 "주역에 태극의 원리가 있으니,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고, 팔괘가 길흉을 결정하고, 길흉을 잘 판단함에 의해 큰 업적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태극기인 것이다.

만약 〈주역〉을 미신으로 돌린다면 그 원리를 도상화하여 국기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신 공화국이 될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역〉의 철학과 원리는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한 점복은 배척하면 될까? 그것도 그리 쉽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점법이라는 성격을 떠나서 〈주역〉의 철학과 원리가 홀로 존재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의 체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보자. 〈주역〉은 점서임에 분명하다. 중국 주 왕조의 역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夏)왕조의 역법으로 연산역이라는 것이, 은(殷)왕조의 역법으로 귀장역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구성을 보면 64개의 괘(卦)라는 것에 베풀어진 점사(占辭)들의 집합인 경과, 주역의 원리를 부연한 십익(十翼)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앞에 들었던, 십익의 하나인 계사전의 말에 따르면 〈주역〉의 근본원리는 태극이다. 그러나 태극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정말 근본의 근본에 해당한다. 점치는 방법에서도 태극은 상징적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리고 이 태극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음과 양이 조화되면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태극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양의(兩儀)이고, 일반적으로 이 양의는 음양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 들어오고, 〈주역〉이라는 책 속에 나타나는 〈주역〉의 근본 원리는 양과 음이라는 두 부호이다. 양이라고 불려지는 부호인 '–' 과 음이라고 불려지는 부호인 '– –'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괘로서 인생과 우주 자연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또 그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주역〉이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부호, '– –' '–' 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들을 세 개씩 겹친 여덟 개의 부호를 만들어 낸다. 이른바 팔괘이다.(☰乾☱兌☲離☳震☴巽☵坎☶艮☷坤) 그런 다음 이 팔괘를 다시 두 개를 겹쳐 64개의 부호 체계를 만들어 낸다. 이것이 64괘이다. 이 64개의 괘를 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모든 일들을 점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정연한 점법은 없다.

그리고 〈주역〉의 체계 속에는 점법 이상의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점이란 본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그로부터 어떤 행동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부호들은 각각 거기에 어떤 사물이나 성질, 사태 등을 걸 수 있는 괘(卦)이다.

기본 부호인 –과 – –에는 각각 강건함:유순함, 남성적:여성적, 밝음:어두움 등의 성질이 대입될 수 있다. 팔괘로 전개되면 좀더 구체적인 사물들이 대입될 수 있다. ☰에는 임금, 말, 머리, 하늘, 아버지 등이 대입될 수 있다. ☷에는 신하, 소, 배(腹), 땅, 어머니 등이 대입될 수 있다. 64괘로 전개되면 좀더 복잡한 사태까지도 거기에 대입되어 풀이될 수 있다.

☷ 옆의 괘는 지천태(地天泰)라고 이름하는데 이☰ 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괘이다. 그리고 이 괘는 스스로를 낮추는 하늘의 마음과 하늘을 받드는 땅의 마음이 드러난 괘로 풀이되며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감으로 만물이 창통하는 형세를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풀이된다.

☰ 천지비(天地否)라는 괘는 하늘은 스스로 자기☷ 를 높이고 땅은 하늘을 받들지 않아 만물의 생성이 단절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풀이된다.

주역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준뒤 이 두개의 괘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괘냐고 물어보면 거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괘, 즉 천지비괘를 선택한다. 그렇지만 주역의 해석은 그렇지 않음을 위에서 이미 보여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역의 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두개의 괘는 단지 어떤 일의 길흉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 또는 사람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와 아래가 소통하는 구조의 사회와 위와 아래가 단절되어 양극화된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괘를 풀 수가 있다는 말이다. 만약 주역의 점을 통해 이 괘를 얻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의 일을 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역〉의 체계를 가지고 점을 치는 과정을 음미해 보자. 점을 치는 이는 정성껏 괘를 뽑고, 그 괘를 통하여 자신이 놓인 사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려 한다. 그런 첫 단계에서 일단은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음과 양이라는 기본 부호로 이루어진 괘를 얻는다.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가장 간단한 부호로 정형화된다.



유 · 불 · 선 삼학에 모두 정통했던 탄허 스님이 쓴 주역 병풍. 스님은 주역을 선으로 풀어낸 〈주역선해〉를 저술하기도 했다. 〈주역〉은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술서가 아니라 세상과 인간사의 변화를 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텍스트이다.

**태극 · 괘 등 통해 인간사 논해**
**儒經 중 하나… 미신 치부 곤란**

**세상의 변화를 읽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론 등**
**불교의 인식론과 유사점 많아**

그리고 일정한 해석의 규칙을 통하여 어떤 사태의 상징을 이끌어 낸다. 그리하여 얻어진 자신이 얻은 64괘의 하나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주어지게 된다. 거기는 용들이 싸워 들판에 피를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며, 절름발이가 산을 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며,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힘겨운 투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상징들은 다시 자신의 사태에 맞추어 그것을 해석하는 인식 주체의 활동과 연결되게 된다. 물론 64괘를 해석하는 과정에 이미 자신이 점치고자 하는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주체의 활동이 개입되고 있지만, 일단 기본 부호들의 체계로 재구성된 괘들은 그 나름대로의 해석 규칙을 지니고 있기에, 점치는 주체의 개입은 그 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주역〉은 철학적 원리를 내포한 부호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이기에 그것의 해석에는 일단 자신의 상황에서 한 발짝 벗어나 그 부호체계의 의미를 통찰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관심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며 부호체계의 해석 법칙에 유의하며 자신의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을 음미함에 의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타개할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점을 치는 주체는 언제나 그러한 변화의 가운데 있으며,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변화에 대응하는 자이다.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 또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큰 틀에서 보아 아주 흉한 상황이라고 파악되면 조심하고 조심하여 흉함이 적도록 노력하면서 다음의 변화를 맞아야 한다. 길하다고 하여 방종하면 오히려 흉함을 초래한다.

이것이 〈주역〉의 상징체계를 통해 얻는 일반적인 교훈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현실의 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영위를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결국 〈주역〉의 체계는 우리가 처한 실제의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며, 올바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이다. 〈주역〉을 통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행위하여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주역〉을 공부하거나 점을 치는 주체의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주역〉은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인간 주체의 노력에 새로운 눈을 제공하는 것이다.

〈논어〉에는 "낮은 곳으로부터 배워 높은 곳에 이른다"(下學而上達)이라는 말이 있다. 〈주역〉의 점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미신적인 요소라 할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는 분명 하학상달(下學上達)의 기틀이 있다. 가장 구체적인 인생의 일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우리의 일상사에서 배우는 일이 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낸 점괘는 가장 추상적이고 높은 원리를 드러내 보인다. 그러하기에 음양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겹쳐서 만든 괘를 통해 우리의 구체적인 일을 조명해보는 행위 속에는 높은 원리와 비근한 일상사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높은 원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이어져 나가다 보면 태극이라는 커다란 조화의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크고 높은 경지까지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주역〉의 점을 음미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바로 하학상달(下學上達)의 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처음의 물음을 상기해 보자. 불교의 정신에서 주역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단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원리에 의해 관조할 수 있게 하는 주역의 점이라는 크게 해로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점치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높은 원리에 해당하는 주역의 철학은 불교적 사유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또 상보적인 측면도 있다.

근본적인 공통점은 불교와 주역이 모두 '변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며, 관계론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주역의 틀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고정 불변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요, 언제나 상황과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다. 우선은 괘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각각의 효가 다른 효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의해 길흉이 결정된다. 존재 자체가 선하다든가 악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음양이라는 기본 원리 또한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아니다. 음과 양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는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일 뿐인 것이다. 또한 양은 선이요 음은 악이라는 식으로, 어떤 존재를 선이라든가 악으로 규정하는 방식도 거부된다. 음이 음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이 발생한다.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역〉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인정할 것을 가르친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돌아보고, 그 위치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올바르게 감응하고 조화하는 것이다.

태극이라는 커다란 조화의 이상 속에서 우리들이 각각 어떤 괘, 어떤 효들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현실 속에서 조금의 여유도 찾지 못하면서 아둥바둥하던 삶을 벗어나, 커다란 이상을 향하는 존재로서의 자각 아래 굳세면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기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가쁘게 쉬던 호흡이 긴 호흡으로 변하면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여유, 한번은 가져봄직 하지 않은가?

〈주역〉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부처님이신들 이를 배격하실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주역〉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주역하면 점을 생각하고, 주역을 이야기하면 바로 점쳐달라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며, 그 속에서 바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절감하게 된다. 그렇기에 점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주체성을 포기하고 운명에 매달리려는 미신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절실한 문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원동력을 찾을 것인가? 절실한 삶의 욕구를 바탕 원동력으로 하여 높은 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종교의 모습이 아닐까? 아래서 배워 위로 이르는 길을 그 틀 속에 갖추고 있는 주역, 그 속에서 우리 불교가 지향해야 할 길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 납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Business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구성학. 성명학. 사주오주론 및 음양풍수
기문둔갑. 내정법. 실전사주학
공개강좌 및 개강안내

강좌안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사주학, 구성학, 성명학, 사주오주론 및 음양풍수, 내정법, 기문둔갑 등 특별과정을 공개 강의 및 개강합니다.

구 성 학
◆ 강의교수 : 이남옥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3일 (화요일) 13~16시 (1년과정)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인간이 태어난 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운명을 예측하고 개운법을 강의하는 과정이다.

실전성명학
◆ 강의교수 : 서범륜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3일 (화요일) 10~13시 (1년과정)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이름 수리획수만 보고 성격 및 직업과 운명을 족집게 같이 감정하고 상호,아호, 성명 짓는 법을 학습한다.

사주오주론 및 음양풍수
◆ 강의교수 : 홍순문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5일 (목요일) 13~16시 (한학기)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사주 년,월,일,시, 분을 간지로 환산하여 '순간' 일시점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사주음양풍수로 양택을 학습한다.

기 문 둔 갑
◆ 강의교수 : 예지수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6일 (금요일) 14~17시 (1년과정)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구궁이란 공간의 개념으로 홍국수와 연국수 중심으로 강의한다.

내 정 법
◆ 강의교수 : 예지수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6일 (금요일) 10~13시 (한학기)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내정법은 손님이 내방할 때 그날 일진으로 길,흉을 추명한다.

실전사주학
◆ 강의교수 : 김동현
◆ 공개강의 및 개강 : 3월 2일 (월요일) 14~17시 (1년과정)
◆ 수강료 : 30만원 (한학기 16주)
※ 위 과정은 1년이상 기초과정을 수료한 통변과정이며 격국론, 궁.성론, 천간지지론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지하철 4호선)
☎ 전화 02)3668-989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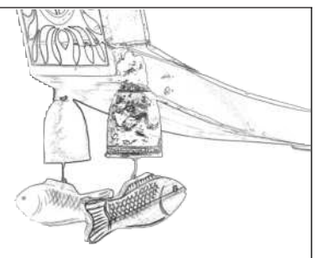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불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부처님의 입을 따라
태어났고 법의 교화를 따라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의
한 부분을 얻는 것이니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태양계 일광 부처님으로 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 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지금의 기도와 수행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업장소멸이 되지 않으며 사후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우주광명 신통력으로 업장소멸과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와 신통력을 공부하고 연구하실 분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517-5623

무보수로 산사에서 가족처럼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공양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 창녕)
010-3753-7844

정월 한달만 기도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김해 장유 신도시지역)
* 일웅스님을 찾습니다
010-3499-3721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밀양 삼랑진 삼봉사)
010-4484-5758

비구니스님 되실 분. 산신기도 명확히 도통하신 분. 승려증 필요하신 분
010-4648-8853
명진 합장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조용한 비구니도량. 기도하며 공부하실 스님 환영!
경주 동국대학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0-9340-39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가능)
010-8576-4450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4540-0061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스님 010-7321-0404. 010-4034-5829

**선묵화 및 한문**
3월3일 개강
혈맥론강의(한문이해)선묵화화,목 오후3시 강,선묵 합2시간 수강료10만원. 주2회강의 (6개월수료)
강의장소 : 경남 합천
(불참시 전화,메일 개별교습)
보림사 금강학림
010-3749-4553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비구)
010-8396-4338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약천사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산 87
전화 055)584-3326 팩스 055)584-3327
손전화 010-3156-6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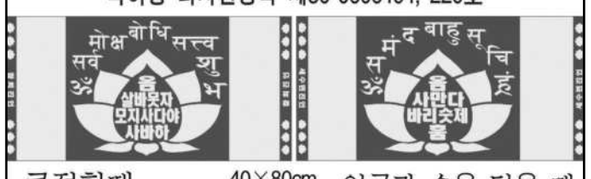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구 천 사
• 법 명 : 상원 • 속 명 : 박만길
• 승려번호 : 04-037
• 사찰주소 :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산 8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한국 호국불교조계종 종정 법하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❶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❷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올바른 사람과 함께 노닐고 일하며 올바른 사람의
법을 이해하면 그는 훌륭하고 악하지 않다고 하느니라.

- 잡아함경 -

## 사 찰 안 내

▶ 시내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 전망
- 총부지 : 5,000여평
- 주거지역 800여평
- 자연녹지 4200여평
- 좋은 조망권 드넓은 사찰부지
- 가액 : 15억원(은행 3억원 포함)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 암 자 양 도

- 위치 : 김천시내
- 1층 건물 약 60㎡, 깨끗한 인법당
- 토지300㎡, 주차가능
- 양도금액 : 1억 1천만
- 융자가능. 앞은 마을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50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매가 : 11억 5천 ◎ 매가 : 8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부근 익산 사찰 양도
* 법당50㎡, 요사채 80㎡, 건물 2동
* 토자800㎡ 남향으로좋은사찰
* 양도가 : 1억 2천만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 대지 1,019평 대웅전(木)20평. 종각(木)4평
- 산신각, 용왕각, 종무소, 요사채 3동
- 가액: 4억(절충가능)

010-3517-2226

##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농협 : 구포지점 ↔ 신협)
- 2층 50평 건물(법당 올수리, 옥상단독 사용)
- 시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칠성단, 소불 200불
- 친견실1, 객실2, 공양간 식당
- 즉시법회 몸만오세요! 민원없음!!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5348-2568

##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음,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찰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산자락에 있는 인법당
- 법당, 방3, 마당, 텃밭 주차장
- 가액 : 1억 3천만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5
051)861-2233

##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 117.13㎡
  (2) 2 층 건물 -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 지하수, 난방 : 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 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 전원주택 최고 조건

연락처 : 010-3131-218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 산아래 2차선 도로옆
- 용도 : 사찰, 기도원, 공장, 축산, 농장 적합
- 신축 축사 1동 125평 관리사 (황토집 25평)
- 밭 585평, 총 735평
- 가액 : 1억 6천

010-4074-3073

##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최적장소 (급) 안내

- 위치: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110번지 양촌 IC에서 15분 거리
- 대지 : 500평 전 답 : 300평
- 요사채:50평 방5개, 후원방 1개 욕실완비(심야전기)
- 농가주택 1동(80M암반수)
- 좌천료, 우백호, 현무, 주작이 잘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도량
- 가액: 9억 5천(절충가능)

010-3435-235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정로 645 대동1차 상가 302호
- 법당, 방 3, 공양간 넓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3927-129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10-9235-751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조용한사찰
- 가액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가능함 (중계보조원)

010-5534-7239

##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 전 46,384㎡(14,030평) (올 계획관리)
- 얼음골과 관정이 있고 계곡이 있음
- 평창, 인제, 정선 개발촉진지구 구역임
- 가액: 평당 8만원(조절가능) 주인직
- 전에 절에서 연락이 옴

010-3186-689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740평, 건물 150평
- 가액 : 양도는 8억
- 세는 1억에 100만원 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31)358-6701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
- 평수 : 60평
- 법당, 친견실, 공양간 등 예쁘게 꾸며져 있슴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
- 초대형 극장식 간판, 미니 실내정원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전세로 조절 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0-8616-573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조용한사찰
- 가액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가능함 (중계보조원)

010-5534-7239

## 토굴(암자)급 안내

해외 이주 관계로!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사 조용한곳
- 대지 약300평 법당.주차장넓음
- 요사채,방 4개 거실. 화장실
- 범패 제 할 수 있는곳.
- 관세음보살(칠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특수후불.칠성. 감로탱화. 시설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010-9945-203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145평
- 구조 : 법당 삼존불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천만원

010-5914-5789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쪼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 용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br>◆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br>◆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br>◆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br>◆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1〉 틸로파와 나로파

# 내면 일깨우는 가르침… "자비심이 에고 살해"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은 티베트 불교의 영적 스승인 나로파와의 만남을 담은 책이다. 티베트 불교 중에서도 요기와 요기니를 중점적으로 배출한 카규파의 시조는 틸로파로, 나로파는 그에게 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제자다. 그 후 나로파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는 티베트 금강승 불교의 패러다임이 됐다. 저자 쵸감 트룽파는 이 책에서 나로파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1972년 뉴욕 세미나와 1973년 카메촐링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나로파가 틸로파로부터 법을 전수받는 여정을 바탕으로, 스승과 제자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 나눈 깨달음에 대한 명상의 말씀을 들려준다. 본지는 책의 내용을 발췌 · 요약한다. 〈편집자 주〉

### 인도 최고의 불교학자 '나로파'

나로파(Naropa, 1016~1100)는 11세기 인도 북부 사람이다. 그는 왕실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오직 일념으로 마음을 닦았다. 그의 마음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가득했으며, 관심이라곤 오로지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왕실을 계승해야 한다는 부모의 간청에 못 이겨 그는 결혼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르마에 헌신하고픈 그의 욕구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어 아내 니구마의 동의를 얻어 이혼했다. 그리고 아내는 스님이 된 전남편의 제자가 되어 함께 공부를 했다.(그리고 후에 대스승이 되었다.)

나로파는 당대 최고의 명문 나란다 불교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의 지성은 날로 신장됐고 학문의 조예도 깊어졌다. 해박한학식과 능력에 힘입어 그는 나란다대학의 승원장 겸 학장이 되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불교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이 무렵(그의 나이 40세 즈음해서)나로파의 관심을 탄트라에 쏠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그는 태양을 등지고 책을 보고 있었다.(태양을 마주보지 않고 등졌다는 것은 당시 그가 현실에 대해 맺고 있었던 정신적 관계를 상징한다)이때 그에게 비전이 나타난다. 너무나 추한 여인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나서는 그가 다만 책에 써 있는 말만을 이해할 뿐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인은 또 진정한 의미를 알아낼 유일한 길은 스승을 찾는 것인데, 그 스승은 바로 그녀의 오빠인 틸로파(Tilopa, 989~1069)이니 그를 찾으라고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나로파는 떠난다.

나란다대학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고, 자신들의 등불인 그를 빼앗길 수 없다며 그의 사직을 반대했다. 하지만 나로파는 40여년 동안 쌓은 명성과 업적을 버리고, 당대 최고의 불교대학장직도 버리고, 왕자의 지위도 버리고 이름없는 수행자가 되어 스승 틸로파를 찾아가는 외로운 여정에 오른다.

그 길은 험난했고 그를 좌절시키는 극단적인 사건들로 점철된다. 그 여행길에서 나로파는 틸로파를 만나기는 커녕 11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비전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한 나로파가 자살하기 직전에 틸로파가 나타나서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 틸로파는 나로파에게 일련의 상징들을 보여 주었고 나로파는 그를 이해했다. 그런 다음 틸로파는 1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1년이 끝나는 날 틸로파의 몸은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고, 이때 나로파는 엎드려 절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틸로파는 나로파에게 사원의 높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다. 그 말을 따라 뛰어내린 나로파의 몸은 곳곳의 뼈가 부러졌고 극도의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틸로파의 손이 한 번 쓱 지나가자 아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틸로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과정이 열한 번이나 더 반복됐다. 열한 번이나 더 틸로파는 1년 동안 미동도 없이 냉담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면 나로파는 절을 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마다 틸로파는 나로파를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온통 화상을 입게 하고, 매로 때려 죽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거머리에게 몸의 피를 빨아 먹히게 하고, 불꽃이 이글거리는 가시나무로 그를 찌르고, 죽기 직전까지 달리게 만들고,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두들겨 패고, 다시 한 번 죽을 만큼 때리고,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고, 나로파의 후실을 틸로파에게 주게 한 후 틸로파가 그녀를 학대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들고, 나로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내서는 그를 틸로파에게 만달라 공양물로 올리게 했다.

이런 고문이 행해질 때마다 틸로파는 손끝 하나로 나로파를 원상태로 돌려놓았고, 그리고는 귀중한 가르침을 내려 주었다. 이렇게 하여 얻은 가르침들이 나로파의 여섯 가지 법을 포함한 법으로 천 년 동안 카규파와 다른 법맥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더 많은 과제와 시련, 그리고 가르침이 있은 후에 마침내 이심전심을 통한 마하무드라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틸로파는 나로파에게 모든 생명과 존재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 주라고 말했다.

이때 틸로파가 예견한 대로 후에 마르파가 티베트에서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나로파를 찾아와 제자가 됐다.

마르파에게 가르침의 전수를 마쳤을 때 나로파는 앞으로 마르파에게 밀라래파라는 위대한 영적 아들이 생기리라고 예언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로파는 티베트 쪽을 향해 3번 머리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그곳(인도 북부의 풀라하리지방)의 모든 나무들이 티베트를 향해 절을 올렸다. 오늘날에도 그 나무들은 여전히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서있다.

나로파의 삶에 대한 트룽파 린포체의 해설은 아직까지 그다지 많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수행길의 본질을 밝히는 수준까지 다가가고 있다.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해설은 기본적 소양을 전해준다. 특히 트룽파가 서구에서 가르침을 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왜 그렇게 인습적인 삶에 영성을 '알맞게' 통합하려는 서구사회의 시도를 영성에 대한 미온적 접근법이라며 계속 질타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는 영적 진리나 수행을 에고의 만족수단으로, 즉 행복, 건강, 사회적 성공을 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적 물질주의를 개탄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로파가 그 추한 여인을 흘낏 본 순간부터 집착과 매임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떨쳐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파의 삶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트룽파 린포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성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로파가 얻기 위해 모든 삶의 안락을 다 버렸던 영성, 가공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거친 영성을!

> **나로파, 나란다대 학장직 버리고**
> **스승 틸로파 찾기 위해 여정 올라**
> **틸로파, 나로파에 혹독한 고문 겪게 해**
> **고문 후 나로파가 받은 가르침은**
> **천년동안 카규파 법맥통해 내려와**



카규파의 시조인 틸로파의 탕카

### 트룽체 린포체와의 대화

**학생1:** 저는 나로파가 지시받은 몇 가지 일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루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로파의 비전에는 그런 모순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 이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온정신과 분별있는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면 안돼!"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 해!"라고 말합니다. 어느 편을 택하든 불쌍한 나로파는 패배하게 돼있어요. 그가 만약 이를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무언가를 잘못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트룽파 린포체:** 아마도 그 순간에 죽여야 할 이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학생:** 그래도 역시 그것은 정신적 투사였든 아니든 죽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꿈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트룽파:** 그건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꿈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투사를 대하는 거죠. 자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해도 실제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1:** 그래도 여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가 없었다 해도 무언가가 존재하잖아요.

**트룽파:** 그래요. 무언가가 존재하죠. 바로 당신의 투사, 당신의 신조. 당신의 저항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다만 무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학생:** 그것을 죽이면 살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트룽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에고를 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1:** 그것은 죽이는 것이므로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트룽파:** 그것은 온전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경우 에고는 너무나 효율적이고 지극히 정확하게 살해되었기에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에고의 기억마저도 살아나지 않아요. 죽임의 행위가 아주 훌륭한 거지요.

이에 반하여 우리가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 우리는 그를 온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죽일 수 없고 그의 친척들도 죽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항상 남지요.

하지만 깨달음의 증득에 수반되는 에고의 죽음은 온전한 작업입니다. 에고의 이름과 개념까지도 덩달아 죽어버립니다.

**학생1:** 전에는 명상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트룽파:** 어떤 자기 말인가요?

**학생1:** 어쨌든 제 생각에는 친구다운 것 같지 않아요.

**트룽파:** 그것은 친구다운 행위이고 자비의 행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에고가 살해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살인은 증오 때문에 일어나지요. 하지만 에고의 살인은 자비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게도 작업이 완전한 것입니다. 에고의 살인은 다른 종류의 살인에 비할 때 더없이 완전한 살인입니다.

**학생1:**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니까요.

**트룽파:** 꼭 그렇다기보다는, 비참한 상황을 존중하는 겁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쵸감 트룽파(1940~1987)**는



티베트 카규파의 11대 활불. 승루망 승원의 최고 승원장으로서 불과 19세에 신학과 철학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켄포 학위를 받았다. 1959년 티베트를 떠나 인도에서 프레다 베디 여사와 함께 일하다가 1963년 아콩 린포체와 함께 영국으로 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 비교종교학과 철학, 예술을 공부했다. 1968년 아콩 린포체와 설립한 스코틀랜드의 삼예링 승원은 유럽 굴지의 수행센터로 성장했다. 1969년 대형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후 삶의 전환기를 맞아 법복을 벗고 영국 여성과 결혼 후 미국으로 이주해 샴발라 센터를 설립, 이후 어려운 불교용어를 가장 근접하고 알기 쉬운 영어로 날카롭게 번역해 내면서 변화무쌍한 가르침의 방식과 파격적인 언행, 디오니소스적인 품성으로 미국불교의 한 시대를 리드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경의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CHANNEL 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

매주 화요일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접수 가능)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 · 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현재 접수중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어린이 마음거울

# 좋은 성격은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윤지원 엮음(조계종 포교원장)



## 나는 좋은 성격과 밝은 마음을 가꾸어 가겠어요

I will cultivate a positive attitude.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년)는 철강회사를 세워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산을 사회에 돌려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카네기는 어릴 때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건설회사에서 힘든 일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네기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고 말했으며 성격을 어두운 곳에 두지 말고 밝은 곳에 두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갖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남과 잘 사귀지만 어떤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성격이 꼼꼼한 사람도 있고 덤벙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성격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격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좋은 성격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격, 밝은 마음은 자기에게 큰 힘을 주고 주변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복이 저절로 모인다는 옛말도 있답니다.

* 좋은 성격이란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일까요?
* 나의 성격은 어떤지 말해 보아요.
* 내가 부러워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 때때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잘못을 고치겠어요

I will sometimes reflect upon my behavior, and try to correct my shortcomings.

사람은 남의 실수나 단점은 쉽게 알아챕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점은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나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정말 바보야.' 하며 자기를 꾸짖거나 반성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장점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칠 점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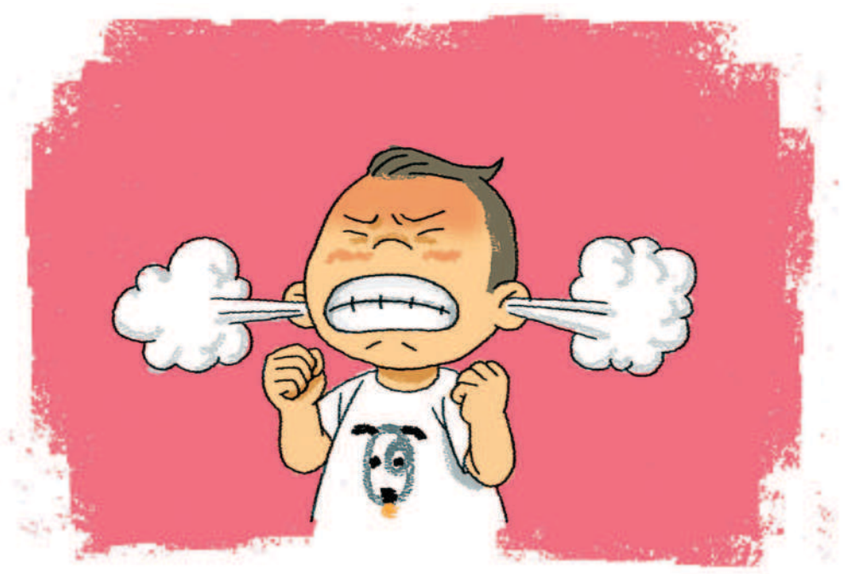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어려운 말로 '자기성찰'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1943~)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성찰지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살펴봄으로써 소질과 꿈을 찾아내고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은 리더십이 많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과 대화를 나누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일을 내일 고치지 않고, 아침에 후회하던 일을 저녁에 고치지 못하면 보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율곡의 말대로 실수를 고치려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자기성찰지능을 활용해 자기의 꿈과 소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 자기성찰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 자기를 돌아보기에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나는 작은 일에 화내거나 짜증내지않겠어요

I will not get upset or frustrated over small things.

녹색괴물 헐크는 1962년에 탄생한 미국의 만화 캐릭터입니다. 헐크의 몸 주인은 미국 국방부의 과학자인 브루스인데 사고로 감마선을 쬔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면 녹색괴물로 변신해서 주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파괴를 일삼는 녹색괴물이 바로 헐크입니다.

세상에는 헐크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괴물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꾹꾹 눌러 참기만 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화는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은 화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기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 사람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화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말하다보면 화가 스르르 풀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화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실망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웃어넘기는 여유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에 화를 내나요?
*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
* 화를 풀어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

이 글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대만 "공승제" 6일
● 출발일 : 9월 3일 요금문의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요금문의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요금문의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출발일 : 3월 11일 요금문의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요금문의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요금문의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도반으로 공부한다는 자체만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 갸륵하고 성스럽고 고마워서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법당을 지금 짓고 있지만 좁아서, 땅을 사놓고도 제대로 못 이루어서 추운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을 자리가 변변치 않아 마당에 서서 그냥 듣는 분들이 계시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하면 옛날에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공부하실 때 먹을 것도 변변히 못 잡숫고 소금을 봉다리에다 넣어서 주머니 차듯 옆구리에다가 차고 그렇게 물에 타 잡숫고 다녔던 그 고행의 뜻을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추운 것이 다 달아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공부하는 도리는 시공도 없고 공간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살려니까 시간도 만들어 놓고 또 일 년, 해우년도 만들어 놓고 몇 해니 몇 해니 하고 나가는데 질서를 지킨다 하기 이전에 그냥 순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여러분이 해 놓고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 아니라면 몸이 움죽거리지 않는다는 거, 자기의 그 마음의 영혼이 빠지면 송장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랬고 역대 조사들도 그랬습니다. 공부할 때 이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이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 부처도 여기 있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는 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변소에 가면 변소에 있는 것이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데, 들이고 내는 자리도 한 구멍인데 그 들이고 내는 자리, 통하는 자리, 바로 거기를 지금,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다 집중하고 생활을 하는데 어디에다 눈을 돌릴 새가 있겠습니까?

옛날의 조사들도 그랬고 역대 부처님들도 그랬습니다. 들이고 내는 구멍이 아니라면 천지를 다 준다 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저기 계신데 안 가려느냐 해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죽거리지 않고 마음도 움죽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조사들이 됐고 역대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차적으로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라.' 이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움죽거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합쳐라. 너로 만들라 이런 소리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억만 개를 한데 갖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 좋다는 데 있으면 이리로 뛰어가고 저기 좋다는 데 있으면 저리로 뛰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한 고장에 집중된 게 아니라 들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면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부처님이 굴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 독사가 나와서 사람을 다 잡아먹으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사과 하나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과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한 것을 말합니다.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 줬건만 모든 사람들은 사과를 사과로만 본 것입니다. 뜻을 보지 않고 사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하는데 "내 몸이 살아야 모든 중생들을 건질 테니까 네게 내 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나 먹어라." 하고 줬다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그리로 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 뱀도 부처도, 들어가신 그 분도 모든 게 동일하게 하나가 돼 버렸으니까 사과는 방편으로 들고 들어갔던 것이지, 사과를 대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냥 들어가셔서 편안히…, 나타났던 그 뱀이 일심으로 화한 거죠. 기다랗게 놓으면은 한 일(一)이요, 동그랗게 뭉치면 원심이요, 머리를 들었으면 한마음의 한 상투라고 해도 되죠. 심봉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 어찌 둘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계시다 나왔지만 벌써 한마음으로 동일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모습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물 수가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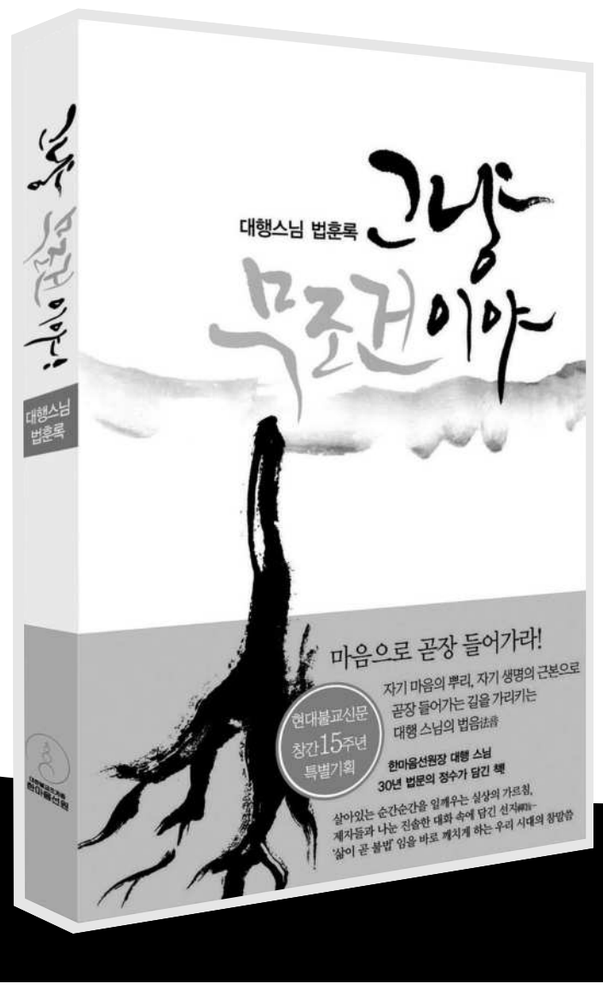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니 뜻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한 도리입니까. 이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그저 길에 오다 가다가도 알고 듣고 배우고 하시려면…, 육조 스님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면서도 10여 년을 넘게 면벽을 하셨다는 거. 면벽이라는 건 앉아서 있는 것만 면벽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게 움죽거리지 않을 때가 면벽입니다. 그랬으니 다니시면서도 행선이 되고 와선이 되고 입선이 되고 좌선이 된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한눈 팔지 말라.' 이랬던 뜻이 뭐냐. 이 마음을 움죽거리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을 움죽거리게 하면 네 몸이 좋다는 데 있으면 다 따라다닐 것이다. 못났든 잘났든 약하든 건강하든 내 몸 밖에 좋은 게 어딨습니까? 내 집 밖에 좋은 게 어딨습니까? 어디 나가셨다가도 내 집에 들어오시면 편안하시죠? 그런 거와 같이 내 몸이라는 이 집, 내 집 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더미처럼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불끈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거기만 보고선 그냥 간단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좌(坐)를 할 때에 여기 움죽거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천리만리 좋은 게 있다고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가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일임하면은 됩니다. 그런 건데 몸뚱이까지도 딸려 가는 것은 벌써 그건 마음이 움죽거린다는 뜻입니다. 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놀랍게도 뚫을 것도 없는 것을 뚫는 게, 문 없는 문을 찾으려고 애쓸 때,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리를 이 마음 하나 돌리면은 그게 쉽게 뚫릴 텐데 자꾸 유혹을 해서, 자신들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유혹을 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들뜨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막론하고 바깥에서 천지를 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미래는 지금 현재 사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어집니다!

☞ 29면에서 계속

준다, 여기 역대 부처님이 다 계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다 되신 겁니다.

이렇게 좋다고 들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머리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이래서 그냥 머리로다가 말을 하고 다니니 무슨 뜻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조사들과 더불어, 유마힐까지도 거기에…. 제불이니까. 모든 일체제불이 다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여러분에게 화해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시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찰나찰나 응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시고 그냥 들떠서 돌아간다면 그런 것을 영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고 믿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 가르치신 뜻과 진리의 뜻과 우리 사는 방법의 뜻이 삼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고깃덩어리야 한 철 살다가 한 철 없어지고 모습을 바꿔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 가지고 다시 나오느냐 하는 미래는 지금 현재 사는 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이런 소리가 있죠. 눈먼 거북이가 천 년을 물속에서 있다가 한번 세상을 보려고 나오는 그 사이에 구멍 뚫린 뗏목이 하나 턱 그 시간에, 눈도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뗏목이 떠내려 오겠습니까? 눈먼 거북이가 물속에서 뚝 올라오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천 년을, 눈먼 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며 지냈기 때문에 그게 온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의 모습을 벗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됐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혼자만의 자기의 그 구멍을 뚫지 않으면, 역대의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된 그 자기가 바로 그 자기를 뚫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장님이고 그냥 한 발 못 딛는 병신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데를 못 보니까 장님이요, 하나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데 있어야 할 텐데 있지 못하니까 한 발 병신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님이나 한 다리 병신이 안 되려면 그만큼 자기가 못났든 잘났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해 본 예가 있거든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아무리 잘난 관세음보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부처님이 나를 그렇게 바깥에서 이끌어 준다고 하더라도 못난 내 마음의 어머니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못났더라도 나를 먼저 알아야 그 잘난 분들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되겠기에 여러분한테 각자 나부터 알고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저쪽에다 마음을 두고 믿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덩달아 따라서 남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가 그 요량과 지혜로 문을 뚫어야 합니다. 자기가 요량껏 발전시키는 데에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요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요렇게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차원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자꾸 바뀌어서 행동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여기 좋다고 해서 여기로 마음이 뜨고, 저기 좋다고 그래서 저기로 마음이 뜨고 그러지 않고, 내가 선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비로소 들이고 내는 그 한 구멍이, 바로 문이 열린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자1(남)** 큰스님, 직접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그동안 큰스님께서 설하신 많은 법문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산 지원에서 이번에 한마음 촛불재를 3일 동안, 초닷새부터 3일간 지원장 스님 이하 여러 스님과 같이 아주 성대히 거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올리고 지원장 스님하고 또 한 분의 스님하고 두 분께서 중앙에 서시고 신도들이 죽 돌아가면서 촛불을 붙이는데 한 스님께서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로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그것을 관해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자기의 아픔같이 생각을 하고 저렇게 우시는구나.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스님은 아주 그 면도칼처럼 그 뭐랄까, 부산에 가면 고기 경매를 하는데 위의 어른한테 "이거 얼마짜립니다." 하면 그 사람이 탁 받아 가지고 면도칼로 탁 치듯이 아주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들의 사표가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들이구나.

그래서 저도 올해는 촛불재 때 3일간 휴가를 내었습니다. 시종일관 빠지지 않고 3일 동안 절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3일간 해 보니까 정말 꿈으로도 보여 주면서 저를 경책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도 좀 떳떳해지고, 제가 이 법당 제일 뒤에서 여기 스님 앞에 나서기까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4년 동안은 울다가 보니까 다른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이제는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재가 정말로 자신과 일체 조상의 무명을 밝히는 데는 명약이라는 거를 요번에 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것이 죽은 사람의 불성이기도 하고, 생명 종자이기도 하고, 산 사람의 마음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실과 상통하는 반면에 모든 그 아픔이 역대에 올라오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간으로서 형성이 된 거기까지 얼마나 아팠던가. 얼마나 뼈가 으스러지는 것처럼 느끼고 진화가 되고, 그렇게 몇 생을 넘어왔던가. 이런 것이 합쳐지다 보면 스님네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겁니다.

**질문자1(남)** 눈물이 아니었고 피눈물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큰스님** 예. 그러니까 그러한 뜻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할 수만 있다면 그 장소는 바로 역대 제불의 도량이 될 것이고, 그 도량에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모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미물의 짐승도 영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천도가 될 것입니다, 그냥 모두. 그게 그 뜻입니다. 만약에 조상이 죽어서 미물의 짐승이 됐어도 그 자식이 이렇게 공부하는 덕분에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줄이 닿지 않으면 같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줄이 닿으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인도환생을 하죠.

**질문자1(남)** 그래서 두 분 스님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님처럼 아주 콤비가 잘 맞는 그런 멋진 천도재인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뭐 지장보살만 됩니까? 관세음보살만 되고 지장보살만 된다면은 안 되죠. 뭐 약사도 돼야 하고 칠성도 돼야 하고, 주해신도 돼야 하고 주산신도 돼야 하고, 지신도 돼야 하고 귀신이 될 때는 귀신도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귀신을 건질 수 있으니까요. 하하하. 이 소리 잘 듣고 뜻을 잘 새기십시오.

**질문자2(남)** 예. 편히 앉고 싶지만 제가 이러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래,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질문자2(남)** 예. 스님 또 뵙게 되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저는 조금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청년법회 때 저의 아버님 문제와 대학 진학 문제로 질문 드렸던 울산 청년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천연적으로 주인공을 믿으려 하니 안되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던 대학 모두 합격되었습니다.

스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듯했습니다. 네 곳 대학 중 제가 가려던 대학은 2차 추가 합격까지 가는 주인공의 나툼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다, 없다는 생각이 잠들기 전은 물론 잠이 깬 후에도 연속되는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주인공 노트라 일컫는 일기장엔 제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결과가 밤이면 적히곤 했습니다.

또 확실히 제 주인공을 느끼고 싶고 그래야만 용기가 더 날 것 같아 선원에 나가 청소며 세차며 선원 행사며 '이 모든 것이 내가 대학 가려는 마음과 근본은 둘이 아니다. 더 열심히 쓸고 닦자. 순간순간을 백으로 살자. 내가 없기에 힘들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관했습니다. '주인공, 내가 그 대학에 간다면 저렇게 보이지 않게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껜 작은 효도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주위의 모든 분들과 대행 큰스님께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새해 인사 드릴 수도 있잖아.' 하고요. '그것도 웃음 보시, 기쁨 보시가 되잖아. 자, 우리 최후의 발표 날까지 만이라도 열심히 해 보자, 응? 주인공!' 하며 말입니다. 스님, 비록 제가 간 대학이 일류 이류라 일컫는 대학은 아니지만 제게 너무나 많은 걸 일깨워 준 대학이고 제겐 최고의 대학입니다. 스님, 힘들고 괴로워 포기하려고도 했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이번 일로 많은 가르침을 준 주인공의 고마움을 말로써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님, 두서없는 저의 작은 체험담이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큰스님**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은 아닙니다. 화해서 찰나찰나 용도가 바뀌어서 내 앞에 닥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잡고 가다 보면은 신심도 생기고 발전도 되어서 나중엔 큰 것도 집어삼킬 수 있다 이 소리죠. 나중엔 큰 것도 대치할 수가 있다. 이러다 보면 용맹스럽게 진짜 정진할 수가 있고, 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물리가 터지고 발전이 되면서 그 한다 안 한다도 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줄을 잡았으면 만 가지 천 가지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잡고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공부할 때는.

(다음호에 계속)

※위 법문은 97년 2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지만
> 혼자만의 자기의 그 구멍을 뚫지 않으면,
> 역대의 광년을 거치면서 진화되고 형성된 그 자기가
> 바로 그 자기를 뚫지 못한다면
> 이 세상을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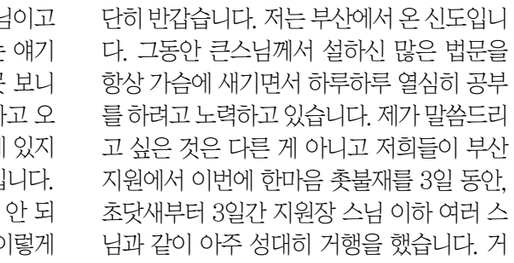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 60㎝ × D 40㎝ × H 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 '갑질 성추행',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



옥복연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직 국회의장, 사단장, 지검장, 대학교수…. 어느 새 우리나라가 '성갑질 공화국' 이 되어 버렸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여성에게 이른바 '갑을 관계' 를 악용해서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인 '성갑질' 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명예도 있으며, 부인도 있고, 나이도 지긋한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남성들이 왜들 이러는 것일까?

의전 서열 2위로 대통령 바로 아래, 입법부의 수장, 그리고 여당의 다선의원 가운데 경륜 있고 신망이 두터워 추천으로 선출된다는 국회의장출신 76세 남성은 골프를 치면서 캐디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성적 농담을 했단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기 도중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니, VVIP 손님인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지만 "손녀같이 귀여워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을 뿐" 라는 이 남성의 변명에는 말문이 막힌다. 캐디들의 기피인물로 상습범이었던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위층 성추행범이 되어 법정에 섰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자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고 조언하더니,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성대통령을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라서 섹시하다며 글을 올렸었다. 섹시하다는 말이 여성에게 하는 최고의 칭찬으로 착각하고 있던 이 남자는 요즘 거의 매일같이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골프장 사장은 한밤중에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가 젊은 여직원을 불러내고는 "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며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단다. 이쁜 여자면 다 끌어안아도 되는 것인가?

심지어 전 제주지검장은 수차례에 걸쳐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본 여고생의 신고로 자신이 일했던 검찰에 송치됐다.

군대는 어떤가? 모사단장은 성추행 피해여군을 위로한다며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을 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현직 사단장이 긴급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있었다. 또한 육군 여단장이 20대 여군 하사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여단장의 부하참모 역시 다른 여군을 성추행했다고 조사받고 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군대에서, 부하여군도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건만 이들 눈에는 단지 여자로만 보였나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 한 의원은 가해 여단장이 외박을 못나가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군을 '하사관 아가씨' 라고 불렀다. 졸지에 수십만 군인들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은 육사출신으로 군 기무사령관(중장)까지 지내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단다. 더욱이 이 사람이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학은 어떤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천재 수학자로 유명했던 대학교수가 20여 명에 이르는 제자를 성추행해서 조사받고 있다.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을' 인 학생과 조교들을 성추행했다니, 나이어린 피해자들은 존경받는 교수님의 두 얼굴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이처럼 성갑질은 학력, 직업, 나이, 장소 불문하고 발생하며, 일터라는 공간에서 주로 인사권이나 근로조건 등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서 발생하는 비열한 범죄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 에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사포세대' , 그리고 내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세대' 까지 등장하는 판에, 여성이 직장에서 성추행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클까?

그런데 남성중심사회에서 군인, 학생, 아나운서, 캐디 등, 직업을 불문하고 여성이라면 모두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라며 성폭력 처벌에 관대한 사회라면 성갑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성갑질은 권력 남용은 물론, 성차별과 성폭력, 남녀 불평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정배 교수 1주기 추모

# 선생님의 세뱃돈 받는 날이었는데…

목정배 교수의 1주기 추모 법회가 2월 8일 한국불교법사회 중앙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추모시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생전 목정배 교수(사진 왼쪽)와 함께한 중국 성지 순례에서 필자가 목 교수의 그림 작업을 돕고 있다.

### 추모(追慕)

서울의 온도가 내려가던 날 대지는
하-얀 소복을 입었고
그날 아침 부음은 우리의 귀를 울렸지요. 조마조마 하던 마음 올것이 왔구나고
불국의 조명(弔鳴)음이 울리고 성각의 대성(大星)이 적정 열반의 안식으로
철우 미천 목정배님 부음의 슬픔아침

그 일년 을미년 2월초 그날 맞아 지난해 이맘오늘 부음을 받고서는
먼 여행 서울길 재촉하며 찾아오니 모셔진 영정모습 늘 웃던 그 모습을
가슴으로 저려오던 깊은 감정 두 손모아 박사님 영전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조화궁전 사이로 밀려오던 참배님들이 나라 불승 불선 남김없이 찾아왔고
짧은 사흘 시간 속에 남은말길 바쁨이여 첫 새벽 동터기전 길을 나선 운구행렬
정든 집 둘러서 이 자리 오셨다가 젊은 날에 추억교정 후학을 이끈 자리
남산아래 해뜨는집 동국을 둘러보고 다시는 못 건널 한강다리 지나서
그렇게 보낸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면 수많은 선생님과 우리들의 주고받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승과 속을 넘나들며 직언고성 불사하며 불사의 회초리는 누구라도 분별없어
미움도 원망도 한 몸에 짊어지고 퇴색되는 불사운동 선구자 되고파라
〈중략〉
무명법사 이름짓는 불명받는 모습들 순간에 신령스런 붓끝이 움직이면
사람따라 전금후가 보는 듯 하옵고 뜬눈으로 밤새움에 다음날도 그 자리
해맞이 2000년엔 울신지나 바닷가 거친바람 파도소리 우짜그리 추웠던지
장작연탄 불피우고 밤샘하며 지킨불 초저녁 공연때는 신나던 법사마당

옛날처럼 전국순회 안심하던 그 마음이 아주아주 작은 것이 그것이 사단되어
그래도 우리들앞 늘 보여 주셨습니다 20번의 대 고비 넘겼다고 하셨을때
이제는 언 모습을 보여주나 하였지만 쇠퇴한 기력은 지탱할지 못하였고
끝내는 원래자리 반야의 길 가셨습니다

오늘은 1주기 당신님을 보내던 날 가족친지 내빈을 법사가족 모여서
당신님이 남기신 그 큰 뜻을 기리고자 이 법당 높은법당 모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이 자리는 선생님의 세뱃돈 받는 날 이었고
장마다 같은 그림 똑같지 않은 것 이제는 그런 돈 받을 곳이 없습니다
누가있어 불명을 지어 주겠습니까
우리들속 새겨있는 선생님과 맺은 정이 자리 가족들과 모두 우리들
남기신 유품으로 생전모습 대신하고 추도의 인사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대한불교법사회 법사5기 이시일**

社說

# 포교방법 재편, 불교 젊어져야 한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종교 지형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 지형 안에서 불교는 중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 간 불교 인구는 2% 감소했고, 개신교인과 가톨릭인은 변화가 없었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으나 가톨릭은 3040세대의 비율이 전체 신자의 20~30%에 달해 안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불자들의 신앙 만족도 역시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 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기도 · 경전 읽기 빈도, 생활 속 종교 중요도에서도 불교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젊은 불자가 줄고 고령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세대간 전승' 에 있어서 불교가 뒤쳐지기 때문이다. 개종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부모-자식 간 종교 일치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추세에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불교는 향후 종교인구 확장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제 불교는 '가족 신행' 을 중심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재편해야 한다.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 또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회 약자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 공공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다시 전법도생의 길을 나서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 불교평론 '열린논단' 60회에 박수를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신적 스승이면서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잊을만 하면 보도되는 종교인들의 추문에 혹자는 '속(俗)이 성(聖)을 걱정하는 시대'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불교라고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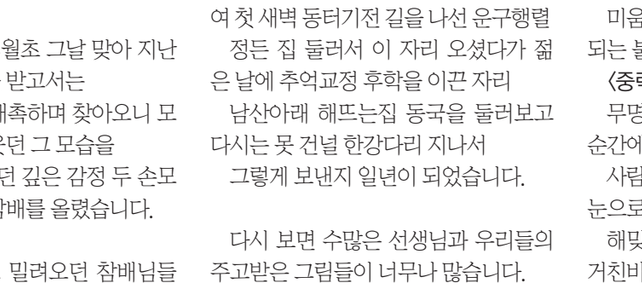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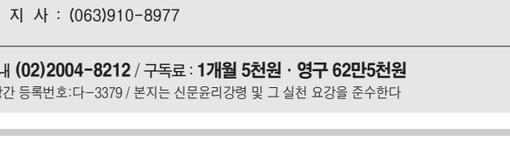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60회 기념해 연속기획으로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를 주제로 논단을 개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4월까지 3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연속 논단은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2월 26일 열리는 논단에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수행, 정말 잘 하고 있는가' 를, 3월 19일 논단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4월 16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은 2009년 2월 27일에 첫모임을 시작한 이래 매달 1회씩 10년 동안 10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왔으며 올해 1월15일 모임까지 59회를 계속해왔다. 모임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반성하고 발전적 대안을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참가자가 토론해왔다. 주제 역시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안을 비롯해 인접학문과의 통섭, 학술적 의제, 불교 내부 문제 등을 그 폭이 넓었다.

불교계의 토론 문화에 대해 성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평론의 열린논단은 불교 토론문화 창달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확실한 주제 선정과 적절한 패널 설정, 열기 높은 참가자들의 의견개진은 불교 토론문화의 새 바람이었다. 불교평론의 열린논단이 앞으로도 계속 불교 토론문화 선도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를 함축하고 있는 진언(다라니)!
진언의 공덕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언 사경!

사륙배판/112쪽 내외/각 5,000원

1 과거세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2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3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4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5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6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7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진언
8 화목한 가정을 위한 진언
9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는 진언
10 돌아가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11 건강과 장수를 위한 진언
12 재물을 부르는 진언
13 극락왕생을 위한 진언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깨달은 마음을 잘 쓰라(善用其心)"는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만행스님의 네 번째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 『마음의 달(1,2)』, 『항복기심』에 이어 세 번째이다.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의 세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중국 동화선사에 가서 만행스님과 대담한 내용을 요약해서 싣는다. 3박 4일 취재하는 동안, 왜 동화사라 하지 않고 동화선사라고 '선'자를 더 넣었는지 실감이 났다. 모든 스님이 일사불란하면서도 득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만행스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하고 있었다. 아래의 글은 어렵게 얻은 대담시간에 들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마음의 달 1,2 / ▸항복기심 / ▸선용기심 구입처 대유학당 (02)2249-5630



만행(萬行)스님
1971년 중국 호북성 양양 출생
18세 출가
22세~30세 3번에 걸쳐 폐관수련
31세~ 출관 후 혜능대사의 득도처인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

**이번에 한국에서 『선용기심』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지난번 출간된 『항복기심』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선용기심』은 수행의 두 번째 단계를 말한 책입니다. 중국에서는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의 세 책을 출간했는데, 책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일련의 수행과정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 셋은 마음을 쓰는 방법이지요. 장좌불와를 몇 년씩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도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필연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책이 모여야 수행의 묘미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책이 나왔다는 것이군요. 그 세 책에서 말하는 수행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항복기심』은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선용기심』은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심무주』는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집착이 없어지면 뒤집혀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몽상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각조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 셋은 수행해서 득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뜻하면서,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할 때 항상 이 세 마음을 받들면, 마음과 몸에서 곧바로 명월(明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찰과 달리 동화선사는 '선'자를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화사의 특징은 '부처가 되려는 사람이 모여서 부처님공부를 하는 수련중심 사찰'입니다. 그래서 '선'자를 더 붙여서 동화선사라고 한 것이지요.

**동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과거 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기공수행방법을 가감해서 정수만 모아놓은 일곱 가지 동작을 5~6차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연화생대사의 이름을 따서 연화생동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정공 즉 참선을 잘 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연화생동공을 하면 몸의 기맥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 발생하는 가슴 답답증이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세 등 각종 질병을 해소시켜주고, 정신을 집중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성욕을 독맥으로 올려서 수련의 힘으로 돌릴 수 있고, 여성의 생리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츰 생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동화선사에서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 강조
## 수련은 동공과 진언, 참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정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련을 합니까?**

양정당은 말 그대로 바른 마음, 바른 몸을 기르는 곳입니다. 또 그 수행방법이 쉬우므로 우리절의 스님과 봉사하시는 신도분들, 그리고 절을 방문한 사람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정당·자재당·폐관실·폐관동의 4단계 수련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저녁 6시에 양정당 앞에 모여서 동공을 함께 하고, 7시에는 양정당 안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정공을 합니다. 그리곤 설법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지요.

**정공 할 때 보니까, 진언을 외워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분 동안 6자진언(옴마니반메훔) 또는 삼자명(옹가훙)의 음을 금강송 식으로 외웁니다. 이렇게 단체로 진언을 읊으면 정신이 집중되고 호흡이 일정해집니다. 그런 뒤에 육근을 닫고 의식을 미간에 집중하여, 생명의 빛을 정수리에 모으는 참선을 시작합니다. 나와 우주가 일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수리로 올린 의식이 연꽃처럼 피어오르며 우주 만물과 융합하여 일체가 되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삼신(법신, 보신, 화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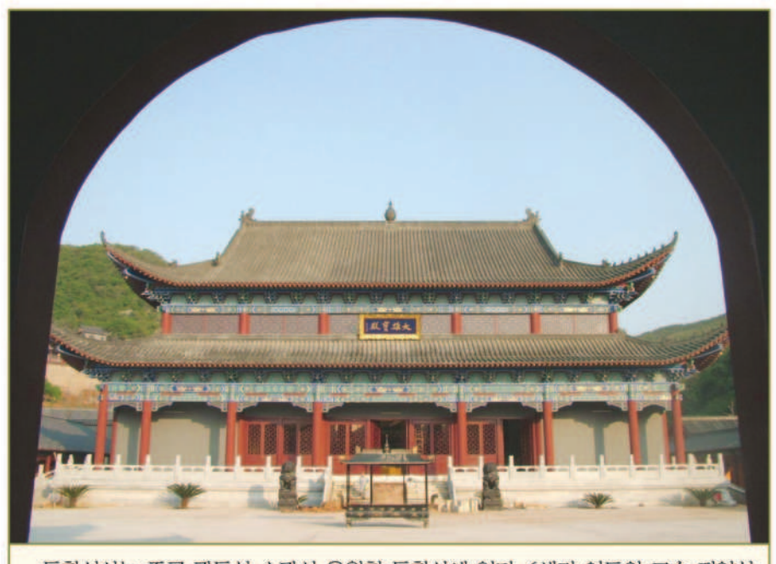
**그러니까 동공, 진언, 참선의 순서로 진행되는군요. 참선을 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나요?**

불법의 모든 수행은 각조에 있는데, '각'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조'는 돌이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선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그냥 그대로 볼 뿐, 분별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유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떨어지지 말며, 침착하고 여유있게 각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참선공부입니다. 꼭 앉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공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울력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을 하면 욕심내고, 욕심 내다보면 평정심이 흐트러집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요. 에너지는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선한 에너지를 불러 모으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에너지를 모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불도 지옥도 모두 욕심이 원인이 되는 것이니, 욕심은 성불의 근본이면서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욕심을 내되 선하게 성불하는 쪽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행스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다. 물어보기가 바쁘게 곧바로 답을 하신다. 이미 7년을 장좌불와의 폐관을 마친 선지식의 지혜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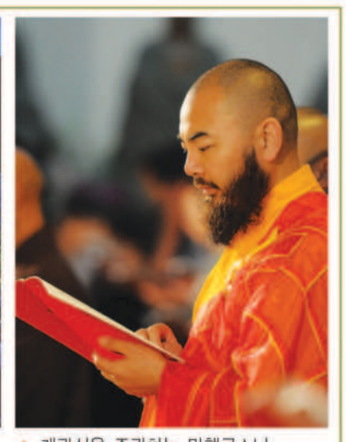
동화선사는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 동화산에 있다. 6세기 인도의 고승 지약삼장선사께서 오셔서 영취사靈鷲寺를 창건하셨고, 7세기에 육조혜능대사께서 수행 득도하시고 영취사를 동화선사로 바꾸고 흥성시켰지만 15세기 이후로 쇠퇴하였다.

1997년에 만행스님이 지약선사와 혜능대사께서 수련하셨던 동굴에서 3년 동안 폐관수련을 하였고, 드디어 불성의 근원을 증득하고 출관하여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하였다. 만행스님은 동화선사를 선종의 도량으로 삼고, 대중들을 이끌어 해탈의 길을 전수하고자 서원하면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고, 부처님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노릇부터 잘하며, 도를 닦으려면 발심을 해야 한다."는 동화사 가풍을 세웠다. 현재는 5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거대사찰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참선수행에 정진하고 있다.


◆동화사에서 동공수련을 하는 스님들


◆양정당에서 수련하기 위해 모여 앉은 사부대중


◆6조혜능대사께서 수도하여 득도하신 삼성암에서의 법회.


◆ 개광식을 주관하는 만행큰스님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바림등(8cm)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제)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